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3월 27일) 2019년 5월 1일 수요일



"MBC는 사과하라"… 봉축 환희가 분노로 MBC의 조계사 신축 템플스테이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조계사는 4월 23일 MBC 규탄법회를 열고 MBC의 사과와 최승호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조계사 신도대중은 소명이 반영되지 않은 왜곡보도로 조계사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MBC를 질타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MBC 편파 보도에 '봉축 佛心' 멍든다

MBC 뉴스 파문… 불교계 "봉축마다 왜 이러냐" 공분

소명 미반영에 왜곡 편파 비판
MBC기자 "납득안돼 소명안해"
언론계 "소명 임의누락은 편파"

조계사, 검찰고발 및 언중위 제소
조계종 대변인도 불만 강력 제기
"악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노덕현 · 윤호섭 기자

불교계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진행된 MBC뉴스데스크의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횡령의혹 보도에 대한 불교계 공분이 일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4월 25일 MBC 최승호 사장과 보도국장, MBC뉴스데스크의 기자 2명과 A건설회사 각자대표 임ㅇㅇ씨 등을 중앙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MBC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사는 4월 2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신도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MBC규탄집회를 열고 △MBC 최승호 사장의 사퇴 △MBC보도국장의 해임 △MBC뉴스데스크 보도기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조계사 충분한 소명, 반영 無

조계사와 불자들의 이같은 행보는 MBC가 4월 22일 보도한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의혹 보도가 조계사 측의 소명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계사는 4월 8일 조계사 안심당 앞에서 촬영 중인 MBC취재진을 발견하고 취재여부를 파악했다. 당시 MBC기자의 여행사 직원 등으로 가장한 취재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공식 취재공문을 보내 줄 것을 요구, 공문접수 후 4월 11일 MBC기자의 조계사 내방에 공문 전달과 함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명했다.

당시 소명은 △체험관 일부 용도 변경은 유관기관 협의 거쳐 구청 허가를 얻어 이뤄진 점 △시행사와 계약 이후 시공사와의 계약은 시행사 A건설의 면허 획득을 위한 행위로 조계사는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시행사 대표가 벌인 사건인 점 △내진설계 변경은 테라블릭 공법서 전벽돌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내진 보강이 더 이뤄진 점이었다.

하지만 MBC뉴스데스크는 22일 보도에서 '정부 돈을 받아놓고 정작 엉뚱한 건물을 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처음부터 조계사는 이 건물을 템플스테이 체험관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도면에 있었던 지진 대비 보강공사도 빼먹었다' 등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기자인 신 모 씨는 본지 통화에서 "템플스테이 체험관으로 사용할 공간이 당초 목적보다 줄어 들었고, 어떤 유관기관 협의를 거쳤는지 납득이 될 만큼 밝히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종로구청도 아닌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용도가 변경되었음이라고만 밝혔다"고 말했다. 또 여행사 직원 등으로 위장취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MBC는 조계사에 카메라 진입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악의적 편집, 보도 시점 의혹 제기

하지만 이 같은 보도행태에 대해 저널리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과 편파 왜곡 방송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취재 대상의 소명에 대한 임의 판단에 기반한 보도 누락은 반론권 보장과 공정성이란 저널리즘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편파 왜곡 방송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편집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은 "제목에 '국고보조금 횡령의 혹'이라고 자극적으로 보도했지만 방송 내용 어디에도 조계사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MBC가 제시한 계약서는 조계사가 체결한 바 없는 위조계약서였으며 이 같은 사실을 MBC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조계사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명 스님은 "공사업자 간 이해다툼이란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악의적인 편집으로 구성했다. MBC 최승호 사장은 지난해에도 이맘때 즈음 PD수첩을 통해 불교계를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저의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사 신도들도 울분을 토했다. 김문주 조계사 신도회 사무총장은 "불교집안의 가장 큰 축제인 부처님오신날 준비로 환희심이 가득해질 시기에 선정적 보도로 MBC가 무슨 이득을 보려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계종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불교 최대 명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보도의 사실 전달도 부족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악의를 가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재 MBC의 보도가 과하다는 건 불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종단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뉴스데스크는 4월 23일 조계종이 진행하는 10 · 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특혜인 것처럼 보도해 법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까지 특혜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불교 청소년교육, 사회적 지혜 함양을"

조계종 포교원 4월 24일 제78차 포교종책연찬회서

교육정책 변화 따른 방안 모색
공공선 알리는 데 방점 둬야

조계종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토대로 청소년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24일 제78차 포교종책연찬회 '국가교육정책의 변화와 청소년 활동 모색'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고 불교계 청소년 종교교육의 방향을 진단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장학관의 '교육정책방향과 종교의 역할에 대한 소고', 이대성 스토리평생교육원장의 '국가교육정책변화에 따른 청소년 포교전략과 방법'이 발표됐으며, 권진영 전국교법사단장과 김화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사무총장,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조진형 장학관은 불교계 청소년 종교교육 활동에 있어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공공선을 알리는 부분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 장학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종교계 인성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불교계에서 운영한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했다. 가장 주목할 것으로 불교색채를 띄고 있으나, 인성교육의 본연 가치에 충실하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종교배경의 학생들이 특정종교를 의식하지 않으며 인성교육에 집중해 결과에 만족했다는 것"이라며 "종교 가르침을 넘어 현대사회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과정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대성 스토리평생교육원 원장은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및 어린이청소년포교 현장의 지도자 양성 및 지원책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정인 스님은 "교육 전체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활동에 우리 불교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신임 이사 덕문 스님 선출

4월 25일 이사회서… 감사엔 호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신임 이사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선출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자광)는 4월 25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319회 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덕문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의 후임으로 자광 스님은 7월 20일부로 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동국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종회의 검증을 거쳐 자광 스님 후임 이사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사회는 복수 추천된 후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덕문 스님의 이사 선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덕문 스님의 임기는 7월 21일부터 4년 간이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 3월 사직한 동국대 일반 감사 덕문 스님의 후임에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선출됐다. 이사회는 조계종의 추천을 받은 호산 스님과 성화 스님(초심호계위원)에 대해 논의를 거쳐 호산 스님을 감사로 선임했다. 호산 스님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임기로 2020년 1월 4일까지다.


덕문 스님


호산 스님

이날 이사회는 지난해 산하기관 결산과 통합구매 및 물류대행업체 법인 설립, 금산중 씨름장 증축, 동국대부속유치원 증축, 경주캠퍼스 선센터 건립사업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한편, 이사회에는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이사 성타 · 법산 · 돈관 · 일관 · 성효 스님 등 재적이사 13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사 고 제1244호, 제1245호는 제작 일정 상 신문 발송이 지연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결의문 -

오늘 종단 현안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한 우리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지난해 설립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외부단체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동조하여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소사건과 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 다 음 -

1.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수행과 봉사, 헌신 등 바라밀행과 전법을 실천하는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에 봉사하는 일부 종무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 지부를 설립하여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사실과 확인되지도 않은 생수업체 직원의 무책임한 발언을 근거로 전 총무원장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심지어 검찰 고발의 당사자가 종단과 사찰의 종무원이 아니라 조계종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소속 조직이라는 점은 외부단체인 민주노총이 우리 종단의 자율적,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힌다.
3. 우리 종단의 운영질서이자 근간인 종헌종법과 제 규정을 무시함은 물론 종단의 정상적인 종무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삼보를 향한 무분별한 제소 및 고발 행위를 한 종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일벌백계할 것을 결의한다.
4.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종단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재편 등을 비롯한 종무원의 지원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종단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2563(2019)년 4월 23일(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중앙종회 · 호계원 · 교육원 · 포교원 ·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질서 무시 조계종노조 일벌백계”

총무원 · 교구본사 · 중앙종회 연석회의 결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의 전 · 현직 총무원장 제소 · 고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조계종이 근본적인 종단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중진스님들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최근 발생한 조계종노조 현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호계원장 무상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과 각 교구본사주지 등 종단 주요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조계종노조 설립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소사건,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한 조계종노조의 검찰 고발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조계종 중진스님들은 회의에서 종단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무원 · 중앙종회 · 호계원 · 교육원 · 포교원 ·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공동명의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수행과 봉사, 헌신 등 바라밀행과 전법을 실천하는 종무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지부를 설립해 총무원장을 상대로 노동위에 제소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생수업체 직원의 발언을 근거로 前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작금의 상황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단체협약과 고발 당사자가 종무원이 아닌 민주노총 소속 조직이라는 점은 종단의 자율적,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현직 총무원장 제소 · 고발
조계종 중진스님들 유감표명
현안 대응할 TFT 구성 박차
종단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



총무원 · 교구본사 · 중앙종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조계종 중진스님들이 조계종노조에 대한 일벌백계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는 “종헌종법과 제 규정을 무시함은 물론 정상적인 종무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삼보를 향한 무분별한 제소 및 고발 행위를 한 종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일벌백계할 것을 결의한다”며 “중앙종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등을 비롯해 종무원의 지원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종단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 같은 결의에 따라 종단 현안 논의 및 종단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교구본사와 중앙종회, 집행부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키로 했다. TFT 구성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연석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어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헌종법 미비사항을 검토하고 보완하며 이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한 뒤 “종교단체에 노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현재 조계종에 노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교인 근로장려금 반대”

4월 22일 재무부 명의로 입장문 발표

올해부터 종교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차원의 안내가 이뤄지는 가운데 조계종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재무부(부장 유승 스님)는 4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과세 당국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들에게 출가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어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 이기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해 반대해왔다”면서 “종단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출가수행자로서 스님들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세 정책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오신날 국회 불자들도 ‘한마음’

불교문화사업단, 정각회 초청 사찰음식 오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4일 ‘국회 정각회 및 직원불자회’를 초청해 서울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문화체험 오찬을 실시했다.<사진>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국회 정각회장 강창일 의원과 부회장 이원욱 의원, 추미애 · 정갑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이제 곧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다. 국회 불자들께 부처님 가피가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에 정각회 의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화합과 평화 구현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창일 의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계 역할이 크다”며 “절대자유와 절대평등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불교 근본은 화쟁이다. 국회에서도 이런 뜻을 받아 화합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했다.

정갑윤 · 추미애 의원 역시 “국회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처님 지혜로 잘 헤쳐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오찬에서는 원행 스님과 원경 스님 등이 불교계 현안에 대한 고충을 정각회 의원들에게 전달했으며, 의원들 역시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판문점 선언 1년, 평화가 되자”

KCRP 기념선언문 발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4월 22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평화선언과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KCRP는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대화 노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SNS에 평화 위한 창의적 행동 전개 △종전선언 · 평화협정 등 이뤄지도록 함께 기도 등을 당부했다.

KCRP는 “100년 전 선조들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있다. 이러한 세상을 위해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종교인평화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평화의 길에 동참하고, 스스로 평화가 돼주시길 호소한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경찰관 공상 치유 ‘나눔 템플스테이’

조계종, 경찰청과 MOU 체결
전국 사찰서 템플스테이 지원

경찰관이 공무 중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을 앞으로 템플스테이에서 치유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3일 경찰청과 ‘템플스테이 활용, 공상경찰관 등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이번 협약에 따라 문화사업단은 경찰청의 직원 회복제도인 ‘힐링캠프’와 연계, 공상경찰관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 문화사업단이 최근 사회 소외계층에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나눔 템플스테이’의 일환이다. 문화사업단은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다양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문화사업단 측은 “공무수행 중 각종 사건사고로 신체적 · 정신적 상처를 입은 공상경찰관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산사의 자연환경과 명상 등을 체험하게 된다”며 “산사에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한편, 대국민 치안 서비스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상경찰관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사찰은 서울 금선사, 강화 전등사, 용인 법륜사, 남양주 봉선사, 양평 용문사, 영동 반야사, 예산 수덕사, 공주 갑사, 해남 대흥사, 김제 금산사, 장성 백양사, 성주 심원사, 김천 직지사, 고성 옥천사, 경주 기림사, 부산 흥법사 등이다.

협약식에서 원행 스님은 “공상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다 상처 입은 분들이다. 공상경찰관에게도 마음의 쉼이 필요하다”며 “이번 템플스테이 지원이 공상경찰관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업무중 입은 상처를 보듬기 위한 경찰청 힐링캠프와 아름다운 산사에서 자연 등과 교감하며 심신의 위안을 얻는 템플스테이는 매우 닮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많은 공상경찰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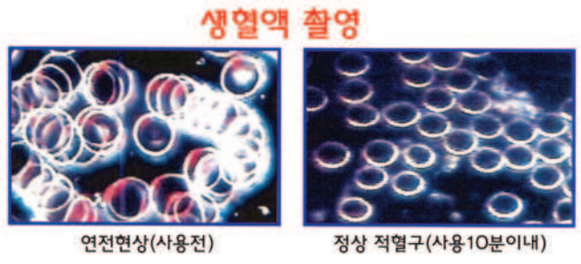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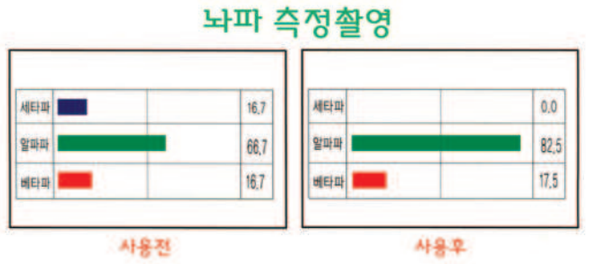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정법 바다’서 진짜 불교 강의 만나다

정해학당 10주년 맞아
5월 4일 기념법회 봉행

10~15명 소규모 그룹
부산 · 안동서 강의 진행
학생 절반 10년간 참여

주입식 아닌 토론 위주
“논쟁 없음 강원 아냐
인연되면 서울 강의도”


정해학당의 강의 모습. 10년간 진행된 토론식 수업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산과 안동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불교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정해학당이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정해학당(학장 오경)은 5월 4일 오전 10시 안동 보경사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개원 이래 학당과 인연을 맺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학당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정해(正海)학당은 2009년 4월 부산에서 처음 개원했다. 경전 공부, 참선 수행 등을 배우고 익히는 강원(講院)의 성격이 강한 공부모임으로 운영돼 왔다. 이후 학장 오경 스님이 안동 보경사를 창건하면서 안동 정해학당이 문을 열게 됐다.

부산과 안동, 두 곳의 학당에서는 지난 10년 간 〈금강경〉 〈화엄경〉 〈원각경〉 등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가 이뤄져왔다. 현재 부산 정해학당에서는 매월 2 · 4주 수요일 저녁 7~10시에 〈금강경 오가해〉에 대한 강의가 열리며, 안동 정해학당에서는 매주 1 · 3주 저녁 7~10시에 〈대승기신론 원효소〉 강연회가 펼쳐진다.

10년이 됐지만 학당 거친 사람들은 100여 명 안팎이다. 15명으로 시작했지만, 매 강좌가 15명을 넘은 적은 없다. 지금도 부산 정해학당에서는 12명, 안동 정해학당에서는 10명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소규모 그룹 교육이지만 강한 결속력을 자랑한다. 학생 90% 가량이 5년 이상 학당에서 강의를 듣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초창기 멤버들이다.

이 같은 학생들이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것은 강의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해학당은 사찰불교대학에서 하는 일반적인 주입식 강의는 지양한다. 강의 후에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통상 강의시간이 3시간이지만 경구 하나를 놓고 학장과 학생의 날선 논박이 이뤄지곤 한다. 그러다보니 경전 하나를 완전히 강의하는 데 수년 씩 걸리기도 한다. 실제 부산에서 했던 〈대승기신론 원효소〉 강의는 3년이 걸렸고, 〈원각경〉 강의는 6년가량 진행됐다.

정해학당 학장 오경 스님은 “옛 스님이 말씀하길 ‘논쟁이 없으면 강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해학당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된다”면서 “생각을 바꾸려면 주장과 논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한다. 수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2~3년 정도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오경 스님은 정해학당을 대중성보다는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개원 당시 추구했던 ‘깊이 있는 경전 교육과 이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오경 스님은 “상식적인 강의는 일반 사찰 불교대학에서 하고 있다. 깊이 있는 경전 교육과 정법을 바탕으로 한 신행을 하고 싶은 불자들을 위한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인연이 닿으면 서울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단기출가지만 출가는 출가. 동자스님들에게 삭발은 어려운 일이었다. 울고 웃으며 삭발식을 거친 동자스님들의 모습이 결연해 보인다.

눈물과 웃음, 동자승 출가의 길은 멀다

조계사,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수계식 개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 길러온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자 동자스님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어머니를 찾아 두리번거리다 눈물을 흘리는 동자스님부터 곱게 깍은 머리가 신기한 듯 웃음을 보이는 동자스님까지 이들의 모습은 천진불 그 자체였다.

서울 조계사는 4월 2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인 보리수 새싹학교 삭발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번 단기출가에 참여한 동자스님은 성현 · 명현 · 명신 · 명법 · 명조 · 명관 · 본엄 · 본성 · 다명 · 진화 스님 등 총 10명으로 유치원에 다닐 나이지만 의젓함을 보였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이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계는 부처님의 근본”이라며 “착한일을 하고 악한일을 하지 않음으로서 마음을 깨끗이하고 아름답게 하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동자 스님들은 4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동자 스님들은 이날 원행 스님에게 자신의 사진이 담긴 달력을 선물했으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컬러링북과 필기구, 단주 등을 선물했다. 원행 스님은 동자 스님 한명 한명에게 단주를 채워주며 “성불하세요”란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조계사 보리수 새싹학교 소속 동자스님들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2일까지 연등회 등 봉축 주요행사에서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문화체험과 전통교육 등도 함께 받게 된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노후자금 전액, 승려복지에 회향한 스님

책 〈마음거울〉 저자 대화 스님, 1억원 쾌척

전북 장수 소재 ‘힐링캠프 명상의 집’ 대표이자 〈마음거울〉(민족사)의 저자 대화 스님이 노후자금으로 저축해 놓은 약 1억 원을 승려복지기금으로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대화 스님은 4월 11일 자신의 통장에 모아놓은 1억8만원을 승려복지회 후원금으로 입금했다. 대화 스님은 그동안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매일 아침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SNS로 전송하다가 승려복지회 소식을 접했다. 스님은 후원금을 입금하면서 “한 때 여러 곳에 약소한 후원금을 보내다가 언제부턴가 다 끊었다. 하지만 승려복지부터 다시 시작해 보은하겠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스님은 법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8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계했다.

조계종은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승려복지제도 최초 시행 당시 만 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스님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후 2015년부터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들로 대상이 확대됐다. 윤호섭 기자

영화 ‘님의 침묵’ 연말 개봉한다

한명구 감독, 4월 24일 제작발표회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님의 침묵’이 올해 연말 개봉한다.

홍성군을 비롯해 만해 스님의 발길이 닿은 인제군(출가지 백담사), 고성군(수행지 건봉사), 서울 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 · 성북구(입적지 심우장) 등 여러 지자체가 후원해 제작되는 영화 ‘님의 침묵’은 만해 스님과 동향인 한명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에서는 원로배우 김희라 씨가 말년의 만해 스님 역을 맡았다. 또한 아역은 이준서 군, 소년역은 장재원 군이, 만해 스님의 모친 역은 ‘국민엄마’ 정혜선 씨가 연기한다. 이외에도 안병경 · 홍석연 등 유명배우들이 ‘님의 침묵’에 캐스팅됐다.


만해 스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님의 침묵’ 한명구 감독(사진 가운데)과 출연배우들이 무대인사를 하고 있다.

한명구 감독은 4월 24일 충무로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남아낸 ‘님의 침묵’은 올해 연말 개봉을 목표로 촬영중”이라며 “좋은 배우들과 만해 스님의 업적을 잘 담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어떤 불서 읽을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제12회 불교도서축제, 5월 2일 조계사서 열려

하루가 멀다 하고 책들이 출판되는 세상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불서도 마찬가지. 이처럼 너무나 많은 책들로 인해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도서축제가 열린다.

조계종 문화부는 5월 2일 서울 조계사 사적비 앞마당에서 ‘제12회 불교도서축제’를 개최한다.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회원사들이 최근 출간한 책 400여 종을 접할 수 있다. 불교출판 활성화와 사찰도서관 지원이라는 공적인 목표에 따라 불교서적 10% 할인 판매, 커피 쿠폰 및 에코백 증정 등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올해로 12년째 진행되는 불교도서축제는 불자들의 ‘불서 읽는 문화 확산’과 불교계의 ‘출판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축제 수익금은 전액 도서로 전환, 사찰 공간을 활용하고 불교문화를 알리는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에 지원된다.

불교도서축제 수익금으로 매년 1~2곳의 사찰도서관이 개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곳의 사찰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주최 측은 올해도 수익금 전액으로 18번째 사찰도서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오대산 전나무길이 어린이 놀이터로

어린이날 기념 오대산 걷기명상대회 열린다

5월 5일 오대산 선재길 일대서
놀이큰마당서 체험 한마당 전개
힐링콘서트, 사진공모전도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대산 걷기명상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전나무숲길을 가족과 함께 걷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하는 오대산걷기명상 축제가 열린다.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어린이 행사가 함께 열려, 오대산 전나무길이 어린이 놀이터로 꾸며질 예정이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대산 선재길 일대에서 '제16회 오대산 걷기 명상 축제'를 개최한다.

오대산걷기명상축제는 2004년 5월 16일 시작된 국내 최초 걷기명상대회다. 월정사와 상원사간 약 10km구간을 걷는 행사로 1300여년 전 자장율사가 오대산문을 개창한 이후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걸은 구도의 길을 불자들이 걸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특히 '가족과 함께 慧'를 주제로 기존 '선재길 걷기'에서 '걷기명상'이 더해져 가족 힐링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오대산자연명상마을을 개관한 월정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대 명상 열기와 가족단위 체험행사에 대한 참여열기가 일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사는 오전 10시 월정사에서 '붓다의 정원' 개막식 행사를 통해 문을 연다. 식전행사로 '나를 지켜보는 명상'을 통해 본격적인 걷기명상 전 명상수행법에 대한 안내와 실참이 진행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특별행사로는 오전 10시부터 바람의빛깔길에서 전나무숲길까지 약 500명이 참여하는 걷기명상이 펼쳐진다.

참여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전나무숲길에서 어린이날놀이큰마당이 오후 2시까지 마련된다.



어린이날놀이큰마당에는 문화재 문양 스크래치, 트리크라이밍, 우드공예, 놀이한마당, 경찰관과 소방관 체험 등 다양한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이와 함께 완주 후 회향하는 장소인 선재길 회사거리에는 힐링콘서트 특설무대도 펼쳐진다. 여기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버블쇼와 저글링, 마임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어린이는 불교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족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록의 계절 5월, 오대산 걷기 명상에 참여해 자연과 나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16회 오대산걷기명상대회에서는 부대 행사로 제15회 오대산전국디지털사진 공모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오대산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대산의 다양한 길을 담는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월정사 측은 "오대산의 길을 따라 자연의 아름다움, 불교문화 그리고 구도의 길 등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정의달을 맞아 새롭게 움트는 생명을 살피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걷기대회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 관심에 올림픽 설상종목 발전"

스노보드 국가대표들,
수국사서 달마배 수상자들 만나



4월 21일 수국사를 방문한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와 달마오픈 수상자들이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설상 종목 첫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한 스노보드 국가대표선수들이 국가대표 꿈을 키워나가는 후배들을 서울 수국사에서 만났다. 2003년부터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열기 시작해 달마오픈 챔피언십으로 대회를 키워온 호산 스님의 주선 덕분이다.

스노보드 국가대표인 김상겸 · 최보군 · 이상호 · 정해림 선수는 4월 21일 서울 수국사에서 달마오픈 중 · 고등 · 일반부 수상자들과 함께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는 16년째 스노보드 대중화에 힘써온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마련했다. 호산 스님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달마오픈 대회는 국내 최장수 스노보드대회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계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다. 호산 스님은 그동안 달마배를 거쳐 국가대표로 성장한 선수들과 국가대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사찰에서 대화를 나누고, 한편으로는 올림픽 설상종목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들을 초청했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달마배 수상자들은 수국사에서 도량을 참배하고, 명상의 시간을 보내며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평소 마주치기 힘든 국가대표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즐거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국가대표 정해림 선수는 "국가대표는 대부분 해외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국내 대회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후배들과 마주칠 일이 많지 않다"면서 "후배들을 위해 선배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달마오픈 중등부 수상자인 윤창하(15) 군은 "국가대표를 목표로 노력하는 와중에 롤 모델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평소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꾸준히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수들과 함께 사찰에 방문한 박영남 스노보드 위원장과 이상원 국가대표 알파인 감독은 오랜 시간 설상종목 발전에 힘쓴 호산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호산 스님은 선수들에게 간단히 명상을 지도한 뒤 "올림픽에서는 1초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린다. 사찰 밖에서도 각자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며 "설상종목이 국내에서 더 높은 인지도를 갖도록 뒷바라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전국 병원법당 · 교도소 불서 지원

불교진흥원, 부처님오신날 기념 1800권 전달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4월 19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 포교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국 병원법당 30여 곳과 교도소 50여 곳에 불서 1800여 권을 전달했다. 불서는 도서출판 민족사 · 불광출판사 · 솔바람(설법연구원) · 운주사에서 발행한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관음기도〉 〈마음챙김 놀이〉 등 단행본 2종과 〈자타카의 노래〉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등 만화불서 17종이다.

진흥원 측은 "수감기관 재소자와 병원법당을 찾는 불자들에게 위안과 치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매년 불서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은 2010년 전국사찰 어린이, 청소년법회 450여 곳에 3000권의 만화불서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군법당과 병원법당, 사찰도서관 등에 불서를 보급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 성료

봉축위 · 불레협,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천진불들의 노래 경연이 펼쳐졌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장)는 4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31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노래잔치에는 조계사, 봉은사, 국제선센터, 진관사, 금륜사 등에서 6~13세까지 어린이청소년 300여 명이 참여했다. 독창 18명, 중창 5팀, 합창 2팀 등 참가자들은 저마다 준비한 노래를 뽐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조계종 문화부장 현법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어린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처님오신날 주간을 맞아 어린이 한명 한명을 모두 부처님처럼 존귀하고 거룩하게 모시자"며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새겨 맑고 영롱한 마음과 음성으로 널리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래잔치는 최연소 참가자인 유치부 김효경(6세) 양의 '착한아이'를 시작으로 유치부 공연과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독창 그리고 중창과 합창 공연으로 진행됐다. 각자 준비한 율동과 노래가 이어질 때마다 응원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가족과 신도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날 행사는 심사시간에 레크리에이션도 펼쳐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상은 우리부처님을 부른 봉은사 최보연(초5) 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덕현 기자

"지금이 제일 젊다" 어버이날 행사

종로노인福 '바운스바운스 시즌5' 5월 2일 마로니에공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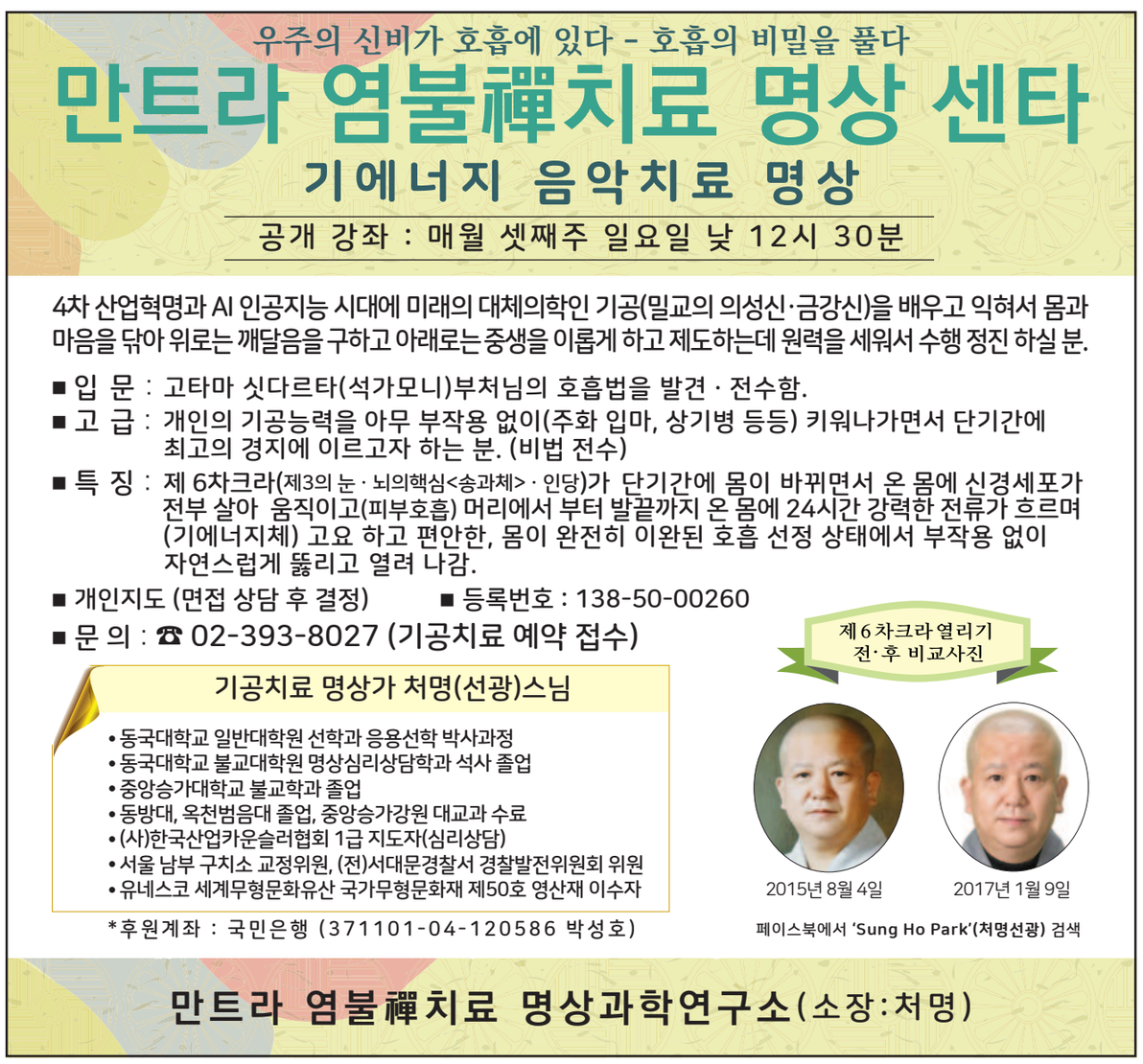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오는 5월 2일 복지관과 마로니에공원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 '바운스바운스 시즌5'를 개최한다. 복지관이 주최하고 복지관과 ㈜추억을파는극장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행사 당일 복지관 1층 경로식당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어르신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식전공연, 기념식,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포토월, 장체험관 및 장카페 홍보처, 이화동부녀회가 운영하는 먹거리 등의 부스를 체험할 수 있다.

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이번 행사는 종로구 어르신을 포함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예쁜가족상에 선정된 '고양시 성명숙가족' 팀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불자인 시어머니와 개신교인 며느리,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두 종교를 모두 믿는다는 아들까지 종교를 초월한 화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가족이 화합하면 세상이 행복해요"



김병조 씨의 재치있는 사회로 경연대회의 재미와 감동을 더했다.



이날 경연에는 응원도 활발히 펼쳐졌다.


관객들이 참가자의 재치에 박장대소하고 있다.

조계사 4월 21일 제1회 3대가 행복한 노래경연 현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런 걸 고군분투라고 하죠. 지방자치가 잘된 서로서로 재미있게 논 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율동을 준비하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게 가족화합 아니겠습니까."

4월 21일 화창한 날씨 속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할머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노래무대가 펼쳐졌다. 노래에 맞춰 한바탕 춤사위 끝에 내려진 평가에 대중은 웃음을 터트렸다.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이를 사랑스럽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함께 나온 가족들은 미소를 지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4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 '제1회 3대가 행복한 노래경연대회 하하하 노래자랑' 은 참가한 가족들과 대중이 모두 함께 즐거운 행사가 됐다.

이날 경연에는 마포구김복순가족, 정산대군, 사랑하는우리가족, 라이온킹 등 3대가 함께 구성한 8개 팀이 참가했다. 경연의 사회는 김병조 씨가 맡아 재치있는 입담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2번째 참가팀인 정산대군의 경우 불공을 통해 얻은 아이 정산을 위해 3대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우리 어머니는 조계사서 열심히 공부하는 불자시고, 아버지는 늦깍이 불자세요. 남편은 그저 그런 불자, 아들은 모태불자입니다."

8가족 참가, 모든 가족 상받아
조손 함께 율동 연습하며 화합
함께 하는 것만으로 행복 더해

사회를 맡은 김병조 씨는 24개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자니 34개월된 불자 할아버지라며 격려했다.

김병조 씨는 "저도 7대 독자 집안에서 백양사에서 기도해서 태어났다. 할머니가 불심을 심어주셨는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 나쁜 길로 갈 수 없다"며 "오늘 참가한 인연으로 항상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나온 정순례 씨는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번 노래 경연에 참여했다. 함께 경연에 참여한 아들인 이성윤 씨는 "연로하신데도 딸을 봐주셔서 불효하는 듯해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몸이 안 좋으신데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했다. 정순례 씨는 "손녀딸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 보는 순간이 즐겁게 한다. 노래연습 시간도 함께해 너무 행복했다"고 말해 대중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김병조 씨는 "이런 게 어머니 마음"이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가족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를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4대가 함께 참석한 가족도 있었다. '라이온킹' 팀으로 참여한 김학중, 안소연 씨 등 가족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를 불러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증손자, 증손녀 할머니인 김학중 씨는 이번 대회 참여를 위해 청주에서 상경했다.

김학중 씨는 "가족이 화목하고 함께 모여 노래하는게 너무 행복하다. 청주에서 올라오며 연습했다"고 말했다. 딸 안소연 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같이 함께하니 너무나 좋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팀으로는 고양시성명숙가족이 무대에 올랐다. 이 가족은 성명숙 씨가 조계사에 다니는 불자지만 며느리 조수아 씨는 교회에 다니는 다종교 가족이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아들 윤현수 씨는 "교회도 갔다 절에도 갔다 한다"며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어머니께서 특히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잘해주셔서 화목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조 씨는 "요즘 가족끼리 종교가 달라 싸우는 곳도 있는데, 이번 노래경연대회의 본취지를 넘어선 또 다른 화합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조만간 며느리께서 절에 같이 나가시겠네요"라고 웃음을 더했다.

노래경연은 행복한 가족상에 '라이온킹' 팀이, 예쁜가족상에 '고양시성명숙가족' , 멋진가족상에 '정산대군' , 즐거운가족상에 '종로복지관팀' 등 모든 가족이 상에 선정됐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첫 대회여서 미흡한 점도 많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도록 하겠다"며 "이런 화합의 무대가 조계사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열려 불자가족과 국민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했으면 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총무원장 : 혜 인 사서실장 : 천 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부산불교대상’ 설동근 前연합신도회장

‘지역불교 발전’ 공로… 시상식 5월 4일 시민공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제정한 ‘제1회 부산불교대상’ 수상자로 설동근 前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사진〉이 선정됐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4월 22일 제1회 부산불교대상 수상자를 이 같이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표창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5월 4일 오후 5시 부산시민공원 부산연등축제가 열리는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설동근 前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재가불자 지도자로서 부산불교지도자 포럼을 창립했으며, 불교 현안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포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와 제주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숨진 수많은 영령을 위로하는 데 힘썼으며 12~14대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혁신위원장, 교과부 차관, 동명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최우수상은 부산개인택시 법륜회와 삼광사 화엄합창단이 선정됐으며, 상금은 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은 진여원(대표 남보타월)과 정서영 불자, 금강암 마야회가 선정됐다. 상금은 각 200만원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봄꽃놀이, 진달래 화전과 즐겨요”

안동 봉정사,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화전 제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동 봉정사가 안동시의 ‘테마가 있는 관광 4월의 봄꽃 여행’ 편에 선정된 것을 기념, 진달래 화전 무료제공 행사를 펼쳤다.

안동 봉정사(주지 도륜)는 4월 24일 봉정사 주차장 앞마당에서 전통음식인 진달래 화전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사진〉 봉정사는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며, 매년 봄 진달래 꽃길이 펼쳐지는 봄꽃 명소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봉정사 극락전과 대웅전 관람 후 영산암으로 올라가면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촬영장소이기도 한 오솔길이 나온다.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진달래 꽃길이 펼쳐져 봉정사의 한적한 봄을 색색으로 수놓는다.

한편 안동시는 매월 주제를 정해 ‘테마가 있는 관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1월 얼음축제, 2월 선비정신, 3월 독립운동에 이어 4월 관광 테마는 ‘봄꽃 여행’으로 선정됐다. 봉정사 외에는 △하회마을 △안동벚꽃축제 △신세동 벽화마을 △영호루 △도산서원 △안동민속촌 △온뜨레피움 △만휴정 등이 함께 선정됐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꾸준한 봉사, 지역사회 청소년 귀감”

갑룡장학회, 지역 모범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는 4월 23일 진안 산약초타운 강당에서 ‘제6회 갑룡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초·중·고 및 대학생 37명에게 장학금 총 143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진안군 23개 자원봉사단체 및 협약기관이 추천했다.

전달식에서 진성 스님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한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기영 학생(제일고1)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게 돼 기쁘다”며 “진안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달식에 앞서 갑룡장학회와 진안군 자원봉세선터는 2021년까지 3년간 97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매년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 세계 茶人 기장군서 화합”

(사)향기로운문화동행, 2019 국제차문화축제 성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 4월 20일 개최한 ‘2019 기장 국제 차문화축제’에서 차인들이 허황후에 헌다하는 모습.

순백의 한복을 입은 100인의 차인이 차를 우려 두 손에 담아 높이 들었다. 이어 100인의 내빈들이 차례로 허황후에 차를 올리며 합장했다. 햇차가 익은 곡우(穀雨), 인도와 중국을 대표하는 차인들과 한국 차 문화의 대표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향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은 4월 20일 부산 기장 정관 중앙공원에서 ‘2019 기장 국제 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기장차문화축제는 한국 제1호 차인인 허황후에 헌다례를 하고 차 정신을 세계인과 나누며 교류하는 자리로 매년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행사 규모가 더욱 커져 전국에서 찾은 차인들이 마련한 찻자리 55개가 열려 참가자 및 지역민을 반겼으며 6대 다류 찻자리도 마련돼 풍성함을 더했다.

또한 국제차문화교류를 위해 인도 타타그룹 아쌈홍차를 관리하는 파털 쿠마르 보라(Parturl Kumar Bora)외 12명과 중국 자사호 대가 이능발 도예가가 방문해 차문화 교류에 앞장섰다. 어린이를 위한 국제 문화교류 행사도 진행됐다. 기장 리틀싱어즈의 공연에 이어 인도 어린이들의 전통춤 시연, 일희다회 어린이들의 행다도 펼쳐졌다. 특히 일희다회 어린이들은 직접 내린 차를 인도 어린이들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인도·중국 등 각국 차인들
한국 문화교류에 관심 가져
6대 다류 찻자리 등 ‘눈길’
3000여 시민 몰려 행사 성황

행사는 이종순 추진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선고 다인(茶人)과 선고문화인에 대한 묵념, 허황후 헌다례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차인들을 격려하는 문화시상식도 열렸다. 허황옥 차인상에 정영숙 부산여대 교수, 수로문화상에 황산요 이수백 도예가, 차성문학상에 김창식 시인이 선정됐으며, 동행복지기금 1000만원은 장재진 동명대 교수에게 전달됐다. 이외에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 및 체험 자리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어려운 경제와 혼란한 시기인 요즘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는 기장군민의 화합과 정신문화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허황후의 고향 인도 홍차 아쌈과 허황후가 우리나라에 처음 가져왔다는 장군차가 오늘 만나 더 의미가 깊고, 전국 차인들이 차의 향연으로 축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축제에는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기장차문화축제에 참석한 인도 팀 파털 쿠마르 보라(Parturl Kumar Bora)외 12명은 4월 21일 한국 전통사찰 장안사를 방문,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인도팀은 탑돌이, 대웅전 참배, 사찰음식 체험, 기와불사 등을 체험했으며 한국 불교문화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인도팀은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며 양국 문화 소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산 대표 전법도량 ‘대광명사 10년’

개원 10주년 기념법회 봉행
“교육·포교·봉사 생활화”



대광명사 개원 10주년 기념법회에서 주지 목종 스님이 신도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안으로는 기도와 교육, 밖으로는 자비실천행을 펼치며 모범 포교도량으로 성장한 부산 대광명사가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4월 20일 대광명사 법당에서 ‘대광명사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시작 전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선물, “당신이 화신불”이라며 개원 이후 지금까지 함께 한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목종 스님이 법당에 입장하자 신도들은 일어나 합장하고 그동안 이끌어준 스님에게 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사부대중은 1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법회 시작을 알렸다.

육법공양에선 부부불자들이 나와 공양을 올렸으며, 10년 동안 이어온 발자취를 설명하는 영상 시청에 이어 신도들의 봉사활동을 치하하는 공로패 수여도 이어졌다. 공로패는 신익철 신도회장, 심영희·이윤희·박종후·송명지 불자가 수상했다. 대광명사에는 병원 포교, 독거노인 반찬봉사, 생명나눔 장기기증 활동 등 100여 명이 넘는 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든 봉사자를 대신해 대광명사는 5명에게 공로패를 시상하고, 법향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봉사자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법회에서는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과 신익철 신도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주지 목종 스님의 법문, 합창단 축가가 진행됐다.

주지 목종 스님은 “대광명사 개원 기념법회를 할 때마다 주제는 ‘당신은 불보살의 화신이다’ 였다”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의 목적이 바로 당신이 불보살의 화신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신익철 신도회장은 “10년 동안 이어온 밝은 변화, 아름다운 변화는 가정과 사회를 더욱 밝게 했다”라며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준 창건주 목종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성지는 성인이 태어나고 행원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며 “그런 의미로 돌아보면 도심 속의 성지는 바로 대광명사”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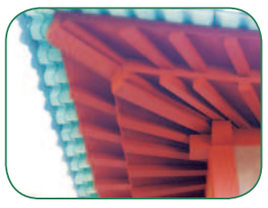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대광명사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 신행, 기도, 봉사를 아우르는 가람을 이루고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큰 빛의 집’ 대광명사는 대광명전을 주법당으로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한다. 직장인 및 어린이 등 세대별 맞춤 법회와 짜임새 있는 불교대학 운영으로 불자 양성에 앞장서왔다.

2009년 시작한 대광명불교대학은 현재 수료인원이 총 3091명이며 아향진, 진사실, 대원염불공양회, 사무량심, 소리장엄 합창단 등 각종 신행단체를 통해 지역 내 봉사활동, 바자회, 쌀 기증, 소외계층 복지기금조성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무료 49재와 추모위령재 등을 비롯해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유엔난민기구, 국경없는 의사회 등 구호 활동 지원에도 앞장섰다. 방송 매체포교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 전법도량, 조계종부산연합회 등 단체 활동에도 참가, 전법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 서초동에 대광명사 서울법당 지금선원을 개원했으며, 앞으로 수도권 포교 활동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축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산 불암사
회주 두산 일면 대종사
(조계종 원로의원)
주지 선 도
총무 법 륜
신도회장 허일심화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
031)527-8345
불암사 부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법 일 062-227-0173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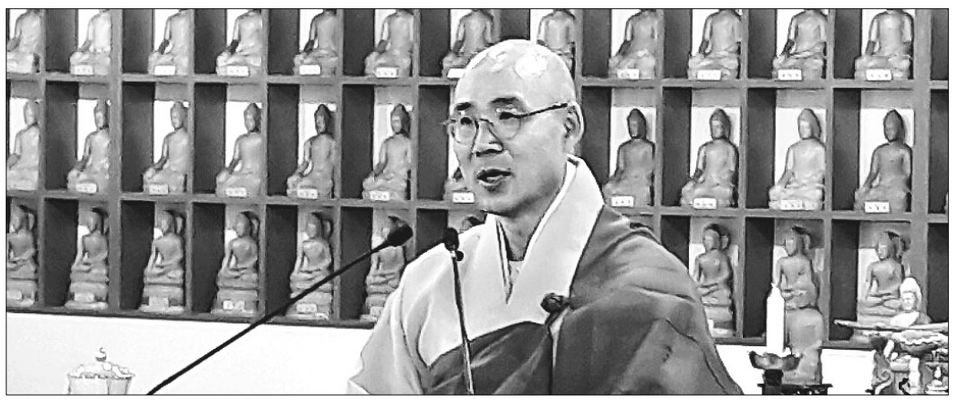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깨달음 향한 '참선 마스터'가 되자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는 4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 강남의 참불선원에서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이것이 수행이다'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한국 선승과 심리의학 전문가, 명상 고수들이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참사람 수행법 △정신건강 전문의가 바라본 초기불교 수행 △선문화를 통한 불교전법 △영화로 만나는 선수행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한다. 4월 13일에는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과 4월20일에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지상중계한다. 정리=노덕현 기자





4월 13일 강의
"믿음서 의심, 간화선 시작"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간화선은 조사선의 선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훌륭한 선법입니다. 그렇다면 간화선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꼭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의 조건을 말해보면, 일단 무상정등정각, 즉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진발심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진발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년동안 산다고 생각하면 발심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심이 나와야 합니다.

세월은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중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처녀 총각이었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도 몇 번이나 더 참여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상심을 내야 합니다. '항상하지 않다. 덧없다'는 생각이 무상심인데, 이렇게 무상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자꾸 미루게 됩니다.

하심하면 선어록이 들어옵니다. 간화선에서 3요소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신심입니다. 작은 신심이 아니라 큰 신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불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찌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첫째, 자신이 부처라는 믿음입니다. 당신들이 종입니다하면 믿는데, 당신들이 주인이라고 하면 안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이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무명을 명으로만 전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부처라는 큰 믿음으로 시작해서는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스승은 선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 갔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시원찮으면 가겠습니까? 선의 종장들이 먼 길을 떠나 스승을 찾아갈때는 그냥 갔겠습니까. 1~2년 봇짐지고 찾아간 것은 큰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합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경에 일체중생이 불성이 있다는데 왜 스님은 없다고 하십니까.

없다라고 한 순간 깨치라고 한 말씀입니다. 깨치지 못하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은 왜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는데 없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됩니다. 부처와 조사는 대신심의 차원에서 보면 동등한 존재로 봐야합니다. 그래야 하신 말씀을 듣고 깨치거나, 혹은 깨치지 못해도 어찌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정이 됩니다.

'어째서'란 의정, 의심이 간화선의 핵심입니다. 조사 스님은 부처님이 말하신 열반경도 안 보신 분이네 해버리면 간화선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심이 대의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의심하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깨치라고 제시했는데, 깨치지 못한 자가 할수 있는 일은 '어째서' 입니다.

믿음 바탕으로 화두 의정
대의정 하에 참구 정진
간화선은 이해 아닌 실참

처음에는 의심입니다. 처음에 화두는 들으라고 하니 듣는 것입니다. 듣다보면 의정이 됩니다. 의정이 되면 감정으로 자리를 잡아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들려지는 화두가 있으면 아직은 공부가 안된 것입니다. 화두가 잘 들린다는 사람들은 화두가 끊킨 것입니다. 그러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느낍니까? 고기가 물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화두와 내가 완전히 하나로 돌아가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의단입니다.

이 때를 진짜 공부라고 합니다. 앞에 절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가 호시절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화두는 타파하기 위함입니다.

간화선에서 화두는 사유하거나 분석하거나 내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풍선을 불 때 모든 구멍을 막고 불어야 불다가 빵 터집니다. 똥 막대기도 불법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순간 이는 사구가 됩니다. 죽은 말이 됩니다.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화두는 의정이 생명입니다. 의심 의정 대의단이 되는 순간, 툭 터질 날이 머지 않은 것입니다.



4월 20일 강의
"불교 수행 근간은 사성제"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요즘 시대에 불교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참선과 명상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입니다. 서양에서 온 명상은 참선이 아닙니다. 명상은 고요하게 함을 의미하며, 심리치료나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순 있어도,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일여의 해탈, 열반까지 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수행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최고의 수행법은 간결해야 합니다.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합니다. 수행법의 자격은 첫 번째는 전통성이 있어야 하고

대자유 찾기 위한 수행법
사성제 근간한 불교에 있어
지관 수행 통해 열반세계로

역사적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실참에 맞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내면의 체험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수행은 '마음'의 변화에 귀일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이 깨치신 사성제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괴로움을 멸한 자리로 가는 도 닦는 진리는 무엇인가를 궁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멸한 열반은 대자유이자 영원한 행복입니다.

고통은 모두 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수행의 근거는 사념처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념처는 몸을 알아차림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4념처의 뿌리는 념(念, sati)으로 사띠는 현재 일어나는 첫 생각을 알아(mindfulness), 지각, 자각(awareness)하고, 현재에 주의 집중(attention)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remember)하는 것입니다.

념, 즉 사티를 외국에서는 마인드풀니스로 해석하는데 이는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실체를 빼고 해석한 것이지요.

사띠는 수행을 깊게 하여 자동적으로 기억된 선업이 5온의 '식'에 저장되고 그 의식을 바탕으로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식에 끌려가지 않으면 '즉견여래'가 됩니다.

불교 수행은 사마타(止), 위빠사나(觀), 즉 지관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행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모두 각자에게 맞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행 중 불교 전통의 간화선은 깨친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도를 닦지 않아도 확 들어가게 합니다. 오도된 것을 스스로 알게끔 합니다. 심지어 일반 생활에서도 언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가 알게 하는 해학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묵조선, 사마타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묵묵히 앉아 있으면 보는 것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사마타입니다. 멈춤, 평안입니다.

묵조선에서 묵언은 절언이라고도 합니다. 묵묵히 말없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맑고 비춤이 앞에 나타는 것입니다. 사마타는 위빠사나요. 위빠사나는 사마타인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자기 숨을 보라고 하면 숨이 보이지 않는다죠. 호흡은 천지에 있습니다. 자의식으로 들어가 마음을 쉬는 것은 내 마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살펴보면 볼 수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있음은 언어를 여의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있으면 나를 보게 됩니다. 아무 말을 안해서 생각은 언어로 합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호흡을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입술 끝에 호흡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호흡의 대상은 단지 마음입니다. 그냥 숨만 쉬면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 고요한 삼매로 들어갑니다. 이 감각기관이 천천히 사라지는데 문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법이든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 깨침의 귀결은 사성제입니다. 문자선을 떨쳐버리기 위해 조사선을 응용해서 나온것이 간화선, 묵조선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갑시다.

懺悔文

재단법인 선학원의 이사장 법진스님과 이사회 임원 스님들께 깊이 머리 숙입니다.

이번에 명연이 서봉사를 전통사찰로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선학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가짜 직인을 날인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로 재단에 막대한 누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일은 참으로 저의 허물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사장스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명연에게 서봉사 창건주 및 주지 소임을 맡긴 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생각하니 慙愧無面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저의 부덕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깊이 참회합니다.

또한 제가 선미모 고문으로 위촉된 것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연이 혼자서 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도록 방치한 저의 허물은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연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재단과 이사장스님을 비방한 허물에 대해서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음력 2월 27일에 열린 전체 봉래문중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명연을 문중에서 제명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수의 언론에 공고하여 명연과의 이연 사실을 명백히 하겠습니다. 또한 서봉사가 조계종에 가등록되어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가등록 취소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선학원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재단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문도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봉사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 온 도량이고 저의 상좌와 손상좌들, 문중의 어린 것들이 의지하는 도량이니 저의 후학들이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사장스님과 임원 스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여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난 4월 5일 제 상좌와 손상좌들이 모여 뽑은 명음을 서봉사 분원장으로 꼭 임명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2019년 4월 15일

대구 瑞鳳寺 慶喜 三拜

이연공고

■ **법 명 :** 명연 (明淵)

■ **속 명 :** 백숙향 (白淑香)

■ **생년월일 :** 1961년 12월 6일

상기인은 본인의 도제였으나 음력 2월 27일 개최된 봉래문중회의에서 제명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大邱 瑞鳳寺 會主 慶喜 合掌

고요함과 잔잔함 속 평화를 그리다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⑧ 샤르댕의 비누거품과 금강경 사구게

한 순간,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게 만드는 그림이다. 비눗방울 놀이를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소년이 두터운 벽돌 난간에 기대어 긴 대롱으로 비누 거품을 불고 있다. 오른 팔꿈치 옆에는 비눗물이 든 작은 유리 컵이 놓여져 있고 소년의 머리는 가지런히 묶여 뒤로 넘겨져 있다. 대롱을 쥔 오른손과 이마에는 밝은 빛이 부서져 내려 어둡게 칠해진 벽돌 난간과는 극단적 대조를 이룬다. 그림의 오른편에서는 모자를 쓴 작은 꼬마가 비누 거품을 지켜보기 위해서 발돋움을 하고 있다. 갈색을 띤 재킷의 옷 주름, 하얀 셔츠 등의 색조는 조화롭고 풍요롭게 채색되어 있으며 그림 속 인물과 정물들은 의도된 균형감으로 잘 배치되어 정교한 구성미를 느끼게 한다.

비누 거품을 불고 있는 아이는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으로 보인다. 나이가 더 많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물려받아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외투의 옷감은 실크나 린넨과 같은 그리 고급 소재는 아니다. 더욱이 터진 소매로 삐어져 나온 셔츠를 볼 때, 소년은 이 옷을 계속 입기에는 이미 커 버린 것 같다. 비록 몸에 맞지 않는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기는 하나, 소년은 마치 철학자와 같은 진지한 표정과 기품을 지녔다. 옆에 있는 작은 아이가 쓴 삼각모자는 이 그림에서 '비누 거품'과 함께 아이의 삶과 호기심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소재다.

샤르댕은 이 작품에서 인물을 사각형 모양의 돌로 만든 창문에 배치하였는데, 창문 난간 밖을 향해 걸친 팔과 머리는 큰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키 작은 어린 소년의 모자에서 또 다른 작은 삼각형이 반복된다. 구성의 초점은 전체 캔버스에 덮여있는 따뜻한 갈색 색조의 바탕 위에 방금 만들어진 동그란 형태의 투명하게 반짝이는 비누 거품으로 수렴된다.

이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 몰입감이다. 이마와 손등에 부서져 내리는 빛에 대비해서 화폭의 외곽과 배경은 짙게 어두운 색조로 채색되어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대조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비누 거품이 터지는 것을 염려해 천천히 대롱을 부는 듯한 청년의 동세는 긴장감을 사뭇 고조시킨다. 또 견고한 무게감을 전하는 갈색조의 배경과 단단한 돌로 만든 창틀, 그리고 곧 터져 사라질 비누 거품이 연출하는 대조는 감상자의 시선을 더 깊이 그림 속으로 끌어 들인다. 너무나 가볍고 부서질 듯 연약한 얇고 투명한 둥근 비누 거품을 통해, 그림 속에서 가장 무겁고 단단하게 지속되는 수평의 돌 선반의 질감이 인상적이다.

비누거품의 반짝이는 표면은 샤르댕 특유의 거장다운 솜씨로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으나, 한껏 부풀려진 그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운 모습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죽음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닥쳐올 수 있음을 암시한다. 비누 거품은 반짝이고 아름답지만, 건드리면 터질 듯 위태하여 무심한 운명 앞에 놓인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

봄날 향기를 뽐내며 빛나는 싱싱한 꽃이
어느덧 시들고
아름다움은 하릴없이 사라지네.
인간도 이와 같아서
설령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빈 숨으로 부풀린 비누 거품처럼
가뭇없이 꺼져가네

16세기 네덜란드의 작가 에스티우스(F. Estius, 1542~1613)는 이렇게 삶의 덧없음을 노래했다. 또한 일찍이 고대 로마의 인문학자 바로(Marcus Terentius Varro, BC116~BC27)는 'Homo bulla est' (인간은 물거품과 같은 존재)라고 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거품에 비유한 바 있다. 이처럼 비누 거품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바니타스(Vanitas), 즉 삶의 덧없음과 허무를 상징하는 시각적 알레고리로 사용되어 왔다.

사소한 일상사 다룬 그림
지속과 소멸, 고통과 행복
사이의 삶과 고뇌를 조명



비누 거품(Les Builles de savon), 캔버스 유화, 93 x 73.5 cm, 1733–1734

샤르댕은 비누 거품을 여러 버전으로 반복하여 그렸는데, 이 그림은 그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샤르댕의 〈비누 거품〉은 프랑스 패션디자이너이자 아트 컬렉터였던 자크 두켓의 컬렉션이었다가, 1912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300,500프랑에 팔렸다. 현재 이 작품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과 워싱턴 DC의 국립 미술관에도 후기 버전이 소장되어 있다.

필치와 색채, 화풍은 물론 샤르댕 자신의 고유하고 독특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으나, 그 형식과 주제 면에서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 전통의 영향이 짙다. 이 주제는 짧게는 이전 시기의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네덜란드 판화에 기인하나, 역사는 보다 오래되었다. 그러나 샤르댕의 그림들은 앞선 세기의 네덜란드 바니타스 정물화만큼 상징과 알레고리를 내세워 지나치게 의미를 전달하려 노력하거나 교훈을 주고자 설교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있는 사물과 사람들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

1699년 파리에서 가구 장인의 아들로 태어난 샤르댕은 역사화가인 피에르 자크 카즈(Pierre-Jacques Cazes) 및 노엘 니콜라 쿠아펠(Noel-Nicolas Coypel)의 문하에서 도제적 미술 수업을 받았다. 샤르댕은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독창적인 그림을 그렸던 화가로 평가 받는다. 1728년 발표한 〈가오리 La Raie〉는 그로 하여금 화단의 주목을 받게 한 대표작 중의 하나로, 이를 통해서 왕립 회화 조각 아카데미(Academie Royale de Peinture et de Sculpture)에 들어갔다. 아카데미에서 샤르댕을 '동물과 과일에 재능 있는 화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그는 꽤나 인정받는 예술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샤르댕은 여러 장르 중에서 당시 크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정물'을 미술의 주요한 한 장르로 이끈 선구자적 화가로, 에두아르 마네, 폴 세잔, 앙리 마티스 등을 비롯한 후세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또 장대한 스케일의 역사화, 종교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던 고전주의, 바로크 양식이나 탐미적 표현 방식의 귀족들의 한가한 유희 등을 그렸던 로코코 시대의 일반적인 화풍과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조용한 일상을 작품으로 남겨 그 시대의 미술사에 특이한 족적을 남긴 화가였다.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융성을 이루었던 루이 14세 시대 이후, 프랑스 귀족 사회의 취향을 반영하던 미술양식이 바로 로코코 시기였다. 이 시기에 살롱, 아카데미, 교양인과 그 사교술 등, 근대 프랑스 문화의 여러 특징들이 나타났으며, 예술에서도 이들의 미적 감성을 반영한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귀족 사회의 남녀들의 놀이와 사랑을 주제로 한 갈랑뜨리(우아한 축제)를 화려한 색채로 그렸던 와또, 프라고나르, 부세 등의 로코코 거장들의 장식성 강한 작품들과는 다르게 서민과 중산층의 묵묵한 일상을 조용하고 소박하게 담은 샤르댕의 그림은 여타의 로코코 시기 작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샤르댕의 친구였던 드니 디드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상당수 작가들의 작품을 볼 때, 나는 다른 눈이라도 빌려서 써야 할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샤르댕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나는 태어날 때 가지게 된 눈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을 것처럼 느낀다."

즉, 역사화, 종교화와 같은 기존의 그림들은 묘사되는 대상을 매개로 하여 어떤 거대하고 영웅적인 서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면, 샤르댕의 그림은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사와 담담한 삶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

약 200여 점 정도의 작품만을 남긴 샤르댕은 아주 긴 시간동안 꼼꼼히 작업하던 탓인지 다작을 한 화가는 아니었다. 허나 그가 남긴 작품들에는 아카데미 회원으로 오십 여 년간 활동하며, 만 여든의 나이로 루브르 근처에서 세상을 떠난 화가가 그린 삶의 흔적이 온전히 담겨 있다. 샤르댕의 자화상에 대해 '안경 너머 흐린 눈은 많이 보고, 많이 웃고, 많이 사랑해 본 눈'이라고 한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처럼, 샤르댕은 화면을 구조적으로 단순화시키고 대상으로서의 사물과 정경 그 자체가 전하는 순수하고 단단한 진실을 담고자 애썼다.

〈비누 거품〉은 샤르댕이 서른 중반에 그린 작품으로, 갓 결혼하여 딸 마그리트-아그네스와 아들 장-피에르가 태어난 후였다. 겨우 걸음마를 떼며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아버지가 된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며 붓질을 하였을까? 어쩌면 이 그림 〈비누 거품〉 속의 인물들과 비누 거품은 실제 그림을 그릴 때의 모델과는 상관없이, 작가의 내면 세계에서는 그 자신과 아들의 초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들 장-피에르는 자라서 아버지에 이어 화가가 되었다. 그는 당시의 화가 지망생들이 동경하던 아카데미의 로마상을 획득하고 이탈리아 유학까지 떠났으나, 결국 베니스의 운하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샤르댕이 죽기 7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숙명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죽음과 삶의 허무를 엄숙하고 절제된 필치로 그려내던 화가의 아들은 베니스의 밝은 햇빛 아래에서 마치 그림 속 반짝이는 비누 거품처럼 사라졌다.

샤르댕의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삶은 이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단편적인 장면들과,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그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무거운 파국 사이의 팽팽한 긴장 위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부풀어 오른 반짝이는 비누 거품과 같다. 무거움과 가벼움, 지속과 소멸, 존재와 부재, 고통과 행복 사이에서 우리는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봄날의 꽃도, 나비도, 눈부신 햇살도, 바람도, 첫 사랑도, 반짝이던 어린 시절도 한 때의 꿈처럼 지나간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으며
이슬 또는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금강경 사구게 (金剛經四句偈) 중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는 없다. 오직 깨어 있는 순간만이 있을 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진다. 모든 것은 변하고 일순간이다. 샤르댕은 스쳐 지나고 매일 반복되기에, 하찮게 느껴지는 의미 없는 일상 가운데, 깨어있는 순간의 고요와 잔잔한 평화를 그렸다. 덧없는 일상을 엄격한 조형성과 독특한 시적 영상으로 탄탄하고 치밀하게 그려낸 샤르댕의 〈비누 거품〉은 우리를 고요한 성찰의 순간으로 이끈다.

〈미술학자〉

불기2563년(서기2019)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 함께할 종도를 모십니다 -

(사)대승불교조계종은 2005년에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창종하였으며 전국에 등록사찰이 있습니다.
종단의 운영방식이 기존 타 종단과는 달리 법인의 정관에 따르고 있습니다.
종무행정은 법인사무국에서 총괄하며 종단의 의결기관은 법인이사회와 종도총회입니다.
종단의 중대한 사안은 종도총회에서 의결합니다. 따라서 종도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 투명한 종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종단에 등록된 사유사찰에 대하여 재산권은 철저히 보장하며, 최선의 노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방의 뜻있는 승려와 전법사(삭발염의하지 않은 청신사, 청신녀)님의 입종을 바랍니다.

■ **승려, 전법사 입종서류** : 승적신청서(종단비치), 수행이력서, 서약서 등
■ **사찰등록서류** : 사찰등록신청서(종단비치), 승적신청서(종단비치)수행이력서, 서약서 등
■ **법인사무국 주소**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 **전화 : 055-832-8367 팩스 : 055-832-8368**

(사)대승불교조계종 이사장 현담 외 종도일동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사람은 여행 하고 여행은 사람을 만든다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⑧ 부처와 공자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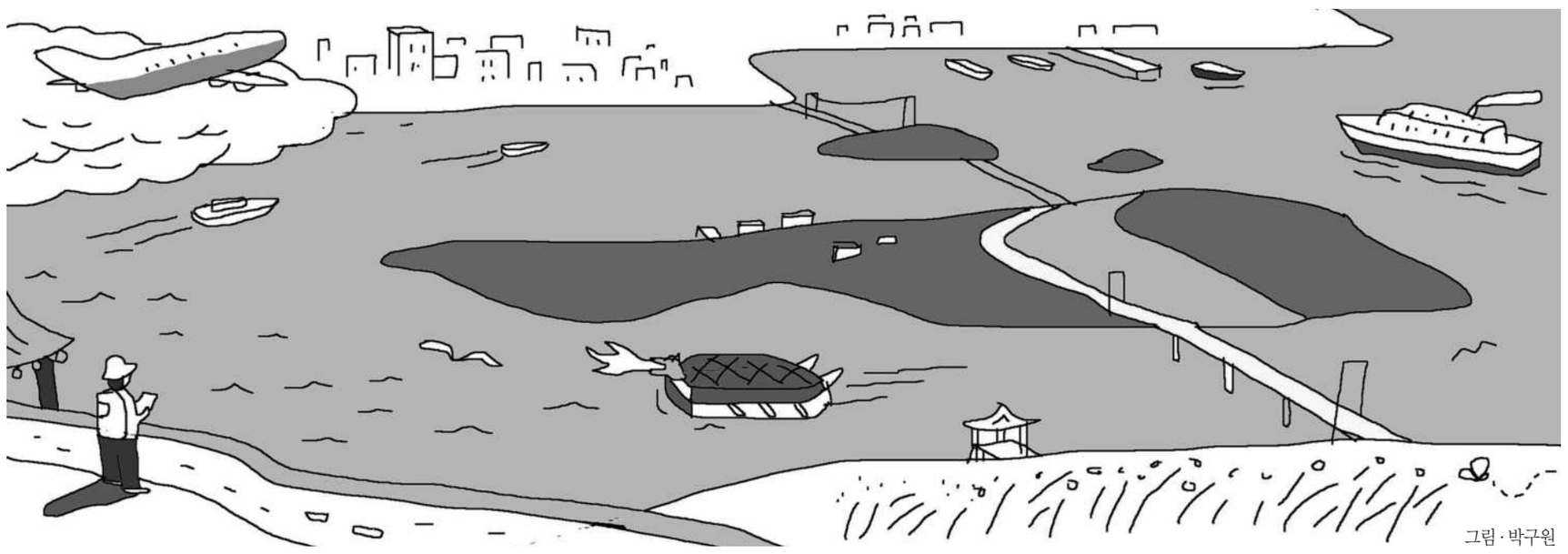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걸으며 세상을 보자

남해에 살다보니 도시에 살 때와는 생활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 아름다고 고즈넉한 남해의 자연풍광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고, 어디든 바다가 가까워 파도가 춤을 추는 넓은 해양을 우두커니 지켜보는 즐거움이 생겼다. 다만 교통 사정은 썩 불편하다. 도시와는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까운 진주시로 간다거나 옆 동네를 가려면 시외버스나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배차 간격이 꽤 성글다. 출근시간 무렵이면 15분 간격으로 진주행 버스가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3, 40분 정도 터울이 난다. 군내버스면 더욱 멀어진다.

이렇다 보니 버스시간을 꼼꼼히 따져 집을 나서는 부지런함도 생겼지만,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었다. 요즘은 이 동네도 미세먼지가 등쌀을 부려 속 편하게 걷지 못하긴 하지만, 설마 미세먼지가 흡연보다 나쁘랴 싶어 괘의치 않는다. 담배를 끊어야 미세먼지도 걱정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자잘한 번뇌를 날리고자 피는 담배인데 이 담배가 또 번뇌가 되니, 역시 인생은 고해(苦海)다.

그래도 건강도 챙기고 남해의 경치도 가까이서 맛볼 겸 짬이 나면 동네 주변을 걷는 일이 요즘은 잦아졌다. 동네를 휘 한 바퀴 돌면 한 20여 분이 지나가는데, 산과 들에는 꽃들이 한창이고-노란 유채꽃 행렬이 볼 만하다. 밭에는 수확을 코앞에 둔 마을이 파란 천을 깔아놓은 듯 바람에 나부낀다. 내가 사는 고현면에는 땅두릅이 특산물로 유명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하량이 상당했다.

시간이 괜찮으면 바닷가에 자리한 이순신순국공원까지 나가보기도 한다. 들길과 차길(4차선 도로가 개통되어 옛 도로는 산책길로 그만이다)을 천천히 3, 40분 걷노라면 공원 어귀에 닿게 된다. 작년에 개관한 순국공원은 조경도 아름답고 바로 바다에 닿아 있는데, 충무공의 나라사랑도 기리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이렇게 나는 남해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여행을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문화에는 '앉는 문화'와 '걷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별은 쉽게 말하면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로도 대응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다. 앉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문화와 걷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문화가 있다는 말이다. 또 반드시 문화와 문화 사이의 변별점으로만 이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같은 문화 내에도 각기 다른 과정을 거쳐 발달하는 유형이 있다는 뜻이다.

서면 다소 먼 시야가 확보될 뿐이지만, 걸으면 공간 자체가 바뀐다. 더구나 위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걷는 데는 제약이 없다. 사방팔방이 다 목적지가 되고,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풍경을 접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거두는 게 많다.

범속한 인간인 나도 걸으며 얻는 게 많은데, 하물며 인류의 스승인 부처님과 공자는 말할 나위가 없겠다. 두 분 모두 넓고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탓인지 꽤 긴 생애를 살면서 무던히도 걸어 다녔다. 인도는 아대륙(亞大陸)이라 불릴 만큼 광활하고, 중국 역시 드넓은 판도를 자랑한다. 더구나 2천 5백여 년 전에 살았으니, 걷지 않고 이동하기란 어려웠을 법도 하다.

걷고 또 걸으면서 두 분은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났고, 이런저런 견문도 쌓아나갔다. 폭우를 뚫고 걷기도 했고, 땡볕에 비지땀을 흘리며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다. 그런 풍찬노숙(風餐露宿)이 두 분의 삶과 생각을 기름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구도와 교화의 여행을 한 석가모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는 동안 얼마나 먼 거리를 걸으며 여행했을까? 직접 인도에 가서 성지 순례를 했다면 지식이 탄탄해졌을 텐데, 나는 아직 인도에 가 본 적이 없다. 누군가 인도에 가려면 돌아올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인도의 매력에 빠지면 도저히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게 두려워 인도 여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히 머무는 불상사(?)가 생긴다고 해도 꼭 가보고는 싶다.

부처님의 여행 경험을 담은 책을 찾다가 법륜스님이 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정토출판, 2010년판)가 눈에 띠었다. 부처님이 태어나 왕자로 산 카필라는 지금 네팔의 타라이(Tarai) 지방이라고 한다. 히말라야 산맥이 끝없이 이어진 산골짜기 왕국에서 유성출가(逾城出家) 전까지 지냈다. 출가하고 6년 뒤 긴 수행과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곳은 네이란자라 강가였다. 여기서 6주 동안 머물다가 바라나시로 가는데, 600리, 250km 떨어진 곳이었다.

이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행은 열반에 드시는 쿠시나가라까지 부단히 이어졌다. 29살에 출가해 깨달음을 얻은 35살부터 열반에 드시는 여든 살까지 45년은 세월로도 길지만, 무수히 많은 지역과 나라에 발자취를 남기면서 자신의 깨우침을 전하는 교화의 나날이었다.

초전법륜(初轉法輪)의 땅 사르나트와 영산회상(靈山會上)의 공간 라즈기르, 먼저 세상을 떠난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랐다가 석 달 동안 설법한 뒤 하강하셨다는 상카시아, 사위성(舍衛城)이 있던 쉬라바스티, 열반의 땅으로 가던 길목에 있는 바이샬리 등, 지금의 인도 북부 지역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행을 했던 공간이었다. 이렇게 유적이 있고 행적이 알려진 곳만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이사이 이름 모를 땅과 골목, 산과 강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 거리를 지금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줄잡아도 수천 킬로미터는 훌쩍 넘고도 남았을 것이다.

걸으면 생기는 '견문'
'지혜' 형성의 근간 되다
구도 · 제도 위한 여행 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길고도 긴 시간 동안 멀고도 먼 거리를 여행을 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깨달음의 법열(法悅)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여행을 외면할 수 없었다. 번뇌에 찌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연을 들어 적절한 진리를 설해 풀어주셨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자비의 손길로 치유의 문을 여셨을 것이다. 또 깨달은 진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정진(精進)의 벼리도 가다듬었을 것이다.

석가모니의 위대함은 깨달음 자체에 만족해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찾아진다. 깨달음의 실체를 이론과 실천으로 단단하게 완성하는 노력에도 게으르지 않으셨다. 병의 증세를 보고 다양한 처방을 하는 명의(名醫)처럼 수많은 중생의 모래알보다 많은 번뇌를 씻어내는 데는 깨달음의 고갱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못 배운 사람과 똑똑한 사람, 권력을 쥔 사람과 부림을 당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며 욕심 많은 인간 등 사람의 인성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 다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설법과 비유로 깨닫게 하려면 수많은 인격의 내면을 이해해야 했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책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셨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결국 그 길고 긴 여행에서 왔다고 믿는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더욱 구체화되었고, 뼈와 살, 피가 흐르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구도와 교화의 여행길이 석가모니를 오늘날까지 위대한 스승으로 사람들이 숭앙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짊을 가르치고 권력을 얻는 여행을 한 공자

공자 역시 여행의 거리라면 누구 못지않았다. 공자는 춘추시대 노(魯)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의 산동성 곡부(曲阜) 인근이다. 젊어 고생을 많이 한 공자는 15살에 처음 학문에 뜻을 두어 30살에 나름의 경지에 올랐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19살 쯤 처음으로 말단 관리가 되고, 학문과 지식을 넓히는 한편 하급 관료를 전전하면서 입지를 다지게 된다.

공자가 첫 여행을 시작한 것은 35살 되던 기원전 517년 경인 듯하다. 노나라에 내분이 일자 이웃 제(齊)나라로 갔다. 제경공을 만나 정치에 대해 토론했고, 순임금의 음악인 소악(韶樂)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해 뒤 귀국했고, 노나라에서 횡행했던 가신(家臣) 집단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조언도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고자 모색했다.

공자는 기본적으로 정치이론가였고, 이론이 실현되려면 고위 관료가 되어야 했다. 잘 나가는 가문 출신이 아니었던 공자는 어쨌거나 자신을 밀어줄 후원자가 필요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공자의 인정(仁政)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그렇게 듣기 좋은 듣고 싶어 하는 노래가 아니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공자는 55살이라는 늙은 나이에 제자들을 데리고 철환천하(轍環天下)의 길에 나섰다. 자신의 정치철학을 받아들이고 권력을 쥐어줄 군주를 찾아 대책 없는 여행길에 올랐던 것이다.

공자가 이 기간 동안 지났거나 찾은 나라는 위(衛)나라를 비롯해 진(晋)나라, 조(趙)나라, 송(宋)나라, 정(鄭)나라, 진(陳)나라, 채(蔡)나라 섭(葉) 지역 등이었다고 기록에는 전해진다. 이들 나라를 번갈아 오가면서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권력을 주어 정치를 맡기지 않았고, 오히려 시련과 불운만 잇달았다. 그렇게 선각자의 길은 괴롭고 힘든 법이다. 끝내 공자는 권력을 쥐고자 했던 뜻을 포기하고 만다.

여행을 떠난 지 14년이 지난 기원전 484년, 68살의 노쇠한 나이로 공자는 귀국길에 올랐다. 이후 공자는 후학을 통해 자신의 뜻이 미래에는 이뤄질 것을 기약하면서 학문을 정리하고 교육하는 일로 말년을 보낸다. 그 사이 많은 제자들이 관직으로 나갔고, 그중에는 꽤 높은 관직과 권한을 쥔 사람도 배출되었다. 애제자 자로(子路)의 처참한 죽음을 목도한 공자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기원전 479년, 7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공자의 여행은 득의의 나날이라기보다 좌절과 수모, 위기가 연속된 환란의 길이었다. 그러나 공자는 시련에 주저앉지 않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지와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정립했다. 공자가 조국에서 편안하게 관리로 일생을 살았다면 지금의 공자 철학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행이란 사람을 담금질하고 생각을 붙들어 매는 의미 있는 경험이다. 인생길이 여행길이란 통속적인 경구도 있듯이 앉을 때와 걸을 때를 가리는 지혜가 우리 삶에서 참으로 소중하다. 앉아서는 명상을 하고 걸으면서 사색을 하자고 다짐해 본다. 〈소설가〉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

깨달음엔 출재가 없다… 재가불자 '롤모델'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⑧ 방거사와 황삼랑거사 : 마조의 제자들 (1)



하남성 남소 단하사 조사전에 있는 단하 천연 선사의 조사상. 옆에 방거사도 모셔져 있다. '단화소불' 로 유명한 단하 천연과 방거사는 함께 과거를 보러 가던 중 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발심하게 된다. 출가한 단하 천연은 조동종 계열의 선사가 됐고, 방거사는 재가자로서 수행을 했지만 훗날 '중국의 유마거사'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부처님 재세 당시, 우바리 · 니티 등 천민 출신 비구가 아라한이 되었고, 수많은 여인들도 정각을 이루었다. 곧 깨달음 앞에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고, 출 · 재가자의 구별이 없다. 이 점을 크게 발전시킨 이들이 대승불교를 일으킨 보살들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십생 동안 보살로서 수행(因)을 통해 부처가 되었듯이(果) 대승불교 보살들도 누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중국에서는 불교가 유입된 이래 재가자의 신행활동이 일반화되었으며, 역대로 깨달은 이들이 많이 있다. 또한 근현대 중국에서 불교가 나락에 떨어진 즈음 불학을 일으킨 이들이 재가자들이다. 당나라 때, 두 재가자인 방거사와 황삼랑을 만나보자.

황삼랑(黃三郞) 거사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는 〈마조어록〉과 〈조당집〉에 전한다. 황삼랑은 서천(西川)에 살았는데, 두 아들을 모두 마조(709~788)에게 출가시켰다. 거사는 출가한 아들들이 사찰에서 잘 적응하는지 걱정되어 두 아들을 찾아갔다. 거사는 두 아들이 별 탈 없이 수행을 잘 하고 있어 안심되었다. 거사가 아들 스님들에게 말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완성해주는 이는 벗이라고 했습니다. 두 스님은 나의 자식이지만, 출가자가 되었으니 나의 도반이 되어 이 늙은이를 잘 지도해 주십시오."

자식을 출가시키고, 본인도 수행코자 두 아들을 도반으로 보는 황삼랑의 기개가 뛰어나다. 두 스님은 자신들은 아버지를 제도할 능력이 못된다며, 아버지를 마조에게 인도하였다. 마조가 먼저 황삼랑에게 물었다.

"서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는 서천에 있는가? 홍주(현 강서성 남창)에 있는가?"

"가정에는 두 가장이 없고, 나라에는 두 왕이 없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몇입니까?"

"85세입니다"

"비록 그렇게 계산하지만 무슨 나이인가?"

"만일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일생을 헛되이 보낼 뻔 했습니다. 스님을 뵈온 뒤에는 칼로 허공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마조는 거사에게 육신이 어디 있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다. '지금 마주 서 있는 그 본체가 무엇인가' 를 묻고 있다. 이어서 마조가 육신의 나이를 물었는데, 이 또한 육신의 나이를 물은 것이 아니다. '지금 자신의 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본래면목이 무엇이냐' 고 묻는 것이다. 이렇게 근기가 뛰어난 거사였기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루었고, 죽을 때까지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당시 유명한 강사였던 양좌주를 마조에게 소개시켜 사교입선(捨敎入禪)토록 만들었다. 다음은 〈조당집〉에 전하는 이야기인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

황삼랑이 마조선사에게 말했다.

"제가 스님을 뵙지 못했더라면 일생을 어영부영 살다갈 뻔 했습니다. 이렇게 늘그막이라도 스님을 뵙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마치 칼로 허공을 베어버린 기분입니다."

마조가 말했다. "거사님, 어디에서든 늘 진실 그대로입니다(隨處任眞).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참됨입니다. 모두가 자가의 본체입니다(立處卽眞 盡是自家體)."

진실과 관계없는 우리만의 존재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그대로가 바로 진실(立處卽眞)이기 때문이다.

마조는 때에 따라서 어디에서든 늘 진실 그대로(隨處任眞)라고 하였고, 또 현실 있는 그대로가 참됨(卽事而眞)이라고 설하였다. 여기서 선사의 긍정적인 현실중시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조사선을 완성시킨 임제(臨濟, ?~866)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隨處作住 立處皆眞)' 고 하였다. 즉 자신의 존재가치를 결정해 가면서 현실 그대로에 적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느끼는 참된 자각이 바로 자유인 것이다.

다음은 선불장(選佛場)으로 유명한 거사를 만나보자. 방온(龐蘊, ?~808)은 성을 그대로 따서 '방거사' 라고 한다. 방거사는 호북성 양양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어느 해 단하 천연(丹霞 天然, 739~824)과 과거시험을 보러가는 길녘에 한 스님을 만났다. 잠시 길가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 스님이 이들에게 물었다.

마조 제자인 황삼랑과 방거사
재가자이면서 正覺 성취 이뤄

방거사 가족 모두 수행 생활
열반 설화 유명, 예술 소재로
재가자 · 사대부들의 동경 대상

"지금 두 분은 어디 가는 길입니까?"

"우리들은 과거시험 보러 갑니다."

"세속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관리로 선택되는 것보다 수행해서 부처에게 선택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처에게 선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조라는 유명한 선지식이 있는데, 그 선사를 한번 만나 뵙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천연과 방거사는 과거시험을 단념하고, 마조 선사를 찾아갔다. '선불장' 이라는 단어는 방거사와 관련되어 시작되었고, 한국이나 중국 사찰의 선방 편액으로 많이 걸려 있다. 훗날 방거사가 선불장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다.

시방(十方)의 무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제각기 무위(無爲)의 진리를 배우나니,
여기는 바로 부처를 뽑는 곳, 마음의 공(空)을 깨닫고 급제하여 돌아간다.

이후 방거사는 재가자로 수행하였고, 천연은 출가 승려가 되어 조동종 계열의 선사가 되었다. 이 천연과 관련된 공안이 '단하소불(丹霞燒佛)' 인데, 목불을 태워 방을 따뜻하게 하였다는 그 선사이다. 다음은 방거사의 유명한 시 구절을 보자.

내 일상생활에 특별한 일이 따로 없고 내 스스로 차별 없이 즐긴다.
취하고 버릴 것이 따로 없으며 너무 법석 떨 것도 치워 버릴 것도 없다.
누가 주사(朱紫)라고 불렀는가? 산과 언덕엔 티끌하나 없는데
신통과 묘용은 물 긷고 땔나무 줍는 일이로다.

앞의 선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실천하는 대표 시 구절로 유명하다. '주사(朱紫)' 라는 말은 붉은 색의 관복을 입은 고관대작을 상징한다. 방거사는 세속에서 얻은 명예인 관복 입은 관리보다는 최상의 진리인 진여(眞如)이니 실상(實相)이라는 것조차 마음 두지 않는 경지를 추구함을 시사한다. '신통과 묘용은 물을 나르고 섶을 나른다' 는 표현은 중국 초기 선의 신비한 신통사상이 극복되어 일상성의 종교로 변화된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시 구절이다.

방거사는 수행자로서 출가도 하지 않고 제자도 없었으나 '중국의 유마거사' 라고 칭한다. 그는 지식인이요, 수행자로서 선사들과 날카로운 법거량을 하였고, 공부가 부족한 승려들에게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방거사는 당시 선종의 거장인 석두(700~790)선사를 뵙고 선지(禪旨)를 얻은 뒤, 마조를 친견하여 2년 동안 정진하였다. 방거사가 마조를 친견했을 때, 방거사가 마조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그때를 기다려 말해주리라."

이 이야기는 '마조서강' 이라는 유명한 공안이다. 방거사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다. 참선을 시작한 후 재산을 모두 배에 실어서 동정(洞庭)의 상강(湘江)에 침몰시키고, 호북성 양양 교외의 작은 집에서 대나무 소쿠리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어른들께서 수행자는 춥고 배고파야 공부한다고 하듯이 재가 수행자의 삶도 가난해야 수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여튼 방거사의 삶은 무소유와 무집착의 실천이었다. 이러한 방거사의 소식을 알려주는 게송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오랫동안 산에 살아 일찍이 이미 성안을 벗어나 있다.
집이라고는 초가 삼칸 뿐이니, 한 칸이라야 두 길 정도가 될까?
방대(아들)에게 물려 줄 것도 없다. 공공(空空)하여 앉을 곳조차 없다.
집안은 공공공, 공공하여 재물이 있을 리 없다.
해가 뜨면 공 속을 걷고, 해가 지면 공 속에 눕는다.
하염없이 앉아 공하게 시(詩)를 읊으니, 시가 공하여 그 화답 또한 공하다.

방거사가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긴 재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진리(空)' 였다. 방거사가 입멸할 무렵, 딸 영조에게 "해 그늘을 보아서 정오가 되거든 말해 달라"고 하였다. 잠시 후 영조는 "아버지, 일식이어요. 조금 나와 보세요" 라고 하자, 방거사가 잠깐 나온 사이 딸 영조가 평상에 올라가 열반에 들었다. 방거사는 "내 딸이 솜씨가 빠르구나!"라는 말을 남겼다.

일주일 뒤, 그 마을 태수인 우적공이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은 공무(空無)한 것이니 한갓 그림자나 산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오. 몸 건강히 지내시오"하고 그의 무릎에 기대어 입멸하였다. 우적공이 그의 아내와 아들(방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 선(立) 채로 입멸하였다. 방거사 부인은 아들을 다비한 뒤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는 일화가 전할 뿐이다.

방거사 가족이 모두 깨달음을 이룬 이상적인 가족으로, 그림 · 창극 등 주된 소재거리가 되고 있다. 방거사는 중국사에서 사대부들이나 재가불자들의 롤 모델이며,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유학자와 문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 인사말씀 |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스승이신 제22, 23대 총무원장 운산당대행대종사의 종단장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조촐하면서도 원만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종정예하를 비롯해서 승정, 원로회의, 총무원, 중앙종회, 호법원의 어른 스님들과 소임스님들 그리고 교구의 어른 스님들과 소임스님들, 교임전법사님들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조문 와주신 여러 어른스님과 교계와 사계의 어른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황망하게 닥친 큰일을 어려운 가운데도 큰 무리 없이 봉행하고 전통 다비해 사리 1과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9재를 주석하시던 서울 천중사에서 5월 20일(월) 오전 10시에 봉행하게 됨을 어른스님들과 교임전법사님들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불기2563년 4월 15일

운산당 대행대종사 수법제자 일동
분향 구배 드립니다.

새로운 방생 명소
해룡일출大관음사
해변 힐링 마을
(한국불교대학 해변절)

❶ 워크샵, 명상힐링캠프 가능한 최신식 시설
❷ 공양, 커피, 음료수(카페테리아), 불교용품점, 서점
❸ 산중절인 무일선원과 연계가능.
❹ 방생의 최적지 - 감포몽돌해변
❺ 갤러리, 법회장소 등 활용가능
❻ 10대 제자사리, 석경, 대형고려16나한 고구려불, 건칠불 봉안
❼ 템플스테이 - 개인 및 단체이용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해룡일출大관음사 (한국불교대학 해변절)
경북 경주시 동해안로 1740 T. 054-745-9229



※ B.U.D 山海세계명상센터의 해변절로서 여러시설을 갖추고있음.

이연 공고

■ 법명 : 원걸, 원여

상기인과 본인의 사제 인연이 다하여 이에 이연(離緣)을 공고합니다.

불기2563(2019)년 4월 23일

제14교구 범어사 흥 교 합장

모래로 밥을 짓는다?



新 불교사자성어

⑯ 증사작반(蒸沙作飯)

'증사작반(蒸沙作飯)' 이란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든다' 는 뜻이다. 쌀이나 곡식을 쪄서 밥을 만드는 것(蒸米作飯)이 아니고, 모래를 쪄서,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일, 불가능한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뜻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의 '사상누각(沙上樓閣)', 공중에 떠있는 누각이라는 뜻의 '공중누각(空中樓閣)'과 같은 말이다.

'증사작반(蒸沙作飯)' 은 신라 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에 나오는 말이다. '발심수행장' 은 문장이 감동적이어서 발심하여 공부를 하게 하는 글이다. 앞뒤로 보충어가 몇 마디 더 있다.

"부지런히 수행을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서쪽으로 간다.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쌀로 밥을 짓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한다. 누구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줄은 알면서도 불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르는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가능한 일, 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되지도 않을 일, 말도 안 되는 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한다. 무지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이다.

옛말에 '고집불통(固執不通) 패가망신' 하고, '울뚝배기(화를 잘 내는 사람) 살인 친다' 는 말이 있다. 대체로 고집이 센 사람들은 쓸데없이 자존심이 강하다. 그래서 한 번 주장한 것은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절대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야 자신의 주장을 겨우 바꾸는데, 이미 때가 너무 늦어서 결국엔 쪽박을 찬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 망하는 것은 대부분 오너의 옹고집, 자존심을 앞세운 쓸데없는 주장 때문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다. '최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는다. '불원장래', 곧 자신의 판단이 맞을 것으로 착각한다. 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잘 못 되었음을 알아차리고 타인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초한지〉에서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여 그 유명한 '사면초가' 라는 고사성어를 낳은 것은 항우의 무지와 고집 때문이었다. 반면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한고조가 된 것은 남의 의견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이다. 지혜도 없으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 하늘이 버린 사람', '신(神)이 버린 사람' 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원효 스님의 말씀과 같이 모래로 밥을 지으려고 한다.

무지(無智), 어리석음은 불교에서 가장 적대시하는 탐진치(貪瞋痴) 삼독 가운데 하나이다. 삼독(三毒)은 깨달음을 방해하고 해탈과 열반을 가로막는다.

그런데 탐욕을 부리는 것도 어리석기 때문이고, 분노, 짜증, 증오, 그리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것도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리석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보면 된다.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지혜로 나아가는 방법은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해야 한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지능이 좋아도 잔꾀를 부린다. 잔꾀는 순간적으로 짜릿한 쾌감을 주지만 두세 번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

지혜는 선(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은 물론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잘못된 지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를 어둡게 한다.

지혜 가운데는 부처님의 지혜가 최상의 지혜이다. 그것을 '불지견(佛知見)' 이라고 한다. 불교의 지혜, 불지견은 미혹을 끊고 진정한 삶의 길인 깨달음을 얻게 한다.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 영원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애착이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불지견이다.

우리는 대부분 집착, 애착이 강하다. 남녀 간 사랑의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애착, 명예나 출세, 오래 살려고 하는 애착 등인데, 이런 것을 두고 어리석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증사작반을 한 셈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대덕은 어디서 와서 대아만을 내나?"



격절록 강설

⑯ 제 5칙 영가요석(永嘉遶錫) 1

[古則과 着語]

擧, 永嘉大師 到六祖 遶禪牀三匝 振錫一下 卓然而立 (魚行水濁) 祖云 "夫沙門具三千威儀 八萬細行 (大方之家 善收善放) 大德從何方而來 生大我慢" (便不屈人)

영가대사(永嘉大師, 665~713)가 6조(六祖)에 이르러 선상을 세 번 돌고 석장을 한 번 떨치고는, 우뚝 섰다. [물고기가 가니 물이 탁해진다.]

6조가 말했다.

"무릇 사문이라면 삼천 가지 위의와 팔만 가지의 세행을 갖춰야 하는데 [대선지식이라서 잘 거두기도 하고 잘 놓아주기도 한다.]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대아만을 내는가?"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다.]

[拈古와 着語]

雪竇便喝 乃云 "當時若下得這一喝 免得龍頭蛇尾" (賊過後張弓) 又再擧 遶禪牀三匝 振錫一下 卓然而立 (鳥飛毛落) 代六祖云 "未到曹溪 與你三十棒了也" (也是無風起浪)

설두가 바로 "할(喝)!"하고, 말했다.

"당시에 만약 일 할(一喝)을 했더라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면했을 것이다." [적이 지나간 뒤에 활시위를 매는군.]

또 다시 선상을 세 번 돌고 석장을 한 번 떨치고는 우뚝 선 것을 거론하고는 [새가 날자 깃이 떨어지는구나!]

6조를 대신해서 말했다.

"조계에 이르기 전에 그대에게 30방을 쳤다." [역시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나는 격이다.]

[評唱 1]

永嘉大師 本是講維摩經座主 因講維摩經 自悟說得話驚人. 因六祖會中 策禪師游三吳 預座 隨喜 見他講得 不同尋常座主見解. 因講散 遂詰其心地 所發之言 並同諸祖. 策曰 "仁者悟心 師是誰耶 受誰印可" 覺曰 "我聽方等維摩經論 並無師承 於維摩經 悟佛心宗 無人證據" 策曰 "仁者 威音王已前則得 威音王已後 無師自悟 盡是天然外道" 覺曰 "願仁者為我印證" 策曰 "我乃言輕 有第六祖師在曹溪 四方雲集 並是受法之人" 覺率策同至曹溪印可.

영가대사는 본래 〈유마경〉을 강의하던 좌주였는데, 〈유마경〉을 강의하다가 스스로 깨닫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다. 6조 회상의 현책(무주현책) 선사가 삼오(三吳)를 돌아다니려고 기쁜 마음으로 좌주자리를 맡겼는데, 영가가 강의하는 것이 보통 좌주들의 견해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강의가 끝나자 그 심지(心地, 공부의 경지)를 캐물었는데, 내놓는 말들이 여러 조사들과 모두 같았다. 현책이 말했다.

"스님은 마음을 깨달았는데,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인가를 받았습니까?

현각이 말했다.

"나는 스스로 방등과 유마의 경론을 밝혔지, 결코 스승에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유마경〉에서 불심종(佛心宗,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종지)을 깨달은 것인데, 증거 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스님은 위음왕 이전에 얻은 것입니다. 위음왕 이후에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것(無師自悟)이라면 모두 천연외도(天然外道)일 뿐입니다."

현각이 말했다.

"원컨대, 스님께서 저를 위해 인증(증명)해주십시오."

현책이 말했다.

"저는 미천해서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제육조사(第六祖師, 혜능)가 조계에 계시는데 사방에서 구름같이 모여 드니 모두 불법을 받으려는 사람들(受法之人)입니다."

현각이 현책을 따라 함께 조계에 인가받기 위해 이르렀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⑯ 믿음 편 16

행원(行願)의 화신 보현보살

"이보게,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네."

당나라의 조과도림(鳥窠道林, 741~824) 선사가 당시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인 백낙천(白樂天, 772~846)의 온몸을 떨게 만든 한마디다. 학문과 식견이 뛰어나 젊은 나이에 항주(杭州)의 자사가 된 백낙천은 당대의 고승으로 알려진 조과 선사를 찾아가 가슴에 새길만한 법문을 들려달라고 청했다. 선사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자 백낙천은 선사를 향해 "그거야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위에 인용한 말은 백낙천의 질문에 대한 선사의 답이다.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일화다.

불교에서 실천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은 보현보살(普賢菩薩)이다. 대웅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이다. 석가모니 붓다의 왼쪽에 문수보살이 있다면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이 있다. 문수와 보현은 여러 면에서 짝을 이루고 있다. 문수가 깨달음의 지성적 측면, 즉 지혜를 상징한다면 보현은 이를 실천하는 행(行)을 상징한다. 지혜를 나타내는 청색의 사자와 실천의 상징 흰색 코끼리도 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사찰에서 코끼리를 타고 있는 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보현보살이다.

법회의식에서 자주 불리는 찬불가 중에 '보현행원' 이 있다. 보현보살의 행원(行願)이 담긴 노래다.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을 끝없이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끝을 맺는다.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 원이기에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일까?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화엄경〉의 결론이라고 일컬을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엄경〉에서 선재동자(善財童子)는 53명의 선지식 가운데 문수보살을 맨 처음 만나 법을 구하고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 지혜를 완성한다. 문수에게서 얻은 지혜를 보현의 실천을 통해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보현행원품〉이 〈화엄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은 ①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禮敬諸佛), ②여래를 우러러 찬탄하며(稱讚如來), ③널리 공양하고(廣修供養), ④업장을 참회하며(懺悔業障), ⑤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고(隨喜功德), ⑥설법해 주기를 청하며(請轉法輪), ⑦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고(請佛住世), ⑧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常隨佛學), ⑨항상 중생들을 수순하고(恒順衆生), ⑩널리 모두 회향하는 것(普皆廻向)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본래 지혜가 충만한 부처님이라는 것을 깊이 믿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를 부처님처럼 대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지혜와 실천은 불교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다.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보현보살에 대한 신앙 역시 문수신앙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유행하지 않았다. 기복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불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보현신앙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현행원품〉에서는 일체중생을 뿌리에, 불보살(佛菩薩)을 꽃과 열매에 비유하고 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로 뿌리를 적셔야 한다. 그 물이 바로 자비라는 이름의 감로수다. 자비의 물이 중생이라는 뿌리에 닿지 않으면 정각(正覺)의 꽃과 열매는 불가능하다. 이 경전이 매력적인 이유도 최상의 깨달음은 자비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다. 보현행원이 바로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새 는 지 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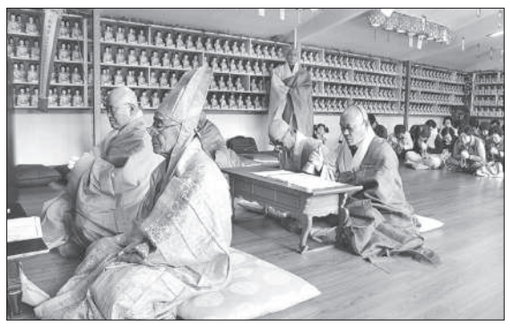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마이크 대금은 1년 써보고
아래의 내용과 추호도 다름없을 시 지불

1. 이태리 최고급명품마이크 직수입 한정판매, 시중에 있을시 일천만원 포상
2. 마이크와 50㎝ 떨어져야 수천만대의 시설소리로 업그레이드
3. 비싼시설 말고 마이크 하나만 바꾸어 수 만번의 염불소리를 신명나게 사세요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천불 점안, 자비심 이어지길”

원효종 정읍 미타사, 천불 점안법회

대한불교원효종 전북교구종무원 정읍 미타사(주지 경오)는 4월 21일 천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유진섭 정읍시장, 조상중 정읍시의원,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정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미타사에 1000분의 부처님이 나투신 것을 축하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미타사 주지 경오 스님은 “불상은 대자대비한 부처님을 형상화한 것으로 불자들이 수행에 대한 원력을 잃지 말자는 뜻을 담고 있다”며 “이번 점안을 계기로 내 안에 부처의 눈을 뜨게 하고, 보살의 자비심을 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 미타사는 대한불교원효종 전북교구사찰로 신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정읍지역 불자들의 신행활동과 전법활동을 위한 중심도량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르신 공경’ 동화사 잔치마당

4월 21일 대구 동구 공산초 대강당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팔공총림 동화사와 부설 동화복지재단이 4월 21일 동구 공산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북촌경로잔치를 열었다. 잔치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총무국장 벽와 스님, 사회국장 혜천 스님 등 동화사 스님과 박재규 대한노인회 대구동부지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동화사 일대 북촌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을 일찍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어르신들이 천수를 누리시고 항상 즐겁고 당당한 여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공경의 뜻을 전하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동화사 사물놀이 풍물단이 흥겨운 가락을 선사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으며, 동화사는 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동종 발전 위해 승려 교육 강화”

Interview

조동종 11대 총무원장 덕우 스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승려연수 · 행자교육원 불사
중국서 창종 30년 세미나도
재임 중 복지법인 건립 목표

“조동종 같은 군소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행과 전법, 교육 등이 함께 맞물려 진작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종단을 대표하는 교육연수 시설이 없어 효율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0대 총무원장 재임 시부터 이를 안타깝게 여겨 ‘교육시설 불사’를 최우선 공약 사항으로 천명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종단 차원에서 승려연수원과 행자교육원 불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동종 제11대 총무원장으로 재임한 덕우 스님은 4월 20일 서울 상계동 총무원에서 앞으로의 종단 운영 방안을 이같이 피력했다. 덕우 스님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말을 이었다.

“포천 신북면에 매입한 2천여 평 부지에 조동종 총림과 승려연수 교육원(400평) 불사를 올 10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총 2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원은 종단 스님들에게는 종풍인 묵조선 수행을 하는 기본 선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반인을 위해 참선 명상 수련원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우 스님은 경남 밀양의 3천평 부지에 행자교육원도 건립하겠다고 밝힌 뒤 “행자 교육뿐만 아니라 습의 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승려연수 교육원과 행자교육원이 3년에 걸쳐 완공되면, 포천은 충청 이북, 밀양은 충청 이남을 책임지는 조동종 포교 전진 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우 스님은 올해 창종 30년을 맞아, 7월경 중국서 조동종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님은 “그동안 조동종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고 학술적으로 종단 발자취를 집대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늘 아쉬웠다”며 “조동종 관련 사찰들을 답사 연구하고 중국 현지서 세미나를 열어 결과물들을 모아 30년사를 발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덕우 스님은 11대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은 과제로 복지법인 설립과 종헌종법 개정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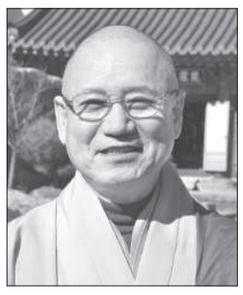
“저희 종단이 그동안 복지 부문을 등한시했습니다. 앞으로 대사회적인 나눔과 복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나 법인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현시대에 맞게 종헌 종법도 개정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모든 종도들이 종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전문 연구원들과 현행 종령집을 검토하면서 논의 중입니다.”

덕우 스님은 1969년 불이성 법륜사에서 보계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75년 덕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동종 교육원장, 감찰원장 등의 소임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총무원장으로 조동종을 이끌어 왔다. 임기는 4월부터 총 4년간이다.

한편 조동종은 1989년 5월 서울 평창동 청련사에서 2대 종정 지명 스님을 비롯한 30여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650여개 말사에 총 1300명의 승려가 등록돼 있다.

“재소자 사회복귀 佛法 도움되길”

제37회 교정대상 수상하는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



“재소자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수상의 영광을 함께 교정활동하는 다른 스님과 불자님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재소자들의 수용생활과 사회복귀에 부처님 가르침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와 KBS, 서울신문사 등이 주최하는 제37회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자로 선정된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사진>은 4월 24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수상의 영광을 또 다른 봉사자들에게 돌리며 이 같이 소감을 밝혔다.

고담 스님은 2003년부터 경북북부제2교도소 불교법회를 시작하며 교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재소자들을 위해 각종 음식을 후원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학문보다는 생활법문 형식으로 전하며 전법활동을 펼쳤다. 또한 명절에 특식을 지원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재소자들의 그리움을 달래는 한편, 혹서기와 동절기에는 각각 생수와 생닭을 챙기기도 했다.

햇수로 17년째, 오랜 시간 재소자들을 위해 활동한 고담 스님에게 기억에 남는 일화를 물어봤다.

“4~5년 전쯤 교도소에 공인중개사반이 생겼어요. 재소자들도 사회로 돌아가 생활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번듯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교재도 지원하고 격려금과 간식을 챙겼어요. 근데 재소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 자격증을 못 땄어요. 재소자들도, 저도 함께 노력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게 자꾸만 기억에 남습니다.”

이 같은 고담 스님의 공익활동은 단순히 교정활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비롯해 고시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도 꾸준히 펼쳤다. 무엇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찰에서 숙식을 지원하며 인재양성에도 힘을 보탰다. 고담 스님은 수많은 나눔이 신도들의 십시일반 보시 덕분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제 능력만으로는 전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함께 자비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신도님들이 계시기에 이어올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 상을 받을 뿐입니다. 값진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윤호섭 기자

남양주 불암사 효 잔치

4월 23일 경내서… 어르신 1000명 모셔



남양주 불암사(회주 일면)는 4월 23일 경내에서 지역 어르신 1000명을 모시고 효 잔치를 개최했다. 효 잔치는 인기 트로트 가수 장미화 씨의 흥겨운 무대와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공연 등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공연으로 꾸며졌다. 회주 일면 스님은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했다”며 “건강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로터스관 건립 응원”

동국대생협, 동국대에 3000만원 기부



동국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상겸)이 동국대 랜드마크로 세워질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상겸 생협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4월 23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동국대 생협은 학내 식당, 매점, 카페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 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전북 불교계 어린이 큰잔치

4월 20일, 어린이 가족 1000여명 동참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성우 · 진성)가 4월 20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했다. 어린이 큰잔치는 전북봉축위가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인 사고력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 준비했다.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영유아와 청소년,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라이프 가든(베이비 박스)

후원문의 051)664-7300 | happiness2121@hanmail.net

영·유아 유기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영·유아 생명권 보호

1. 영·유아 유기 예방 시스템
2. 영·유아 생명권 보호: 라이프 가든
3. 영·유아 유기 관련 연구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홍법사, 동의대학교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제자 품 돌아온 '우여곡절' 고찰

대만 빠이윈선사, 수차례 매각 · 경매 홍역

박영빈 객원기자

공사비 문제로 매각, 한때는 중국공산당의 교육시설로 전락했던 고찰이 다시 불자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4월 17일 대만의 '타이쓰 신문' '야후 타이완' 등의 현지 매체가 대서특필했다.

대만 중부의 장화현(彰化縣) 얼수이(二水)지역에 소재한 빠이윈선사(碧雲禪寺)는 일본점령기인 1922년 지역주민들의 보시로 세워졌다. 지리적으로 장화와 난터우(南投)현의 중간에 위치해 지역 신앙의 중심으로 사랑받아왔다. 또 장화현의 역사건축으로 등록된 고찰로서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해왔다.

10년 전 사찰의 증축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자 웨이밍런 씨는 공사비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문제로 사찰을 법원에 기소, 법원은 웨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찰 측은 계약서에 추가금이 명시되지 않았고, 어음이 위조됐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012년 웨이 씨는 법원의 명령을 구실로 스님들을 모두 내쫓고, 절에 모셔진 불상과 경전, 불구들을 모두 철거했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흡수돼야 한다는 중국통일파였던 그는 사찰에 중국 공산당 상징물이나 선전포스터를 설치, 법당에 마오쩌둥의 초상화와 오성홍기를 게양했다. 사찰의 이름도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성 사회주의 민족사상 애국교육기지'라는 이름으로 개칭해 중국통일파의 거점지로 활용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이러한 상황이 외신들을 중심으로 알려지자 장화현의 웨이밍구 현장은 "웨이밍런 씨의 행동은 대만의 존엄과 지역주민의 감정을 해치는

10년 전 불사 비용 문제로
공사업자에게 사찰 넘어가
中통일파 거점기지 활용되다
최근 스님들 다시 매입나서

일로 강하게 비난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불교색을 지운다는 이유로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을 훼손한 것이 확인됐기에 자진해서 복원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를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웨이밍런 씨는 "얼수이 기지(빠이윈선사)가 무너져도 통일파는 반드시 재기할 것"이라며 "현정부의 강제집행은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비겁한 수단으로, 오히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맞섰다.


당국에 의해 강제 철거되고 있는 빠이윈선사의 모습. 사진출처=야후 타이완 뉴스

결국 같은 달 26일 장화현 정부는 철거작업을 개시했다. 현 측은 사찰의 기단 부분만을 문화재로 인정, 기단위에 세워진 건축물 전체를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철거했다. 결국 기존의 사찰 건물이 모두 철거됐다.

정부는 토지와 사찰의 명의자였던 웨이밍런 씨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청구했으나 이에 불응, 법원은 명의자의 은행계좌와 채권들을 압류하고 사찰을 포함한 5건의 부동산을 경매에 올렸다.

지난 16일 열린 법원경매에서 최처 낙찰가 1600만 대만달러(한화 약 5억9000만원)로 시작된 빠이윈선사는 1612만 대만달러(한화 약 5억9500만원)에 낙찰됐다. 경매에 입찰한 이는 단 한 명으로 빠이윈선사의 주지인 화이종 스님이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빠이윈 선사의 파밍 스님은 "낙찰은 받았지만 필요한 재원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낙찰보증금으로 지불해야하는 32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를 시작으로 재건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마련이 시급하다. 스님들은 "다시 사찰이 불제자들의 손에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미래가 너무나 불명확하다. 지금은 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해외 순회 마친 걸작 간다라 유물

파키스탄 페샤와르 박물관 100년 만에 대여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박물관(Peshawar Museum)은 간다라 불교미술의 걸작을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간 해외 순회전시를 위해 대여한 유물들이 전시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4월 16일 현지매체 '더운 페이퍼'가 전했다.

페샤와르 박물관 측은 "파키스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안한 정세로 인해 많은 학자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며 해외 순회 전시를 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해외 순회 특별전은 지난 2017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당시 페샤와르 박물관에서는 40여점의 주요 소장품을 출품했다.

한국 특별전에 주목한 스위스 취리히의 리트베르그 박물관(Rietberg Museum)은 페샤와르 박물관과 협의 끝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4개월간 '그 다음의 멈춤, 열반(Next Stop, Nirvana)'라는 이름의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를 위해 페샤와르 박물관은 높이 2.5m의 석조불 입상을 특별히 대여했다. 1909년 영국 고고학팀에 의해 발굴된 이 불상은 페샤와르 박물관은 물론, 현존하는 간다라 불상 중 온전한 입상으로는 가장 크다.

약 100년 만에 2000만 달러의 보험을 들여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진 불상은 스위스 현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3개월간 3만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불상을 관람하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했다.

유물 관리를 위해 페샤와르 박물관에서 파견된 아시프 라자 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간 페샤와르에서 이 불상을 본 관람객보다, 단 3개월간의 전시회가 더 많은 관람객을 불러들였다"며 뜨거운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리트베르그 박물관에 전시된 간다라 미술 최대급의 석조 불입상. 사진출처=리트베르그 박물관

태국 승려, 정신질환자 무차별 폭력

"아들과 노는 모습 위험" 진술
가해 승려, 타 지역 이적 처분


자신의 폭행사건에 참회하고 있는 프라 사티트 스님(사진 오른쪽). 사진출처=더 썬

비폭력과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폭력은 큰 악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표적인 불교국가 태국에서 스님에 의한 폭력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6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 '더 썬', 일본의 '토카나' 등의 외신들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4월 8일 아침 일어났으나 최근 현지 언론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태국 중부에 위치한 사뭇쁘라깐(Samut Prakan)주의 프라 쁘라뎅(Phra Pradaeng)지구에 소재한 모 사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찰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CCTV 영상에는 가해자인 프라 사티트 스님(38)이 도주하는 피해자인 녹 씨(30)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땅에 쓰러진 녹 씨를 계속해서 발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녹 씨가 얼굴 앞에 손을 모아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프라 사티트 스님은 화가 조금 진정된 후에 떠나가는 녹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화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귀가한 녹 씨의 몸에서 폭행의 흔적을 본 그의 어머니가 사찰에 항의 방문 후 경찰에 신고했다. 더욱이 피해자인 녹 씨는 정신질환자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프라 사티트 스님은 진술에서 "사찰에 함께 살고 있는 아들과 녹 씨가 노는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녹 씨가 아이를 다루는 모습이 너무 거칠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스님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들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사찰 주지인 프라 아디싹 스님은 해당 폭력사건에 "사티트 스님은 지난 2년간 사찰에서 훌륭하게 소임을 맡아왔고 공헌을 해왔으나 이번 일은 넘어갈 수 없다"며 "해당 사찰에서 추방, 타 지역 사찰로 승적을 옮겼다"고 전했다. 또한 "이 처분에 대해서 프라 사티트 스님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찰은 프라 사티트 스님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 사죄했고, 사찰의 결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추방되는 선에서 가족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주목과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강화되면서 "불교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교구법에 의해 심의될 것이며, 경찰과 지역장들이 심의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세계인 함께한 日 봉축행사

47개국 불교대표 염불종 총본산에 모여

부처님오신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일본에선 먼저 봉축행사가 열렸다. 4월 18일 일본의 '재팬타임즈'는 세계 47개국의 대표들이 일본의 무료쥬지(無量壽寺)에 모여 봉축행사를 봉행했다고 전했다.

음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지내는 다른 아시아권과는 달리 일본은 메이지 유신부터 양력 4월 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지내고 있다. 이 중 효고(兵庫)현 가토(加東)시에 소재한 무료쥬지는 염불종(念仏宗) 총본산으로서 매년 성대한 봉축행사를 진행하기로 유명하다.

2014년 염불종에서는 매년 4월 8일을 '불교의 날'로 지정, 종단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인사들을 초청해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불교의 날 봉축행사에서는 47개국의 불교지도자, 정부인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봉축행사에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내빈들이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우간다, 콩고,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불교지도자들과 정부대표들이 참석했다. 우간다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키와누카 세칸디(Kiwanuka Sekandi) 부통령은 "부처님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봉축행사를 통해 다문화와 다종교간의 존중과 인류의 일체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염불종 측은 이번 봉축행사에 주최 측 집계 약 10만7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불교의 날은 46개국에서 같은 날 기념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행사는 예불과 함께 관불의식 등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염불종의 법주 신카이(真海)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는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흥성하길 바란다"고 회향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6〉 5문—음악명상

강명희

“소리는 善惡 없다”… 내 마음의 문제



대상의 소리를 듣는 수행

음악명상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5관 중에 감각기관인 이근(耳根)을 원만하게 하는 수행이지요. 문사수(聞思修) 수행 중에 문 수행, 즉 들음에 대한 수행에 해당합니다. 문사수 수련은 듣고 사유하고 실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먼저 듣고 나서 자기 경험에 따라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사유지요. 수는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근원통(耳根圓通) 수련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만트라를 들고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수행자들은 대부분 만트라를 통해서 득도했습니다. 80~90퍼센트가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로 득도했지요. 신통한 경험도 많습니다. 소리를 듣고 소리를 읊으면 그것이 마음을 치거든요. 마음에 쌓인 것들이 결국 에너지 덩어리인데, 소리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짜의 마음 덩어리를 치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효과가 다릅니다. 밖의 소리를 들으며 수행을 하는 음악명상은 자신만 바라보는 아견, 아만, 아애를 없애 줍니다.

음악명상은 수용성이고 받아들임에 대한 수련입니다. 대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 중에 듣는 것에 들어가지요. 대상의 소리는 사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지요. 귀로 듣는 것 같은데 귀가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마음만 있으니 마음대로 대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함께 느낍니다. 그것이 각이지요. 지혜는 대상을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태초에 감정층과 교류한 것

소리는 껍데기층에서 마음층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연결시켜 줍니다. 태초에 감정층과 교류한 것이 소리지요. 지금처럼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가 아니라 허름한 집에 살던 옛날에는 소통하는 기제가 많았습니다. 바람소리, 빗소리,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들과 친숙하게 지냈어요. 지금은 이중창 설치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밖의 기운이 안 들어오는 집은 좋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도량에 음악명상을 할 때 전축이 오래돼서 CD를 넣으면 중간에 탁탁 튀었어요. 그 소리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는 전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일으키는 걸 보고 좀 튀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순조롭게 흐르는 것도 있지만 걸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걸리면 걸리는가 보다 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견뎌요. 순항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업이 됩니다. 걸리면 걸리는 대로 살면 되지요.

사실은 6근 경계가 다 화두입니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이지요. 화두를 들고 깨우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화두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는 데서 마음이 소통되어야지요. 그래서 자연명상이 중요합니다. 자연에 가면 자연이 사마타를 해 줍니다. 소리며 하늘이며 구름이며 바람이 막 꽂아서 우리를 사마타하지요. 여기 앉아서 위빠사나 몇 시간 하는 것과 저 오대산 깊은 곳에 가서 걷는 것과 비교해 봐요. 사람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오대산까지 오느라 지쳐 버리는데 오후 되면 얼굴이 피어납니다.

음악만 심리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고 달래는 것도 심리치료가 됩니다.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은 사람한테 손잡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아 주면 마음이 녹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알았던 게 그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신적인 병은 많이 좋아져요. 엄마가 나를 인정하거나 형제가 인정하거나 친구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늘 있어요. 내 안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인정하는 나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것만 발견해도 대단하지요. 그 이치가 같기 때문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반야지혜는 우리가 자거나 밥 먹거나 무슨 짓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늘 내 곁에 있습니다. 수행을 해서 그걸 보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노력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늘 있습니다. 그 이치하고 똑같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어떻게 보이건 상관없어요. 의지처가 하나라도 있다면 위로가 되거든요. 사실 의지처로 삼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자성이 최고지요. 자성이면서 진여면서 대상하고 나하고 가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이 진짜고 행운이지요.

듣기는 ‘받아들임’ 수련 일환
아견 · 아만 · 아애 해소 도움
내면의 감정층과 교류하면서
만물이 둘 아니라는 것 알아

음악명상의 실제

음악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몸부터 관찰합니다. 몸관찰을 통해서 몸이 긴장되어 있거나 피로가 쌓여 있거나 하면 부정관으로 사라지게 하세요. 몸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인 귀를 관찰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고립상태로 있으면 이완을 시켜서 음악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5관을 열고 음률, 감정, 사연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수용만 하세요. 생각이 올라오면 얼른 지워 버리고 음악에만 집중합니다. 음악 소리가 마음속 보따리들을 탁탁 건드려 줍니다. 음악은 사연도 있고 멜로디도 있고 흐름도 있고 음파도 있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제가 많아요.

음악을 처음 들을 때는 고요한 음악부터 들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그 다음에 만트라 같은 불교제례 음악이나 종교 관련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영화음악 같은 경우는 영화의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건드려져요. 그럴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사연을 관찰하세요. 전쟁음악을 들으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포와 두려움을 관찰합니다. 투지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웠던 기억이 나오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건드려져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음악이라는 기제를 통해 음악명상을 하지만, 소리는 어디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를 잘 들을수록 마음이확장되고 마음에서 해탈합니다. 소리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 중간 나쁜 소리 들려주는 사람도 참 고맙지요. 생전 나쁜 소리를 안 듣다가 어떤 사람이 나쁜 소리를 하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음악을 들려주는 게 음악명상이지만, 음악명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음악이거든요. 새가 쪼롱쪼롱 우는 게 음악이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게 음악이요, 산에서 부는 바람소리도 음악이지요. 저기 북한산 너럭바위에 가도 음악이 있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기도원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

듣기만 해도 관념 떨어져

듣기를 잘하면 1차적으로 관념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질이 생기면 물질에 개념이 생기고 명칭이 붙어요. 내관(內觀)을 하면 그게 같이 떨어집니다. 무너져 가는 시신을 보고 외관(外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욕이 떨어집니다. 아애가 떨어집니다. 아애가 세면 저 사람하고 반드시 자야 욕구가 풀리는데, 아애가 떨어지면 성욕도 안 일어나요.

많이 듣고 수용하면 소리에서 해탈합니다. 모양이나 물질보다 소리가 마음에 포용되는 것이 더 넓거든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물질층보다 감정층이 훨씬 넓지요. 예를 들어 컵은 물질층이고 컵에 담긴 물은 감정층입니다. 감정층은 음악과 비슷한 기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감정을 좋게 하거나 편하게 할 때 뭐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예쁜 얼굴로 생글생글 웃어도 기쁨을 주는 건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부드러운 소리, 인정하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화합하는 소리를 내면, 마음이 소리를 타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소리 그 자체는 어떤 형태나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듣기 싫은 소리다 판단하지요. 까치가 깍깍 울면 “쟤는 왜 저렇게 시끄러워?” 하고 생각하지만, 그 소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까치는 자기 소리를 낼 뿐인데, 우리가 그 소리를 갖고 뭐라고 할 뿐이지요.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냥 소리가 들릴 뿐인데 시끄럽다고 느끼거든요.

감정이 진짜 자기 마음의 구조를 알게 합니다. 감정을 교류하는 것은 저 건물 뒤에 있는 수없이 변화하는 감정하고 교류하는 것이지요. 감정은 딱딱한 구름이 아니라 흔들리는 구름입니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지요. 바람인데 흐르는 바람입니다. 태풍같이 센 바람은 흐르는 바람이 아닙니다. 물질화된 바람이고, 파괴하는 바람이거든요. 에너지가 꽝꽝 뭉쳐서 파괴하고 찌르는 소리는 물질화된 소리입니다.

내 감정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를 잘 들으면 감정에서 해탈할 수가 있어요. 내 소리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함께하는 소리, 부드러운 소리, 멀리 가는 소리, 청정한 소리, 진리의 소리는 내면을 울립니다. 소리가 더 마음을 울려요. 물을 만들기 이전의 마음까지 건드려 주지요. 구름을 만들기 이전의 마음까지 가거든요. 다 소통하고, 다 만들어 냅니다.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소리, 나를 인정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만 좋아해요. 짜증내는 소리, 나를 비난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 두 소리가 둘이 아닙니다.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국불교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의 역사

우리나라 불교는 통일신라 때에 동아시아 정상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조선시대 억불정책과 일제 강점기의 사찰령,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격변 등은 한국불교의 현재를 규정짓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많은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역사적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종단이나 불교단체를 향해서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또 한편에서는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스님들 사이에서는 물론이요 신도들 간에도 불신이 확산되면서, 불자들 간의 화합은 물론, 신행의 동력조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도불교사와 중국불교사를 포함해서,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불교의 역사적 배경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하여 향후 불자들의 신행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강의소개

일시 2019년 5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9:30 (약 120분)

기간 3개월 수강료 18만원

교재 불교사의 이해 (조계종출판사 / 9,000원)
[교재는 별도 구매입니다.]

장소 센텀 일심사
부산 해운대구 재송1로 35 창광빌딩 3층

교통 지하철 : 동해선 재송역 앞
버스 : 재송역 혹은 해운대경찰서 하차

문의전화 | 051-781-0543



혜륭스님
센텀 일심사 | 주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박사 과정에서 다년간 종교학과 한국근대불교를 연구한 경력으로, 수강생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한국불교사 관련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대행 스님

부처님 법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형제 법우님들, 앞으로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마음을 계발해서 천체를 앉아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 스스로, 근본으로부터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절실한 일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비유해서 조그마한 티끌만도 못한 것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전에 여기 한 처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사흘을 못 넘긴다고 의사 셋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몸에 꽂은 거 다 빼고 죽든지 살든지 나갑시다." 하니까 말도 못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무조건! 무조건 말입니다. 이유는 불문에 붙이고 무조건 이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 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왜 그랬느냐? 상원사(上院寺)를 지을 때에도 그랬었지만 뭐든지 무조건이지, 거기는 이유가 붙는 자리가 아니다 이 소립니다. 무슨 '어려워서 못살겠네', '죽겠네', '이것이 잘못됐네', '저것이 잘됐네' 이런 게 붙으면 그건 진짜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란, 여러분의 법이란, 그 묘하고 슬기롭고 진짜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눈은 샛별같이 떠지고 한생각은 불끈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솟는 그 무조건적인 생각! 예, 이런 것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꼭 하겠노라!' 하고 주먹을 불끈 쥘 때, 마음속에서 정말 절절한 눈물을 흘리지마는 눈은 생동생동하게 더 똥그랗게 떠지고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는 이러한 그 '무조건'의 생각, 그겁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주인공이 해 주겠지.'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주인공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관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 물리가 터져야 알 겁니다, 아마.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하는 거지.' 그게 관(觀)입니다. 또 지금 내가 무조건이라고 그런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꼭 해야만 되겠다 할 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망상은 끊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는 수련 재료이자 바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을 끊지 않고 여여하게 그대로 넘어가는 무조건! 망상을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니까 망상이지, 아니, 누가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는지, 그것도 사람이 지어 놨지 누가 망상이라고 지어 놨겠습니까? 그것에 왜 흔들립니까?



그림 · 최주현

줄창 말하지만, 이 세상에 누구나가 다 수억겁에 걸쳐서 엄청난 그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쓸리고 저기에 쓸리면서 진짜 부처님의 골수를 모르게끔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는 너무 가까워서 위 속눈썹하고 아래 속눈썹하고 똑같이 작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기와 아주 가깝게 있으니 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요새 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암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만 끄달려 포기를 해 버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백혈병이라고 해서 포기합니다. 뱃속으로 썩어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포기를 하니까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골수에 전부 병이 들어서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벌레가 뼈를 긁어 먹는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럽니다. 병원을 여섯 군데를 다니면서 진찰을 해 봐도 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뱃속을 긁어 먹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그거는 긁어 먹는 병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감기 조금 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한 거니까 무조건, 이건 절대로 이런 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아주 작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저 원주 소태면이라나? 소천면인가요? 소초면인가요? 이제 이름도 잊어 버렸어요. 너무 오래 되어서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집을 팔고 땅 있는 걸 다 팔았습니다. 나중엔 정말이지 남의 행랑채에 들어 있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를 모르기 때문에 방편상 그렇게 한 거죠. 이 부처님 법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가 약입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야, 감자 한 관 살 돈은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감자 한 관에 2천 원이래요. 그래 2천 원어치를 사 가지고 가서, 갈아서 즙을 내서 거기에 미숫가루를 멀겋게 타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맛있게 해 먹으려면 누런 설탕 사다가 가미해서 그냥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쎄.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로 믿었던 겁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었죠. 자식들은 칠 형제나 되고, 쉰 살에 또 늦게 아들을 낳아 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고 계시고, 쉰 살에, 늦게 낳은 그 아들의 덕을 보고 지금까지도 사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리송한 게 부처님 법입니다. 아주 정말이지 이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가끔 한 처사님한테도 그랬지만, 이렇게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보이는 세계에 나오는 모든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딱 진을 쳐 놓고선 "안 돼!" 하면 아예 그냥 못을 콱 쳐 놓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 예가 더러더러 있죠. 왜?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그 사람이 죽고 살고, 또는 '여기 믿으러 다녔는데 안 고쳐져서 어떡하나?'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정립이 되고, 그 못을 박는, 정말이지 굵은 불바퀴를 그냥 콱 (주먹을 쥐어 내리쳐 보이시면서) 박는 그 마음은, 아마도 이 세상 다 없어진대도 그건 빼지 못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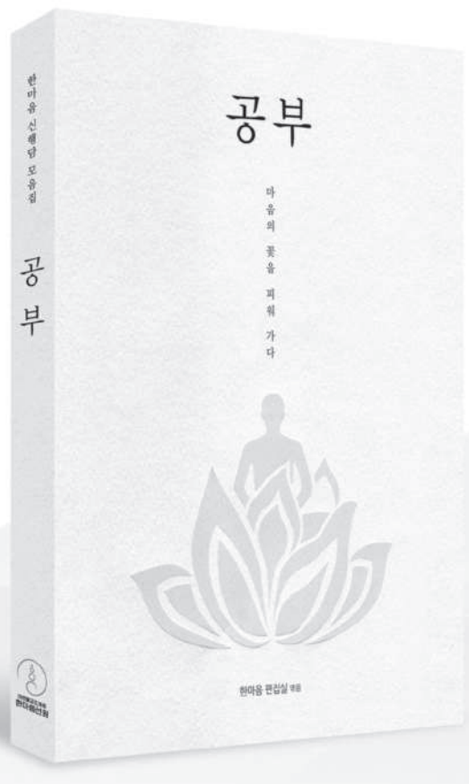
여러분이 그것을 참답게 아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법신(法身)이요, 불부처요, 산 부처요, 여러분이 화신(化身)이요, 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글자도 붙지 않고, 이론도 붙지 않고, 더한다 덜한다, 이게 옳다 그르다도 붙지 않고, 가난하다 또는 부자다도 붙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다도 붙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 뼈저린, 아주 진한, 바닷물을 다 모아서 한 방울이 되는 그 피 한 방울이 말해 줍니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끄저께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은 한없이 쏟아지고 누구한테 보일 수도 없어서 보이진 못하나마 눈이 생둥생둥하게 떠지면서 기둥이 와짝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섰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정신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채 한생각을 내서 둥글려서 모든 걸 해 나가신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융성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너무 느낀 점이 많은데요, 조그만 그릇에다가 재료를 많이 부어서 막 흘러내려서 부작용이 나 가지고 저렇게 야단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럼으로써 자라나는 새싹들이 주인이 돼서 살 때, 그리고 그 밑으로 밑으로 내내 선맥(禪脈)이 끊어지지 않고 끝간 데 없이 이어지도록 지키고 나갈 수 있게끔 법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학술적으로 하지 않고, 경전으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딴말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풀포기 하나도 생명이 있고 이심전심으로 전달하고, 같이 공생(共生)을 하고 공식(共食)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처님 법이고 무엇이 부처님 법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다 와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 호텔을 정해서 설법을 한다 하고 기별을 하니 심지어는 가톨릭교 신부나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이 세상이 길, 그냥 걸을 뿐이에요

☞ A17면에서 계속

목사도 모입디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나중에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남에게 해롭게 대답도 하지 않고 어떤 거 하나 나쁘다는 것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났다고 해 봐야 이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잘났으며, 이 고깃덩어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골수는, 여러분의 누진(漏盡)으로서 오신통(五神通)을, 법바퀴를 벗어나야 바로 불바퀴를 굴릴 수 있으며, 불바퀴를 벗어나야 바로 이 마음이 천백억화신으로, 분신으로 화해서 바깥으로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들락거리면서 이걸로 쓸 거는 이걸로 쓰고, 저걸로 쓸 거는 저걸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지구만 해도 이 안의 세계를 위하여 지구 바깥으로 세 개의 소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지구 바깥에 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계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우리 네들의 마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네들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고 하는 것처럼, 지구도 살아 있는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 혹성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이 입자를 통해서 분자가 돼 가지고는 세 가지 소임을 합니다. 아주 질서 정연하게 단계 단계 단계…, 그래서 지구 바깥으로 그 단계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임을 맡은 단계입니다. 안으로 들이고 바깥으로 내는 소임, 안으로 바깥으로 전부 통신하는 소임, 그리고 책정을 하는 소임, 세 가지를 그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으로 들이고 밖으로 내는 것만 보더라도, 더 넓게 보면 이 지구 안으로 모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남극 북극에서 그 소임을 하면서 들이고 내기 때문입니다. 남극이 똥 누는 데라면 북극은 먹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나쁜 건 내놓고 좋은 건 들여놓듯이, 지금 인간 혹성 자체가 그렇게 살듯 지구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네들 마음 자체의 보이지 않는 입자, 즉 말하자면 화신들이, 내 몸뚱이도 보호하려니까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아니, 인간에겐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섯 단계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 잡아당기는 것과 끌려 들어가는 것의 양면을 다 책정을 잘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세균성이 들어와도 우리가 들여놓을 건 들이고 내놓을 건 내놔야만 하는 작업도 있죠. 이 허공에도 지금 세균성이 그냥 욱시글득시글하니까요, 안에서도 그렇지만. 또 유전성으로 온다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연에 따라서 들입다 침입을 하게 방치가 된다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임신을 했어도 임신한 그 자체에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 애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감인데도 소통령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세계 정신세계의 노예로서 산다 이겁니다. 우린 맘대로 살 수가 없어.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레 어떻게 될는지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라. 네 정신 네가 가지고 있고, 네 주인공 네가 가지고 있으니…." 그 소린 뭐냐 하면, 네 주장자가 있다면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끌리고 그러진 않을 거다 이거야. 네 집이 비지 않았다면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들락날락하지 않을 거다 이거야. "네 집이 비었기 때문에 수없는 게 들락거리면서 네 집을 망가뜨리느니라." 이랬거든.

안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으로도 노예가 되지 말라.
네 정신 네가 깆고 있고
네 주인공 네가 깆고 있으니.

그러니 네 기둥이 없는데 내 기둥을, 네 기둥이 없는데 내 주장자를 줄 수가 있느냐 이거야, 네 집이 비었는데. 네 집이 비지 않고 주인이 있다면 내 주인을 너를 줄 것이로되, 줘서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 가지고 일을 크게 할 텐데, 네가 집이 비어 가지고 네 마음에 주장자가 없는데 내 주장자를 어떻게 너에게 한데 합쳐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 네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면서 그저 깡패니 뭐니,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전부 그냥 드나들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짐승들의 그 의식도 드나들기 때문에 집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못 할 거며, 또 집이 먼저 망가지면 내가 나를 찾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몸으로 고행을 하지 말고 정신 수행을 하라 하신 거죠. 정신 수행으로서 진짜로 "들고 나는 데에 누가 하는가. 네가 하는 것을 알라. 몸은 사대가 돼서 흩어지고 말지만 이 정신, 너의 진짜 참마음은 끝 간 데 없이 바로 너를 살리고 너의 중생을 살리고 수많은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다." 하는 걸 알라고 하셨죠. 그 말은 "위로는 억만 분이 깨달으셨다 하더라도 한 도량의 한 부처니라. 그러니 평발 한 발로 디뎠느니라."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냐는 거죠. 그 말을 고렇게까지는 안 하셨어도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반야심경을 본다면 거기에 그냥 탁탁 들어가 박혀 있어, 아주. 글자 아닌 글자를 아주 거기에다 똑똑 박아 넣었다고.

엊그저께 어느 스님이 "왜 반야심경을 그렇게 풀이해서 미국에 가서까지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다가 써서 우리 발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조곤조곤 차근차근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참 잘 읽는다." 내가 그랬다고요. 그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영어죠. 하하하. 그랬는데 아, 그것도 흉인 거예요, 글쎄.

그래서 그 스님더러 그랬어요.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경전을 보고 지금 그대로 해야 한다면…, 그때 시절에 트럭이 있었겠느냐, 짐차가 있었겠느냐, 짐차라는 이름이 있었겠느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긴데, 그때 만약에 지게꾼이 있었다면 "지게꾼!" 하고 불러야 그땐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짐차 트럭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도 전화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짐차를 불러야 하는 지금 시절과 지게꾼 부르던 그 시절이 다른데 지금도 그럼 "지게꾼! 지게꾼!" 하고 불러야만 하느냐? 그럼 트럭 운전수는 대답도 안 합니다, 지게꾼을 부르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지게꾼! 지게꾼!' 하고 부르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말씀이 옳소! 참, 우리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해 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 그러고는 그만두더군요, 허허허….

오늘은 이렇게 설법하는 날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잘하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게 아니고, 본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가, 뜻이, 법이, 중용이 바로 그러하다 이런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는 날인데 나 혼자만 지껄여서 안됐지만 어떡합니까? 하하하…. 그러니 질문들을, 청년회도 그렇고 모두 질문들 하십시오.

질문자(남) 질문드려야 될 내용들을 미리 다 법문 중에 말씀해 주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릴 것이 많아서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습이 붙을 자리도, 업이 붙을 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중생은 몇억 겁을 거치면서 습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 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체가 없는 마음에 어떻게 습이 붙어 가지고 이생에 와서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큰 깨침을 얻으셨다는 어른들께서도 끝까지 그 습이 남아 가지고 가끔은 부지불식간에 그 습의 행동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가르침 받자옵고자 합니다.

큰스님 그 얘기 하는데 뭐가 그렇게 깁니까? 하하하. 첫째는, 무조건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거다.' 하고서 관하는 거고 둘째는, 가정살이 돌아가는 것 전부 '그놈이 하는 거니까' 하고 관하는 거죠. 그놈이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잘되고 못되고 그걸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것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우주간 법계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일체제불이 한 골수에 들어서 한자리를 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소리 한 겁니다. 내일 죽는다, 이따 죽는다, 우리 식구가 다 멸망한다 이러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결사적인, 나를 버린 그 마음이 정통으로만 들어간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늠름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칼을 악으로다 뺄 때는 그냥…. 이거 보세요, 악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칼을 썩 뺐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칼을 썩 뺐을 때는 수많은 중생들을 다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한 칼로다가 부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내일 죽으면 어떻고 이따 죽으면 어떻고 식구가 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아휴, 참! 이 세상 이 길, 그냥 걸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 뿐이에요. 왜 사나?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가는지 알아야 답답하지 않다 이 소립니다. 야! 이거 뭐, 캠핑 와서 잠시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우주간 법계에 다 통신이 되는구나. 이럴지언대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소 한 마리를 잡는다 해도 걱정이 없고, 소 한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진대도 걱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놈의 거 하나하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건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이판사판이에요. 두 가지뿐이야. 죽느냐 사느냐 요거뿐이지,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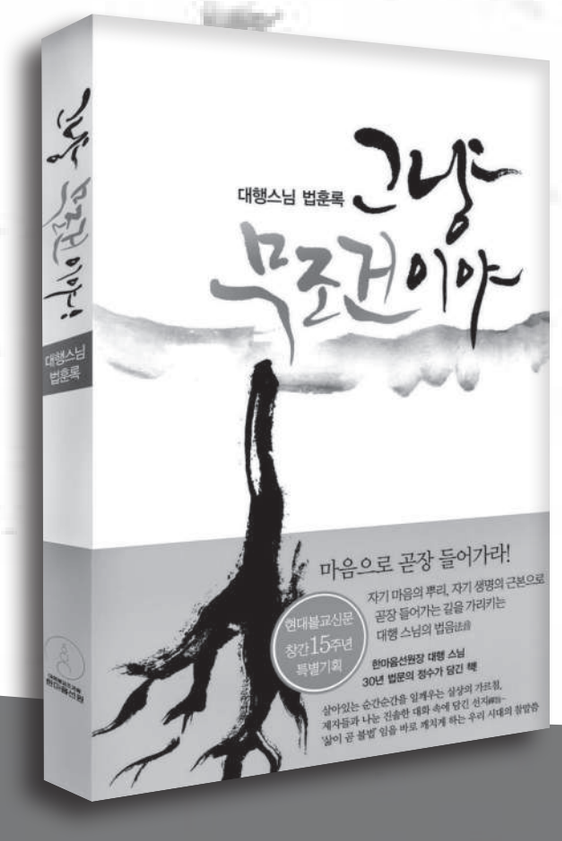
어떤 스님이 날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이 토굴의 문에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난 그런 것도 모르고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못은 왜?" 그러니까 "들어간 뒤에 바깥에서 못을 박아서 못 나오면, 죽지 않으면 얻을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얻고 얻지 못하면 죽고, 이거 둘뿐 아닙니까?" 이거야.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요, 정말 아주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 너그럽게 두루 할 수 있고, 항상 싱그레 웃고, 남이 갓 미쳤다고 할 정도로 싱그레 웃고 길을 지나갈 수 있고, 소 둥구리를 봐도 싱그레 웃을 수 있어요. '저거 가엾다.', '저거 죽으러 가지.' 뭐,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왜? 아주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 만 마리를, 아니 어떤 거든지 만 마리가 모두 죽었다 그럴 때 그것을 빗물 방울로 친다면 한 골짜기에 다 모였다 해도 한 골짜기에서 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일 뿐이지, 한 그릇이지 그게 두 그릇입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5월 5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중독사회 해독, 한국불교 화두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우리사회 만연해진 마약문제
복용자 범위도 일반계층 확대
'마약 청정국' 지위 잃어버려

재벌 · 연예인 투여 보도되지만
중독에서 벗어날 기회 부족한
마약 취약계층 관심 우선해야

붓다는 중생에 해독 가르쳤다
그 가르침 어떻게 구체화해
중생제도 나설지 고민할 때

오늘날 '마약'이라는 단어는 유혹의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이 용어는 상품화되어 각종 먹거리 제품에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소비자를 홀리고 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할 기막힌 중독의 맛을 즐기라고.

요즈음 연예인, 재벌가 등의 마약 복용에 관한 기사가 풍미하고 있다. 유엔 범죄마약국(ODC)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을 넘지 않으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4년 전부터 그 지위를 상실하고 이미 '마약 오염국'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쉬워졌고, 마약 복용자의 범위도 일반 계층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마약의 중독성은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몸을 피폐화시킨다. 그 습관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해 마약 장사는 항상 큰 이득을 남긴다. 그래서 마약은 항상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 일찍이 영국은 중국을 복속시키기 위해 아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약 중독의 취약계층은 빈곤층과 소외계층이다. 마약 복용자가 빈곤층과 소외계층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지금처럼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상류층의 마약 복용은 쾌락 추구에서 나온 것이기에 대체 쾌락을 선택하여 중독에서 벗어날 기회는 많다. 반면 빈곤층, 소외계층은 절망 상황에서 복용한 경우가 많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마약 중독이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물신(物神))적이고 경쟁적인 삶의 양식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마약 중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처방에 대한 논의도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취급한 종래의 정책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취급만 할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환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이 마약 환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붓다는 일찍이 이 세간을 '중독사회'로 보았다. 인간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貪) · 진(嗔) · 치(癡) 삼독(三毒)에 중독되어 고해의 바다를 헤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탐진치 삼독의 뿌리에서 나온 다양한 중독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 돈에 중독되고, 권력에 중독되고, 명예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한 이념에 중독되기도 한다. 또한 현대사회는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중독시키는 일이 너무 많다. 중독의 유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중독의 강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어느 사회학자는 우리나라를 '중독 공화국'이라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중독과 뇌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의 특성은 중독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중독에 매우 취약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여러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 마치 붓다의 가르침을 차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런데 중독에 대한 처방들을 보면 해탈의 두 종류인 심해탈(心解脫)과 혜해탈(慧解脫)의 내용이 결합된 것이다.

심해탈은 선정 수행을 통한 것이고 혜해탈은 무명을 제거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 붓다는 이 중독의 중생에게 해독(解毒)의 지혜와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해독은 바로 해탈이다. 그만큼 붓다의 가르침은 현실적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깊은 산중이 아니라 중독에 취해 길거리를 휘청거리는 사람을 해독하여 바로 서게 하는 것이다. 이 중독의 사회를 해독시키는 붓다의 가르침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한국불교의 큰 화두다.

社 說

불교 음해하는 왜곡보도, 엄정 대응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또 다시 불교를 폄훼하는 왜곡 편파방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정 방송을 지칭하지 않아도 봉축 주간이면 불교계 비위 의혹 등을 폭로하는 행태가 나오곤 했다.

올해는 지난해 종단 수장들의 의혹을 보도한 MBC가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의혹을 보도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같은 방송보도가 해당사찰의 충분한 소명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치 단정지어 조계사가 비리를 저지른 것 마냥 보도하는 것에 수많은 불자들은 공분하고 있다. 반론권 보장과 공정성 측면에서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큰 문제를 지닌다.

여기에 더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축제 기간 동안 제기된 의혹보도의 시점에도 불자들은 MBC 측에 의도적이지 않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잘못된 언론보도는 정정과 반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배상 등도 더해진다. 하지만 왜곡과 편파를 통해 깎아 내린 평판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일반인들에게 조계사는 하나의 사찰이 아니다. 조계종의 대표사찰로 사실상 동의어로도 쓰이고 있다. 조계사가 불교의 대표사찰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사가 비리의 온상인 것마냥 폄훼된 데에 대해 불교계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 조계종단은 MBC의 연이은 의혹보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으로 부족하다.

2008년 불교계는 MB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20만명이 모였다. 당시의 시발점이 정부인사의 편향 발언과, 국토부 지리정보에서의 사찰 누락 등이었다. 특정언론사의 불교 전체를 향한 도를 넘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이 언론사를 향해 범불교도대회를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제 전 불자들은 파사현정의 기치를 다시 높게 들 때다.

정해학당 개원 10주년에 부쳐

심도 깊은 불교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정해학당이 개원 1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2009년 4월 부산에서 처음 문을 연 정해학당은 대중성보다는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운영을 해왔다. 정해학당의 수업은 상식 수준에서 이뤄지는 교리 강좌가 아닌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밀도가 높은 강의로도 유명했다.

10년이 됐지만 학당을 거친 사람들은 100여 명 정도다. 15명으로 시작한 강좌 인원이 이를 초과한 적도 없다. 지금도 부산서는 12명, 안동서는 10명이 공부 중이다.

소규모 그룹 교육이지만 강한 결속력을 자랑한다. 학생 90% 가량이 5년 이상 학당에서 강의를 듣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초창기 멤버들이라고 한다.

이런 강한 결속력은 강의의 질에서 나온다. 정해학당은 사찰불교대학에서 하는 일반적인 주입식 강의는 지양한다. 강의 후에는 반드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진다. 3시간의 강의에서 경구 하나를 놓고 토론하다보니 경전 하나를 전부 교육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건 다반사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학장 오경 스님의 철칙이다.

'작지만 강한' 정해학당의 개원 10주년은 불교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른 원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노력은 언제나 인정받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다. 주입이 아닌 토론식 교육은 앞으로 불교계의 신도 교육에서도 도입이 필요한 방법이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정해학당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특별기고

"정화 당시 비구니 스님 공로 인정되길"



지정 스님
前 청암사 주지

'불교정화'는 '정화운동(淨化運動)' 혹은 '정화불사(淨化佛事)'로도 불리며, 1954년부터 1962년까지 대처승의 배제, 비구승에 의한 종단 재건, 한국불교 전통 재건, 불교 근대화 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 내 자정운동이다.

직접적 계기는 1954년 5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승은 물러가라'는 요지의 유시를 내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 유시의 요지는 대처승 제도가 일제의 잔재로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말살코자 한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대처승은 사찰에서 떠나야 하며, 사찰의 주도권은 비구승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화운동은 화합을 통한 불교개혁 차원보다는 비구승과 대처승 사이의 분규 양상으로 급전됐다. 정화운동의 주도측은 비구승이 되었다. 비구 측은 일제하에서 한국불교가 타락한 원인을 대처승이 불교계를 장악한 데에서 찾았다. 그러나 수적으로 불리했던 비구측은 대처승과의 분규과정에서 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비구니 스님들도 동원했다.

음력 11월 경으로 기억된다. 범어사 대성암에 있던 나도 당시 범어사 조실이셨던 동산 스님의 명으로 부산역서 오후 6시 출발하는 완행열차를 타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서울역서 내려 견지동 조계사로 갔다.

조계사에 도착해 보니 대웅전은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조계사 뒷마당엔 발이 빠질 정도로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전국서 모인 대중들이 눈위에 그냥 앉으려 하자, 전국신도회장 박충석 의원이 가마니라도 깔고 앉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자운 스님이 "오늘 모인 대중들은 정화불사 때문에 왔으니, 고생이라 생각말고 그냥 앉읍시다"고 말하시자, 일제히 대중들은 말없이 눈위에 그대로 앉았다.

그날부터 소승은 전국서 올라온 스님들과 함께 조계사에 머물며 정화 운동에 동참했다. 대웅전 동쪽은 비구 스님 처소, 서쪽은 비구니 스님들 처소로 정했다. 3일간 단식 후 동대문운동장서 청와대 입구까지 서울시내를 행진 하면서 구호를 외쳐댔다. "대처승 물러가라! 아기 아빠 물러가라! 비구승이 주인이다! 총무원을 넘겨라" 등등. 단식과 시위는 그후로도 계속 되었다. 한번은 시위를 하다가 종로 경찰서에 3일간 감금된 적도 있었다.

1년 8개월동안 우리는 조계사를 지키며 계속 머물러 있었다. 한 번은 새벽 예불시간에 깡패인지 대처승인지 모르겠지만 300명 이상이 법당으로 쳐들어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욕하고 발로 차고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폭력과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소승도 그때의 후유증으로 60여년 이상을 위장병, 관절염, 심장비대증 등으로 투병중이다.

이처럼 정화운동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도 한 몫 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이런 숨은 공로를 인정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국불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중 하나인 불교 정화에 참여한 공로자들을 발굴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종단 차원에서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 치하하는 일들이 하루빨리 추진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0-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부산여성불자 25년 이끈 우바이 '大母'



왕선자 명예회장은… 1942년 12월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대 문리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혜화여중 · 고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했다. 부산여성불자회 창립회장, 불교여성개발원 초대부원장, 부산교육정보원 학생상담사, 부산교도소 불교참회반 위문법회 법사, 부산교육청 학생상담 봉사자회 회장, 조계종 부산경남포교사단 부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 조계종 홍법사 홍법대상,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표창, 부산시장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으며 2010년 시인으로 등단해 실상문학 작가상, 문화타임 작가상 등을 받았다. 저서는 시집 〈우바이별곡〉, 〈꽃살문〉이 있다.

그대는 자비보살

왕선자(77)
부산여성불자회 명예회장

25년 부산지역 자비 · 전법행

1994년 부산여성불자회 창립

25년 회장하며 봉사 · 전법행

"만나는 인연 하나하나가 가족,

내 불심의 원동력은 그 가족"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 날마다 공장에 다녀오면 / 물동이 머리에 이고 / 뒷마당에서 무우 뽑아 반찬하고 / 김치전으로 간장 종지 놓고 /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 세상 으뜸으로 여기시던 어머니."

따뜻한 밥을 짓고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중생의 어려움을 염려하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닮았다. 위의 시는 시인이자 부산여성불자회를 25년 동안 이끌어 온 왕선자 명예회장의 시다. 시에서 보이듯 왕 명예회장은 '어머니의 마음' 으로 세상을 본다.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한자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킬 수 있었던 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늘 '어머니의 마음' 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 번의 실수로 멍에를 지게 된 재소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교화하고, 힘겨운 청소년들에겐 든든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등 그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말한다. 보살의 마음을 닮은 왕 명예회장의 이야기다.

새로운 도약을 돕기 위한 퇴진

왕 명예회장은 4월 9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열린 부산여성불자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회장직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이 됐다. 25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왕 명예회장의 모습에 회원들은 모두 뜨거운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왕 명예회장은 회장직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회장직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고, 이 · 취임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어느 누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뛰어난 역량을 갖춘 회원들이었지만 흔들림 없는 왕 회장의 지도력에 여전히 믿음이 컸기에 어느 누구도 왕 회장의 자리를 대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왕 명예회장 역시 회원들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왕 명예회장의 생각은 확고했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너무 오래했어요"

갑작스런 이 · 취임의 이유를 묻자 왕 회장은 짧게 답했다. 그리고 "명예회장으로서 변함없이 후원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덧붙였다. 왕 명예회장의 쉼 없는 '25년' 의 불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병마로 얻은 불자의 삶

왕 명예회장은 평범한 불자였다. 자녀를 기르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어느 날 그에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다. 병마는 왕 회장을 괴롭혔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힘이 없어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많은 병원을 다녀봤지만 병명과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스트레스 혹은 신경쇠약이란 말만 돌아올 뿐 나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왕 명예회장은 마침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기절하듯 쓰러졌다. 더 이상 수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는 포기 하듯 학교를 떠났다. 10년 동안 지켜왔던 교단을 허망하게 내려와야 했다. 왕 명예회장은 아픔 속에 살다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절망이었다.

"절에 가서 기도해보자"

어느 날, 왕 명예회장은 친정어머니 손에 이끌려 부산 선암사를 찾았다. 여고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긴 했지만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고 매달린 적은 없었다. 처음이었다. 범어사 말사인 선암사는 백양산 중턱에 자리 잡아 오르는 길이 험했고, 그 때 당시는 차가 다니기에도 불편했다. 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왕 회장은 숲길에 핀 아카시아 잎을 따서 하나씩 떼어가며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아픈 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했다. 걸음마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오른 선암사에서 왕 회장은 편안함을 느꼈다. 포근한 안식처에 안긴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절망에 휩싸이게 한 병마의 걱정도 불안도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관음기도는 빼놓지 않아요. 아팠던 몸이 거짓말처럼 낫기 시작했는데 부처님께 너무 감사했고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암사에서 기도를 시작한 지 3년 쯤 지나면서부터 병명조차 알 수 없었던 왕 명예회장의 병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3년 동안의 기도가 더 이어지면서 왕 명예회장은 병마에서 벗어난다.

탄생 부산여성불자회

왕 회장은 선암사를 매일 오르며 절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선암사에 갈 때마다 보았던 10살 쯤 된 남자아이였다. 보살핌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던 남자아이는 어딘가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학교를 다녀오면 가방을 던지듯 벗어 놓고 이리 저리 다니기에 바빴다.

선암사서 그 아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왕 명예회장은 그 아이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다음날 선암사를 찾은 왕 명예회장은 학교에서 돌아온 남자아이를 붙들었다.

"공부도 해야지. 책 펴고 가방 바로 놓고…"

왕 명예회장은 나가려는 아이를 붙잡았다. 씻기고 먹이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절에 맡겨진 아이였다. 왕 명예회장은 그 아이에게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다. 주지 스님이 절을 옮기면서 아이도 주지 스님을 따라 가야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마하시 선원의 수행 일과

B5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2019 괘불전

B6
학술 · 문화재
혜암 스님 탄신100주년 학술세미나

모든 인연이 '가족'… 보살행 원동력은 '마음'



2017년 12월 부산여성불자회 송년회 모습. 1994년 왕선자 명예회장이 주축이 돼 창립된 부산여성불자회는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전법포교를 하고 있다.



2017년 4월 여성불자회 장학금 전달 모습.



2018년 12월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부산 교육감상 수상당시 모습.

'왕선자 명예회장'

B1면에서 계속

왕 명예회장은 아이가 떠 난 후 허허로운 마음에 사로잡혔지만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안색이 몰라볼 정도로 밝아졌고 차츰 살도 붙어 활동하기 편해지기 시작했다. 새롭게 얻은 삶이었다. 왕 명예회장의 삶은 그야말로 새로운 삶이었다. 그 새로운 삶은 불자로서의 삶이었다. 왕 명예회장이 다시 받은 생명은 부처님 도량에서 얻은 삶이었다. 그 삶의 의미에 부처님의 뜻이 없을 수 없었다.

왕 명예회장은 부처님께 무엇이든 올리고 싶어졌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 아이 때문이었을까. 왕 명예회장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고 싶었다. 그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상담활동의 원력을 세운다. 그는 전문교육을 받으며 상담활동을 시작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을 다니며 교리 공부도 시작했다. 왕 명예회장은 시야를 넓혀 모든 어려운 대중을 위한 불사를 생각한다. 그는 포교사단에서 활동하며 포교를 위한 방향을 고민하다 마침내 1994년 '부산여성불자회'를 창립한다.

새로운 삶 봉사 · 전법

"전법 포교가 주 활동입니다. 장학사업과 재소자 교정교화 활동을 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본회 활동을 통해 불자로서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산여성불자회는 도량인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모두 순수한 어머니들이십니다. 모두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가정을 위해 절을 찾는 분들이시고 초심자도 많았지요. 자녀가 잘 되길 기도하며 무엇이든 하려는 그 마음이 초심이 되었으니 얼마나 순수합니까? 봉사를 통해 기복에서 진일보한, 참된 보살이 되어가는 모습과 보살행을 하면서 마음이 커지고 불자의 참된 삶을 깨닫는 모습이 부산여성불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어머니들이 보살이 되어 가는 곳, 부산여성불자회는 도량이다. 왕 명예회장은 부산여성불자회를 통해 자신이 새롭게 받은 삶을 회향하고 있다.

왕 회장의 활동은 부산여성불자회에서 그치지 않는다.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당시 초대 부원장으로 활동하며 불교계 내 여성들의 역할을 바로 알리고 재가 불자 여성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활동했다. 상담 능력도 뛰어나 부산교육정보원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고민을 들으며 마음을 나눴다. 상담 봉사 기간만 22년이다. 탈북가족을 위한 상담 또한 왕 명예회장이 담당했다. 탈북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명절이 되면 제수용품을 선물하며 마음을 위로했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상담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어려운 상황을

불연의 가피로 새로운 삶

30대 중반 원인 모를 병마 만나
죽음의 문 앞 하루하루 절망의 삶
선암사서 관음기도 6년 후 완쾌
새 삶의 불연 가피 공덕회향

들으면 마음이 막막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싶은데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라 걱정도 많이 됐고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왕 명예회장은 상담할 때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찾아가곤 했다. 약사인 남편의 벌이로 자녀들과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평범한 주부의 생활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보시를 받아내는 일이 왕 회장의 일이었다. 스님들과 불자들을 만나러 다니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보시 받았다. 불교계의 지원과 회원들의 십시일반 회비는 큰 도움이 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회향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부산여성불자회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했던 장학금이 6백만 원이 넘었고, 현재 1억 3천만 원이 넘었다. 그 외에도 왕 회장이 살고 있는 부산 당감동에 불자들을 모아 백양관음회를 만들어 동평중학교와 동평여중에 장학금을 10년 동안 전달했다. 당감동 마을에서 만나는 어려운 독거노인과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재소자를 위한 교정 교화 활동에서 회원들과 함께 간식과 필요 용품을 준비해 갈 땐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진다고 했다.

하지만 왕 명예회장은 "한 편으론 너무 부족합니다.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는 "보살행은 돈이 넉넉하다고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짜 원동력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불교의 정신은 일체유심조입니다. 무엇을 마음을 새기고 얼마나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힘을 믿고 묵묵하게 나아갈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돈이 많아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행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겠다고 하면 돈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나의 부처님

평생을 불자로 살아온 왕 명예회장이다. 그에게 지나온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가족'이라고 답했다.

"마곡사서 30년 가까이 동고당 문성 스님을 시봉하며 살아온 대보살입니다. 법명은 금강연화대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불자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불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현재 왕 명예회장의 시어머니는 103세다. 왕 명예회장은 5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왕 명예회장의 불심은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어머니의 불연, 친정어머니의 불연이 왕 명예회장의 불연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겐 새로운 가족이 있다. 그는 새로운 '아들'이라고 했다. 병마에서 벗어나고자 기도를 시작했던 시절 선암사서 만났던 그 아이였다. 그 아이가 자라 왕 명예회장을 수소문해 찾아 온 것이다. 10살이었던 아이는 지금 우체국서 근무하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빠였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4년 전이었다. 성인이 된 그 남자아이는 왕 명예회장을 찾아와 간절히 부탁했다. 왕 명예회장은 허망하게 헤어진 후 찾지도 못하고 해준 것이 없었던 지난 세월이 머리에 떠올랐다. 왕 명예회장은 마침내 그 아이를, 아니 그 청년을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가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새롭게 맞은 아들을 비롯해 왕 명예회장이 22년간 상담하며 만난 학생들과 재소자들 그리고 마을서 장학금을 주며 힘내라고 격려했던 그 많은 인연들이 왕 회장에겐 모두가 가족이었던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대중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세우듯 왕 명예회장은 자신의 곁을 지나는 인연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살고 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외국인 배려 돋보이는 수행 프로그램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⑧ 마하시 선원의 수행 일과

현지 탐방에서 익명성은 도움이 된다. 미얀마 수행처에서 내 자신이 불교학 전공자라는 것과 인도 유학으로 상좌부 불교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래야만 많은 것을 새롭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하시 선원에서도 20여 일이 지났건만 서로 인사도 하고 가끔 이야기도 하지만 나 또한 한국의 젊은 스님, 노스님의 법명과 사찰 이름을 묻지 않았다. 물어보려면 나부터 먼저 소개하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원 입구의 명단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이름을 적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의 지정 숙소인 4호실 칸에 'J. H. CHO'로 적어 구체적인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른 한국 스님들은 모두 빠알리 법명을 써 놓아서 한국식 법명을 알 수 없었다. 재가자는 한국식 이름을 써 놓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끼리 서로 한국스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젊은 스님', '노스님'으로 구별하여 불렀고, 재가 수행자는 몇 번 방 요기(Yogi)로 불렀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불교와 수행처에 문외한처럼 행동하며 다른 이의 이해와 관점을 들여다보려 했다. 아는 것이라도 먼저 말하지 않고 물어 보기도 하였다. 어떤 것에 내가 먼저 말해 버리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불교관이나 불교 수행에 관한 견해를 알 수 없다. 더구나 사람들이 내가 불교문화에 익숙한 불교 전공자라는 것을 알면 거꾸로 나에게 많은 것을 물어 볼 것이다. 그것을 감당하기는 힘들다. 선원에서의 공부는 가능한 대화를 줄여야 한다.

외국인 선원 건물의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수행에서는 천천히 움직일수록 선정 수행 공부에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마하시 스님 이후의 선원장이셨던 우 빤디따 스님의 말씀이다. 빤디따라마 선원의 입구에도 마찬가지로 게시돼 있다. 이어서 다음의 순서로 게시된 공지를 볼 수 있다.

△1.외국 선수행자를 위한 일과표(Time Table) △2.팔재계(八齋戒) △3.선수행자의 규칙 △4.칠불통계게(七佛通戒揭) △5.12가지 생활상 규칙 시행 △6.선원 거주자의 4가지 의무(수행처 안팎의 청결 · 수행자 출입 기록 · 새벽 3시 기상 · 저녁 9시30분 건물 출입문 폐쇄) △7.방 번호와 요기 명단 게시판

12가지 생활상 규칙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처 기록하지 못했다. 남성 외국인 수행처에는 모두 14개의 방이 있다. 한국인 6명, 일본인 2명, 싱가포르 스님, 말레지아 스님, 방글라데시 스님 등이 머물며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처음에는 스님 2명에서 나중에는 네 명으로, 그리고 일본인은 한 스님과 한 명이 재가자가 함께했다. 이외에도 중국 승복을 입은 헝가리인 등이 머물렀다.



마하시 선원의 경내에서 경행을 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

매일 수행 일정표대로 생활
나라별 인터뷰 시간 정해져
한국인들은 매주 화 · 목 오후
법회 · 인터뷰 시 통역 봉사도

건물의 입구와 로비에는 선원의 하루 일과표가 게시돼 있다. 이는 각 방의 책상 앞에도 붙어있으며, 매일 반복되는 하루 일과이다.

일과표의 공양 시간대에 "공양청의 출입 시 일거수일투족의 신체적 현상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정기 수행점검일(interview)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30분과 정기법회(Dhamma Talk)는 일요일 오후 3시 30분이다. 또한 선원 청소일은 월요일 아침공양 이후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음은 마하시 선원에 머물며 인상적이었던 시설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 옮겨본다. 첫째, 선원은 수행자 관리에 큰 배려를 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에 고마움을 느낄 때가 많다. 나라별로 수행점검일이 배정 되어 있다. 한국인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이뤄진다. 수행 점검은 선원장 스님이 직접 나와서 수행자들의 공부 내용을 묻고 조언을 해준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오후불식이지만 잔 받침의 유리컵으로 오렌지 주스가 친절하게 제공된다.

또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통역자가 있다. 먼저 한국어 통역하는 미얀마 여성에게 자신의 공부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호흡으로 인한 복부가 들고 나는 관찰과 경행 시 움직임 그리고 몸과 마음의 특별한 상태 등을 설명하면 이를 다시 선원장 스님께 통역해 준다. 그러면 사야도 스님은 미얀마어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준다. 통역자는 다시 한국어로 선원장 스님의 지도를 전한다. 이러한 시간과 힘을 아끼지 않는 배려와 꼼꼼함도 놀랍지만 통역자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궁금했다.

둘째,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외국인 전체가 선원장 스님의 지도 아래 위빠사나 수행과 사상을 담은 사야도 스님의 저서를 가지고 공부한다. 매주 한 장 씩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정기법회(Dhamma Talk)'라고 한다. 이때도 친절하게 주스 제공은 물론 통역 봉사도 이뤄진다. 한국인들이 많아 한국어로 번역을 읽고 일본어 등의 순서가 된다.

셋째, 숙소의 편의 시설로 냉온수기 · 커피 · 차 · 의약품 · 사탕류 등이 제공된다. 남성 외국인 숙소에는 냉장고는 없지만 비구니 스님 이야기를 들으니 여성 수행처는 냉장고까지 있다고 한다.

마하시 선원의 외국인 수행 일과표

시간	수행 일과	장소
오전 3시 – 4시	기상 및 세면	
4시 – 5시	단체 좌선	선방
5시 – 6시	경행 및 아침 공양	공양청
6시 – 7시	단체 좌선	선방
7시 – 8시	경행	선방
8시 – 9시	단체 좌선	선방
9시 – 11시	목욕 및 점심공양	개인처소와 공양청
11시 – 12시	경행	편리한 장소
12시 – 오후 1시	단체 좌선	선방
오후 1시 – 2시	경행	선방
2시 – 3시	단체 좌선	선방
3시 – 4시	경행	선방
4시 – 5시	단체 좌선	선방
5시 – 6시	목욕, 음료, 경행	
6시 – 7시	단체 좌선	선방
7시 – 8시	경행	선방
8시 – 9시	단체 좌선	선방
9시 – 10시	경행	개인 처소
10시 – 11시	좌선	개인 처소
11시 – 오전 3시	취침	개인 처소

이러한 것들은 선원의 공양물이 분배된 것이다.

다음은 마하시 선원에 머물며 정리했던 마하시 수행법 또는 위빠사나 지도법을 소개해 본다.

첫째, 기본 행법으로 출입식념 수행에 있어 복부의 들고 남과 경행 시의 관찰(알아차림)을 지도한다. 이 같은 행법을 일상생활에서 지속할 것을 말한다. 이는 초기경전에도 나오는 불교 본래의 입장이다. 초기경전에서는 낮 시간의 일거수일투족의 주도면밀한 관찰은 물론 수면 중의 자기관리까지 설한다. 예를 들어 과식이나 포식을 경계시키는 이유가 그것이다. 왜냐하면, 잠에 떨어져 통제력을 잃고 본능이 작동되어 몽정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모든 생활, 행주좌와 어묵동정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정념정지의 수행 상태이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마하시에서는 잠들기 전까지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뒤부터를 수행 시간으로 말한다.

둘째, 마하시의 '알아차림' 수행은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의식화 방법'에 초점이 놓여있다. 순간순간 알아차리게 하여 '무의식적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종의 대중요법과 병인요법 중 굳이 말한다면 심층보다는 표층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요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무의식적인 병리적 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하면 무의식적 병리적 활동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제는 사마타와 좌선을 통한 깊은 선정 수준을 강조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더 깊은 심층의 무의식과 번뇌(병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잠재 번뇌까지 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해보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을 하더라도 항상 같은 수준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수행을 할 때만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려고' 마음을 챙기는 등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항상 그 만큼의 힘이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애쓰지 않아도 얼마나 저절로 수행이 되는지는 문제이다. 천천히 그리고 언어적 이름붙이기와 같은 의식적, 의도적 행법으로 묶여 버릴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해 본다. 항상 같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의도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가능해지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넷째, 이렇게 알아차림이라는 의식화 행법은 체화(體化)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수행은 몸에 베이게 하는 체화가 문제이다. 사마타 수행은 무의식적인 체화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비관은 자비심을 일으켜 마음 깊이 자비심을 심고 확대하는 체화의 방법이다. 그렇게 될 때 자비에 반대되는 무자비한 화와 분노 등이 효과적으로 교정된다. 대치되는 생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영상을 마음에 떠올려 차츰 생각을 바꾸게 하는 법이다. 강한 의지로 생각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일어난 생각에 의지가 무력화되기도 쉽다. 사마타 행법은 의지보다 생각을 활용하는 행법이다. 이에 반해 위빠사나는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의지(힘)을 바라보는 행법이다. 위빠사나는 선정 속에서 생각과 의지를 떠오르게 하여 정화시키는 행법이다.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바라만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소거시키는 방법이다.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생각의 대치법과 생각과 의지의 소거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결국 깊은 선정 단계인 '비상비비상처정'이나 '상수멸정'은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무의식적 수준으로 깊이 들어가 정화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이름 붙이기와 움직이는 경행으로는 깊은 선정에 들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마하시 행법이 어느 정도까지 무의식과 관계하는 체화 수준이 가능할까를 다시금 따져 본다.

이 같은 필자의 마하시 행법의 평가는 당시 기록에 의한 순전히 개인적 이해이다. 원래 마하시 선원장 등은 초기경전과 논서에 바탕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행법이라 생각된다. 이 때문에 마음의 정화 문제에 수행의 무게중심이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

즉 청정심이나 명징한 마음, 고요하고 명료해진 마음에 대한 점검은 어렵다. 그래서 수행처 내에서도 위빠사나 수행을 일종의 테크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처럼 위빠사나를 일종의 기법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하시 행법의 알아차림은 어떻게 일상의 모든 활동에 연장하여 확대, 정착할 수 있는가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마하시의 알아차림은 일상사에서 불선업(不善業)의 차단이라는 효과가 있다. 늘 의식화라는 알아차림의 노력은 불선업이 일어날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어한다. 이 때문에 마하시 행법은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의 최소화'라는 말로도 일지에 정리했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영산재, 세상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의식



영산재
법현 지음/운주사 펴냄/1만 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영산재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서 한국의 불교의식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명실상부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그래서 인류가 보존하고 전승시켜야 할 세계적인 문화예술로 인정받았다.

사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자타공인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불교예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영산재가 불교의 사상과 교리적 의미는 물론이고 종교적 상징성과 풍부한 예술성을 담고 있으면서, 전통 불교음악과 불교무용 대부분의 형태를 온전히 구현하는 불교의례이기 때문이다.

한편, 영산재는 불교의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공연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몸짓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 깊은 맛을 느끼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영산재에 대한 기본 안내서로, 12단계(혹은 13단계)로 진행되는 영산재 전 과정을 다양한 사진과 간단한 해설을 통해 소개하는데, 저자는 대학에서 불교음악(무용)을 가르치는 학자이면서, 40년 이상 불교의례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하고 공연하는, 불교음악 및 불교무용의 전문 '꾼'이기도 하다.

영산재는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영취산서 대중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는 장엄한 광경을 재현한 것으로,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이를 통해 살아 있는 대중에게는 불법의 가르침과 신앙심을 고취시켜 정각을 이루게 하고, 망자에게는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악, 가, 무로 구성된 영산재는 범패소리와 함께 법고무, 나비무, 바라무, 타주무가 아름답게 펼쳐지며, 시련, 대령, 관욕, 조전점안, 신중작법, 괘불이운, 상단권공, 식당작법, 운수상단권공, 중단권공, 신중퇴공, 관음시식, 봉송 및 소대의식의 13절차가 진행된다.

부처님 가르침을 소리에 담은 불교음악 범패,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짓에 담은 불교무용 작법무, 다양한 종류의 기악(북, 징, 동발, 목탁 등)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 영산재이다.

영산재는 불교의식이지만, 한편으로 무대에서 공연되는 순간 문화예술이 된다. 따라서 대중이 즐기고 느끼고 공감하는 공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교의식으로서 교화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대중이 그 과정과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 책은 영산재의 전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봄으로써, 영산재를 이해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 불교의식은 일상적인 의식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의식과, 오랜 시간 체계적인 교육 및 습득 과정을 거친 범패승들에 의해 진행되는 전문적인 의식으로 구분되며, 당연히 영산재는 전문의식에 속한다. 이처럼 영산재는 대표적이고 전문적인 불교의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인의 전통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음악, 무용, 연극, 문학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예술로 진화해 왔다. 그 결과 불교도량을 벗어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공연으로 국내 무대는 물론이고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의식'이라는 극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영산재가 실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 그리고 영산재를 문화예술로 감상하거나 혹은 종교적 영감이나 깨침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영산재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명상은 '하면 좋은 것'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명상이 뇌를 바꾼다
장현갑 지음/불광 펴냄/1만 6천원

한국 심리학계의 거장이자 K-MBSR 프로그램의 창시자 장현갑 교수가 뇌과학과 심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증명한 명상의 효과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불안, 우울, 걱정, 스트레스 등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감정은 우리 뇌가 만들어 낸다.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내며 '괴로운' 뇌를 '행복한' 뇌로 바꿔 주는 가장 탁월한 방법, 명상의 효과를 뇌과학, 심리학의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증명하고, 명상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풀었다.

"명상이 치료가 된 시대"

특정 종교의 수행이 아닌 심리 치유의 수단이 된 명상.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휴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다는 건 이제 놀라운 소식도 아니다.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명상을 하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창의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얻었다고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구에서 소위 엘리트로 불리는 이들이 불교의 수행법서 유래한 명상에 관심을 갖고, 수련을 한다는 건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명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명상을 하는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들에게 있어 명상이란 종교적 수행이 아닌 스트레스와 같은 마음 치유의 수단 혹은 휴식법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마음챙김을 비롯한 명상이 종교적 수행이 아닌 심리 치유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초기불교의 수행법서 종교성은 배제하고 수련 방법을 표준화 시킨 마음챙김 명상이 임상에 도입된 것은 1980년으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마음챙김 명상이 심리적, 의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발표된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발간된 미국의 심리학회지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에 실린 "마음챙김이 치료가 된 시대"라는 제목의 특집 논문을 보면,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마음챙김 명상을 주제로 한 논문만 773편이 출간되었다고 밝혔다. 불과 30여 년 사이에 마음챙김 명상의 심리 치유 효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면서 명상이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행복해지려면 뇌를 바꿔야 한다."

우리 뇌가 오로지 '생존'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뇌는 원시 시대부터 맹수의 습격이나 적의 위협, 기후 변화와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이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낙관적인 상황보다 비관적인 상황부터 떠올리고는 끊임없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울함에 빠진다. 이렇게 우리 뇌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 낸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뇌의 성향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끊임없이 불안, 우울, 걱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우리를 행복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뇌가 가진 결점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밖에 없다.

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된 이후 명상 수행을 한 티베트 승려들의 뇌를 관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우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들의 뇌에서는 좌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강력하고 침투력이 강한 '감마파'라는 뇌파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좌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더 활발하고 감마파가 출현할 때는 정서적으로 유쾌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기분이 들 뿐만 아니라 주의 집중이 훨씬 수월하고 연민과 자비심이 나타난다. 즉 명상을 하면 뇌가 변화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산만한 마음이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여 우울이나 걱정, 불안, 적대감과 같은 감정을 만들어 내는지를 살피고 명상이 뇌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심리학과 신경과학, 심리어의학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알아보았다. 그래서 독자들이 '왜 명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애 명상, 호흡 명상, 만트라 명상, 앉기 명상, 마음챙김 명상 등 여러 가지 명상법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명상 유도문을 함께 실었다.

K-MBSR 프로그램의 창시자

한국 심리학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저자 장현갑 교수는 MBSR(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존 카밧진 박사의 책 〈총체적 재앙의 삶(Full Catastrophe Living)〉을 김교헌 교수와 함께 번역해 〈명상과 자기치유〉란 제목으로 출판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MBSR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 인연이 있다. 이후 MBSR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전통 수행법인 호흡과 만트라 명상을 접목하여 한국화한 K-MBSR 프로그램을 개발, 발표하여 국내에서도 명상 치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 병원의 '통합의학과'나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의 명상 치유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공식 프로그램이다.

이 책에는 뇌과학을 전공한 심리학자이면서 명상 수련자인 저자가 수십 년간 명상과 뇌의 관계에 대해 가졌던 관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단순 명상 효과나 방법만 소개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법과 함께 명상 유도문, 그리고 명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 같은 것이 세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 이런 이유이다. 그래서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명상을 실천해 보고 싶은 사람, 심리 치료에 관심을 가진 사람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연꽃 든 석가모니불, 괘불로 본다



공주마곡사의 '석가모니괘불탱(보물 제1260호)'

국립중앙박물관 2019 괘불전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공주 마곡사 괘불'

서화관 불교회화실 4월 24일~10월 20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상설전시장 2층 불교회화실에서 공주 마곡사의 '석가모니괘불탱(보물 제1260호)' 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2006년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열어온 '한국의 괘불전' 의 열네 번째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마곡사 괘불은 1687년 5월, 120여 명이 넘는 대인원이 참여해 조성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마곡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중창이 있었고, 중창불사 중에 마곡사 괘불이 조성됐다. 마곡사 대중과 신도 60여 명은 바탕천, 금, 아교, 먹 등 괘불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물목을 시주했다. 불화는 1670년 마곡사 대웅보전 단청불사에 참여했던 능학(能學) 스님을 비롯해 계호(戒湖) · 유순(唯順) · 처묵(處默) · 인행(印行) · 정인(精印) 스님이 함께 조성했다.

여섯 명의 화승이 함께 조성한 마곡사 괘불은 전체 높이 11m, 너비 7m, 무게 174kg의 괘불로 300년 전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는다. 광배를 장식한 꽃, 보관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는 봉황, 영롱하게 반짝이는 구슬과 다채로운 문양은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괘불 화면 상단에는 13개의 붉은 원을 그리고 안에 고대 인도의 분자인 범어를 적었다. 주변은 용과 꽃으로 장식했고, 복장물(腹藏物)을 복장하는 불복장 의식이나 불보살의 눈을 그려 상을 완성하는 점안(點眼) 의식처럼, 부처의 심오한 가르침이 담긴 범자나 진언(眞言)을 그려서 11미터 화면에 생명력을 부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곡사 괘불의 주인공은 보관과 장식으로 장엄한 석가모니불이다. 거대한 화면에는 연꽃을 든 석가모니불과 부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으로 가득 차있다. 석가모니불이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은 제자 가섭과 마음이 통해 가르침을 전했다는 염화시중(拈花示衆)에서 유래했다. 부처님은 가섭에게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진리에 도달한 마음, 글자로는 온전히 진리가 표현되거나 전해질 수 없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이 이야기는 문자가 아닌 참선수행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하는 선종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마곡사 괘불처럼 화려한 보관을 쓰고 연꽃을 든 석가모니부처님을 그린 괘불은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비슷한 도상임에도 '노사나불', '미륵불' 등 여러 존상으로 불린다. '마곡사 괘불' 은 본존 두광 안에 구획된 붉은 방제(傍題) 안에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이란 존명이 적혀 있어 본존이 석가모니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존뿐 아니라 각 인물 옆에도 존명을 적은 방제가 있다. 괘불에 그려진 35명이 누구인지 방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유사한 도상을 해석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

괘불은 평소 함에 넣어 법당 안에 보관하기 때문에 사찰의 큰 행사 때에만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평소에 보기 힘든 마곡사의 대형 괘불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와 연계하여 세계문화유산 마곡사의 연혁, 사찰에 소장된 불상과 불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전시도록을 발간했다. 마곡사의 역사와 성보문화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전시품 마곡사 괘불 외에도 마곡사 소장 불상, 불화 사적 등을 수록했다.

도록에서는 문헌 기록과 함께 영산전 · 대광보전 · 대웅보전 등 마곡사 주요 전각에 봉안된 불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18세기 후반 대광보전을 중심으로 한 불화 조성과 이를 담당한 화승 그룹을 새롭게 조명했다. 마곡사는 남방화소(南方畵所)라 불리며 금호당(錦湖堂) 약효(若效, 1846~1928)를 비롯해 뛰어난 근대기 화승을 키워냈던 중심지였다.

'마곡사 괘불' 을 소개하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5월 15일(수)과 8월 7일(수), 9월 25일(수), 10월 2일(수) 총 4회 진행한다. (02)2077-9000.

한국불교사진협회 제24회 회원전

'석등, 당간지주'

서울 불일미술관 5월 6~12일

대구문화예술회관 7월 15~21일



박정숙 作, 화엄사 봄날 석등(국보 제12호)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최우성)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제24회 전국 회원전 '석등, 당간지주' 와 제13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함께 개최한다. 전시는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리고, 이어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7전시실에 열린다.

이번 회원전의 주제는 석등과 당간지주이다. 회원들이 1년 동안 전국의 사찰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전시된다.

전국의 수많은 석등과 당간지주들은 역사의 고된 세월을 견디어 왔다. 힘겨운 세월 속에서도 성보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은 석등과 당간지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석등과 당간지주가 품고 있는 세월의 모습을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들이 렌즈를 통해 조명한다. 수도암 석등(조규현),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공진미) 등 새롭게 탄생한 석등과 당간지주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판화로 펼친 나한의 세계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나한의 세계'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처님오신날 특별전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나한의 세계' 를 개최한다.

2019년 강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열리는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의 수집품 6천여 점 중에서 나한과 관련된 한국 · 중국 · 일본 · 티베트의 불화판화를 비롯하여 나한 삽화가 들어있는 고서와 삽화를 찍었던 판목 등 70여 점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목판화가 최초로 공개된다.

중국 당대 관휴의 16나한도를 건륭황제 때 항주 성인사에 제작된 석각비에서 탁본한 작품 전부와 티베트 덕격인경원이 자랑하는 16나한고사도 목판화 그리고 일본의 다양한 오백나한도 판화를 비롯해 채색으로 만들어진 16나한도 판화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초로 공개된 오백나한도 목판화는 일본에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오백나한도 목판화로 고려불화 중 가장 아름다운 오백나한도로 알려진 일본 교토지은원의 오백나한도 불화(고려 14C, 188.0×121.4㎝)를 모본으로 에도시대에 다시 그리고 판각한 목판화(일본에도 19C, 186.5 ×120.5cm)이며, 그 크기도 원본과 불과 1㎝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대형 목판화로, 그림의 구도와 배치도 고려불화를 충실히 따라 표현했을 뿐 아니라 고려불화의 퇴색된 부분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초판 인출본으로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작품이다.



오백나한도목판화(186.5 ×120.5cm).

오백나한도 목판화는 고판화박물관이 3년 전에 옥션을 통해 수집하였으나, 3폭으로 인출된 대형 판화라, 그동안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다가 이번 전시를 위해 표구 장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불화 오백나한도을 모본으로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판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작품은 발견되지 않아 동아시아 판화사에서 중요한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선학 관장은 "각국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국가 간의 전시 교류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아름다운 고려 불화를 보고 싶어도 점점 깊숙이 수장고 속으로 숨어버리는 이 때 고려불화 원본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목판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박물관은 특별전의 유물을 보다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별전 기간 동안 1박 2일 과정의 문화형 템플스테이로 '전문가와 가족을 위한 숲속판화여행, 시민을 위한 숲속판화여행' 을 특별전과 더불어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033)761-7885.

박재완 기자

제5회 불교무용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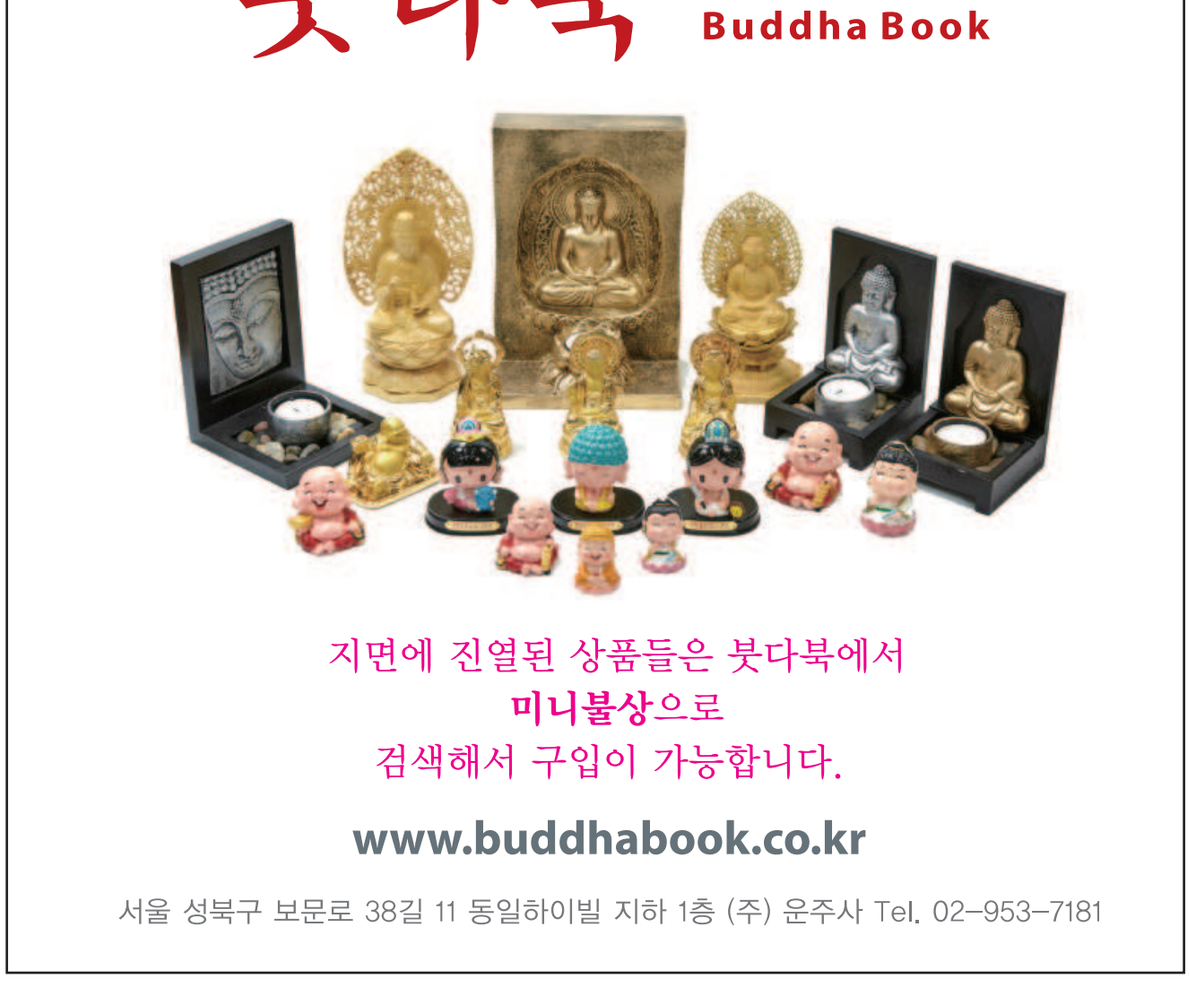
서울 마로니에공원 5월 1일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와 함께 5월 1일 서울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제5회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불교무용대전 결선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전통무용 · 창작무용 · 해외무용 등 7개의 선정된 예술단체가 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으로 70분간 진행된다.

올해 불교무용대전은 성균소극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9개 국내외 예술단체가 참가했다. 4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5개의 예술단체가 참여하여 무용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다. (02)747-5035.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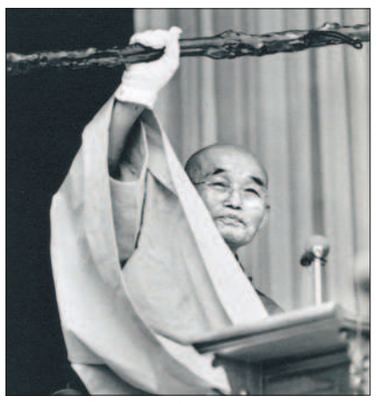


‘선지식’ 혜암 스님 수행 · 사상 망라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주관으로
4월 20~21일 제2회 학술대회

“성철 · 혜암 두 대종사 뒤 이어
전통 계승해야 할 소명 있어”
26일 상당법어집 · 진영 봉안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10대 종정 취임법회에서 혜암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4월20~21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혜암대종사 탄신 100주년기념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부하다 죽어라”라며 수행 정진을 강조했던 조계종 前 종정 혜암 스님(1920~2001)의 생애와 사상, 수행관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이사장 성법)는 4월 20~21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혜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기념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종진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혜암 스님 생전 육성법문 동영상 시청과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공부하다 죽어라- 집주 혜암대종사 상당법어집〉의 집주를 맡았던 신규탁 교수는 “이제 중국 선종의 어록을 참고해 우리 방식대로 본지풍광을 들어내야 한다”면서 “돈오돈수의 진면목을 언양한 해인총림 성철 스님과 혜암 스님 두 대종사의 뒤를 이어 전통을 계승해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 후학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혜암 스님의 수행관과 사상 등을 집중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혜암선사의 자성삼학(自性三學)의 선수행관 일고찰’을 발표한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은 용맹정진과 두타고행을 중심으로 혜암 스님의 수행관을 살폈다.

용맹정진과 두타고행이 자성삼학과 다르지 않은 점을 혜암 스님의 선수행의 특징으로 꼽은 문광 스님은 “혜암 스님의 삼학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화두참선을 용맹스럽게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혜암 선사의 간화선에 대한 고찰’에서 혜암 스님의 간화선 사상과 방법론을 조명했다.

오용석 교수는 “혜암 스님은 선 자체에 가치 부여를 하고 두타행 중심의 수행 가풍을 확립했다”며 “스님이 제시한 화두 공부의 핵심은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소식으로 의심해 들어가는 것이었고, 이런 화두공부법은 출재가 공통의 수행가풍을 이루며 재가자들을 적극 동참케 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혜암 선사상의 경전적 배경과 한국불교에서의 위상’을 발표한 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혜암 스님의 선사상에 대한 경전적 배경을 살피고 한국불교에서 위상을 구명했다. 특히 정영식 위원은 혜암 스님이 정토사상을 설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혜암 스님은 오직 유심정토(唯心淨土)만을 주장할 뿐이며, 영가법문에서도 정토왕생을 설한 적은 없다. 이러한 점은 혜암 스님이 선승의 본분에 충실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 교수는 ‘성인전(聖人傳) 이론과 한국불교의 큰스님 만들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올바른 선사의 선양에 대해 고찰했다.

박재현 교수는 “국내 불교학 분야에서는 인물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별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성인이 없는 종교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성인전 같은 인물연구방법론과 그 성과는 종교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혜암 선사를 ‘공부하다 죽어라’고 외쳤던 모범적인 선수행자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만세의 사표, 고승의 새로운 표준, 깨친 수행자의 모델로 제시할 것인지를 한국불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념 속에서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현대불교의 동향과 혜암 성관의 수행과 교화’를 발표한 오경후 前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혜암 스님은 굴곡진 근현대불교사 안에서 두타행을 통해 정법안장을 지키고자했던 수행자였다고 평했다. 오경후 前교수는 “혜암 스님은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얽혀있는 불교계의 뿌리 깊은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정법안장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진력했던 인물”이라며 “때문에 혜암은 성철과 함께 한국 근현대불교사를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밝혔다.

학술대회에 앞서 입재식이 봉행됐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스승 혜암 스님의 삶과 사상이 제대로 들어나고 진면목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내년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려 한다. 앞으로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이사장 성법 스님은 “많은 학자들이 참석해 스승 혜암 스님의 사상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스님의 진면목이 드러나 사부대중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혜암선사문화진흥회는 4월 26일 해인사 원당암서 〈공부하다 죽어라-집주 혜암 대종사 상당법어집〉 봉정식 및 김호석 화백이 그린 혜암 대종사 진영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용윤 연구관, 미술사학회 논문상 수상

기존 미술연구 방법 탈피
승려 문중 · 僧匠 관계 조명
4월 27일 한중연서 시상식



국내 최대 미술사학 단체인 (사)한국미술사학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이용윤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관<사진>이 선정됐다.

한국미술사학회(회장 박정혜)는 최근 이용윤 연구관의 ‘조선후기 황악산 화승(畵僧)의 활동과 벽암문중의 조력’을 제5회 올해의 논문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서 열린 한국미술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이용윤 연구관의 ‘조선후기 황악산 화승(畵僧)의 활동과 벽암문중의 조력’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직지사를 중심으로 불사를 주도한 벽암문중과 이를 수행했던 승장(僧匠) 탁휘성징, 세관 간의 관계를 조명했다. 특히 불화 연구에 있어서 도상과 형식을 파악하던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넘어 불사의 숨은 조력자인 문중에 주목해 화승과의 관계를 고찰한 점은 불화 연구방법론의 외연을 넓혔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용윤 연구관은 탁휘 · 성징 스님이 꽃을 든 석가불을 주불로 하는 ‘선석사 영산회괘불도(1702)’와 ‘용문사 영산회괘불도(1705)’를 조성했으며, 이 ‘염화불’ 도상은 17세기에 벽암문중이 간행된 불서의 변상도로 표현되면서 확산됐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문중의 조력을 받던 화승은 문중에게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상적 뒷받침을 받아 새로운 형식의 불화를 제작했다는 게 이용윤 연구관의 주장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용윤 연구관은 “승려 문중과 승려 장인과의 관계를 고찰했는데 이런 부분이 학계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형식과 도상 연구가 아닌 문화사적 관점에서 불교미술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韓 전통장인 연구 단체 창립된다

전통장인연구회 5월 25일 창립학술대회

근대 佛母 보응문성 조명
정읍 약수암 관음상 분석

한국 전통장인들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창립된다.

한국전통장인연구회(회장 한봉석)는 오는 5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관단체로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가 참여한다.

‘조선말기와 근대 불교미술의 거장-보응당 문성의 삶과 예술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보응당 문성 스님의 작품임이 확인된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 등을 비롯한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 연구(최선일)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의 과학적 분석-수종과 연륜분석을 중심으로(김요정) △보응당 문성 불화의 전통성과 근대성(이승희) △보응 문성과 송광사 관음전의 일반회화 벽화(최경현)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자비 기반 인성교육서 한국어 번역됐다

혜주 스님 ‘SEE Learning’ 韓譯 출간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개발한 자비 기반 ‘사회 · 정서 · 인성 교육(Social, Emotional, Ethical Learning, 이하 SEE Learning) 프로그램’이 한국어로 번역됐다.

에모리 대학교는 4월 4일부터 3일간 SEE Learning 론칭 행사를 인도 델리 안다즈 호텔에서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에모리 대학교 SEE Learning 프로그램 한국 대표 국제 위원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혜주 스님과 연구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SEE Learning에 대해 발표하고 세계 교육학자들과 교류했다.

이번에 출판된 ‘사회 · 정서 · 인성 교육과정’은 유아 · 초등 · 중등 · 고등 교육 과정에 도입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사회 정서 발달과 더불어 집중력, 자신과 타인을 위한 자비, 외상 치유적 접근에 기반한 회복탄력성, 시스템적 사고, 윤리적 통찰 등을 키워주는 현대 사회에 매우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에모리 대학교 연구팀은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포함해 윤리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SEE Learning 프로그램의 실행과 연구를 위해 에모리 대학은 북미와 남미, 아시아, 유럽 등 여러 나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 (불교아동교육연구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적인 한국 파트너로서 전체 교육과정 안내와 교사 연수, 교육과정 실행, 그리고 관련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미술사학 제 27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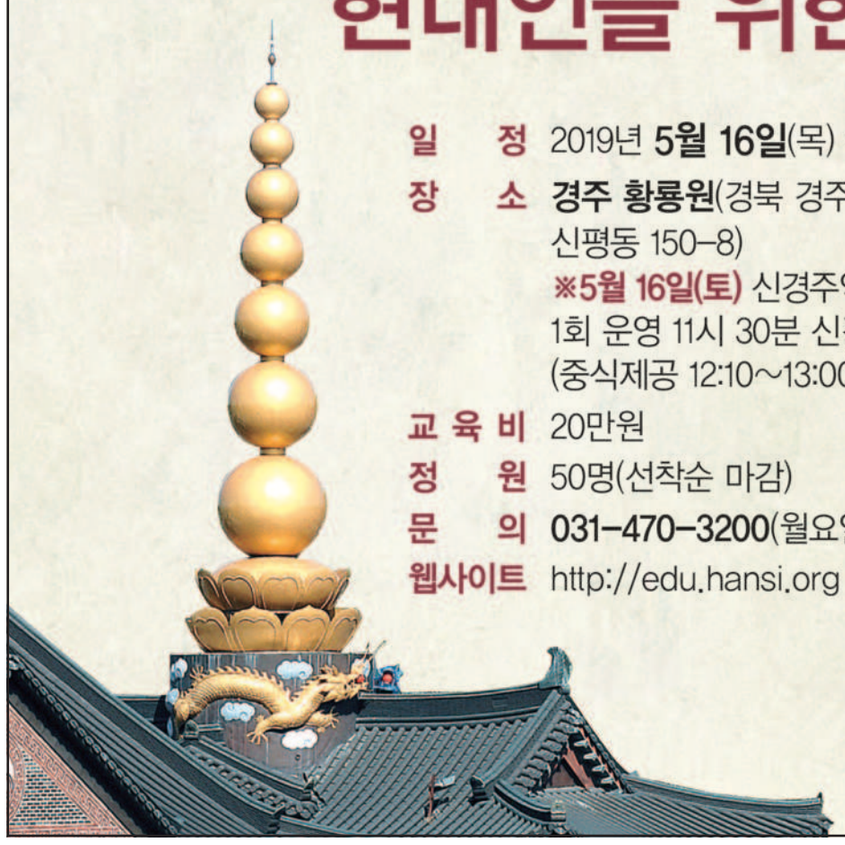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지준)의 학술지 〈불교미술사학〉27집이 최근 발간됐다.

〈불교미술사학〉27집에는 △정은우(동아대)의 ‘고려시대 불교조각연구와 새로운 관점’ △최은령의 ‘서산 일락사 미타전 불상 연구’ △김자현(울산대)의 ‘15세기 왕실발원 불교변상판화’의 제작과 흐름 △이선용(한국전통문화대)의 ‘일본 교토 세이간지 소장 〈금직천불도〉의 진언 연구’ △장계수(동국대)의 ‘순천 선암사 축성전(현 장경각)의 벽화 연구’ △김지현(동국대)의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의 조영계획과 동계열의 석탑 고찰’ △서남영(경북대)의 ‘중국 산서성의 소형불교석굴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 논문들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신도상담과 지도방안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5월 16일(토) 신경주역 → 황룡원간 셔틀버스 1회 운영 11시 30분 신경주역 출발.
(중식제공 12:10~13:00)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하는 컨텐츠
▶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⑧ 곡우(穀雨)
생고사리감자탕 · 방아장떡 · 곰취쌈밥

'고마운 봄비' 山中은 나물 박물관

'곡우에 비가 넉넉하지 않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는 속담처럼 봄비는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다. 봄비는 땅을 윤택하게 하고, 이 땅에서 곡식이 성장한다. 쌀이 제값을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의 쌀밥문화는 여전하다. 시간이 아닌 공간 전개식의 식사법에 따라 밥을 소화하기 위해 광합성 작용이 풍부한 나물찬을 먹음으로써 음식이 소화되기 때문이다.

이곳저곳 고사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수줍은 고사리! 나오면서 허리를 굽히는 고사리는 중국 은나라 때 나라가 망하자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는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고 연명하다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대변하듯 고개를 들지 않는다.

사찰 주변의 생고사리를 삶아서 감자를 넣어 만든 얼큰한 찌개는 마른고사리의 맛과 사뭇 다르다. 고사리의 풋풋한 향기를 경계하는 이도 있지만 삶아서 잠시 볕을 쪼인 후 음식을 만들면 발암물질이 사라진다. 곡우가 되니 나무에 물이 오르고 새순을 틔우는 나무들의 숨소리가 들린다. 제피향내가 나기 시작하면 가죽순도 움을 튼다. 방아가 잎을 내놓기 무섭게 줄기를 키운다.

방아는 장떡을 해서 먹으면 뱃속의 노폐물을 장밖으로 밀어내준다. 특히 겨우내 밋밋한 된장찌개 맛만 봤다면 방아를 넣어보자. 방아는 된장찌개에서 상쾌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 잎이 자라면 잘 개


생고사리감자탕


방아장떡


곰취쌈밥

켜서 방아장아찌를 담그는데, 사실 손이 많이 가서 한 해 한 번이면 더 하지 못하는 음식이다.

평생 채식을 하는 스님들의 구충제는 단연 제피와 산초의 역할이 크다. 제피와 산초의 산시울 성분은 뱃속의 충을 녹일 만큼 강력하다. 또한 뜰한 귀퉁이에서는 어성초가 자라고 있다. 히로시마 원폭 이후 처음으로 생명을 틔운 어성초는 강인한 성품으로 질병치료에 쓰인다.

아토피와 피부질환에 도움을 주는 어성초는 사실 튀겨서 먹으면 식감이 좋은 식재료가 된다.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어성초를 쌈채소로도 사용한다. 다만 어성초를 접어서 어금니에 깊숙이 밀어 넣어야 비린 맛을 느끼지 않게 된다.

두릅도 늦을 새라 움을 틔우고 뻐죽이 손톱만큼 자라나있다. 엄나무순도 새순을 올리고 있고 오가피순도 새순을 틔운다. 봄철만큼은 맛난 나물을 실컷 먹을 수 있으니 산중에 사는 맛을 오롯이 느낀다. 땅에서 자라는 식물 중 그나마 늦게 나오는 곰취는 천백고지 나물이다. 백두대간 1,100m 능선에서나 만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식물이다. 하우스재배에 성공해서 시장에 벌써 나오고 있지만 노지곰취는 엄지손톱만큼 이제 자라고 있다.

곰취쌈밥은 사찰음식 행사 때마다 곰취장아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메뉴다. 하지만 생으로 밥을 뭉친 후 그 위에 된장쌈장을 얹어 먹는 곰취밥은 산행에서 준비해간 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좋은 음식이기도 하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어떨까? 전통차인 작설차의 첫 순도 곡우차를 시작으로 세작, 중작으로 이어진다. 다만 빈속에 차 마시고 위가 아프다는 이도 있으니 체질을 살펴서 음용할 일이다. 작설차는 사찰음식에서 차를 우리고 난 잎으로 무침이나 튀김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말려서 베갯속에 넣어두면 은은한 차향을 느낄 수 있고, 두한족열에 맞게 머리가 시원해진다. 수많은 향기를 내는 식물들 중에 작설차의 향기가 으뜸이다. 〈동다송〉에서 초의선사는 영혼을 정화시킨다고 하였고, 불가(佛家)에서도 그 의미를 두고두고 느끼며 차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생고사리감자탕
생고사리 100g, 감자 1개, 호박 40g, 건표고 3개, 다시마 5개, 청고추 1개, 홍고추 ½개, 채수 2컵, 집간장 1t, 들기름 1t, 된장 1T, 고춧가루 1t, 고추장 1t

1. 된장, 고춧가루, 고추장을 고루 섞어 미리 양념장을 만들어 놓는다.
2. 생고사리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10분정도 삶은 뒤 아린 맛을 우려낸다.
3. 감자와 호박은 반달썰기하고, 표고는 채 썰고, 청 · 홍고추는 어슷썰기 한다.
4. 표고버섯과 고사리를 넣고 집간장과 들기름으로 밑간을 해서 볶다가 먼저 감자와 채수를 붓고 끓인다.
5. 국물이 끓으면 양념장과 호박을 넣고 한소끔 더 끓인 뒤 청 · 홍고추를 넣고 그릇에 담아낸다.

방아장떡
방아잎 50g, 호박 ⅓개, 청고추 1개, 홍고추 ½개, 표고버섯 1개, 밀가루 1컵, 고추장 1T, 된장 1T, 물 ⅓컵, 부침유(들기름1T+식용유1T)

1. 방아잎은 씻어서 물기를 뺀다.
2. 호박, 청고추, 홍고추, 표고버섯은 씻어서 다진다.
3. 밀가루, 고추장, 된장,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든 뒤 방아와 다진 채소를 넣고 잘 섞어준다.
4. 달군 프라이팬에 부침유를 두르고 반죽을 1스푼씩 올려 약한 불에 지져낸다.

곰취쌈밥
곰취 1봉(20장), 7분도현미 2컵, 된장 1T, 조청1t, 소금 약간, 참기름 1t

1. 불린 현미로 고슬하게 밥을 짓는다.
2. 끓는 물에 뚜껑을 열고 곰취를 삶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고 곰취대는 잘게 썰어 놓는다.
3. 된장, 조청, 참기름을 넣어 쌈장을 만든다.
4. 볼에 밥을 담고 소금, 참기름, 곰취대 잘게 썰은 것을 섞어 밥을 뭉친다.
5. 곰취를 펴놓고 뭉친 밥을 놓은 다음 쌈장을 올려놓고 보자기로 여미듯이 밥을 싼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⑧ 특발성 부종

부종 원인은 신장 · 간장 · 심장 이상

"자꾸 몸이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에도 이상이 없고 간이나 심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요. 한의원에서는 신장이 약하다고도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을 진료실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은 더운 환경에서 오래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장시간 작업하는 40대 여성들인 경우가 많다. 또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체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2,30대 여성 역시 더러 이런 문제를 상담하곤 한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수분 대사를 총괄하는 기능이 신장에 있다고 생각하므로 '신장' 이 단순히 콩팥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수분 대사에 관계하는 내분비기능과 소변 배설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합친 것이 바로 한의학의 '신장' 이므로 신장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현대의학의 신장(콩팥) 이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시, 몸이 붓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몸이 붓는다는 것은 수분이 몸에 많이 정체되어 외견상 특유의 부기(浮氣)를 형성한 것을 말하는데, 몸의 부위를 가리지 않고 붓는 전신부종과 특정한 부위가 붓는 국소부종이 있다.

사람의 체중 가운데 60%는 물이다. 이 물의 2/3는 세포 속에 있고, 1/3은 세포 바깥에 있다. 이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 부기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다.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의 1/4은 혈관을 따라 움직이는 혈액의 형태로 존재하고, 3/4은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간질액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만약 혈액 속의 수분이 모세혈관의 막을 통해 과도하게 밖으로 빠져 나가 간질액을 증가시키면 부종이 된다.

모세혈관의 막에는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의 크기는 수시로 변동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모세혈관 투과도의 변화는 부종 형성의 구조적인 기초가 된다.

그리고 수분과 생명유지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은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수시로 이동하고 있는데, 수분의 이동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트륨과 알부민이다. 나트륨이 과잉되거나 알부민이 부족하면 삼투압에 이상이 생겨 수분이 세포 밖에 모여 부종이 된다.

따라서 배설을 담당하는 신장, 영양분의 저장과 관련이 있는 간장,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의 기능 이상은 모두 전신적인 부종을 일으키는 원이 된다. 그밖에 대사 기능 전반에 작용하는 내분비질환이 또한 전신 부종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국소적인 부종은 염증과 정맥 혹은 임파의 이상으로 생긴다.

부종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면 이러한 여러 경우의 수를 확인한 다음 특정 원인 질환을 찾아낸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이상이 없고, 반복적으로 붓는다면 그 다음에는 특발성 부종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특발성 부종 환자들은 다른 원인 질환 없이 혈관에서 수분이 잘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겼거나 다이어트 등으로 인슐린과 소변 배설을 억제하는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 된 탓으로 붓게 된 것이다.

몸 속 수분 정체가 부기 형성
"밥 · 면 등 탄수화물 줄여야"

앞에서 예시로 설명한 내용은 특발성 부종 환자들의 전형적인 형태가 된다. 특발성 부종 환자들은 붓기로 인해 체중 변화가 심한데, 정상인들이 하루 500g 이내의 체중 변화를 나타내는 데 비하여 1.4kg 이상의 체중변화가 하루 중에 생긴다. 부기는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침에는 얼굴과 손이 붓는 느낌이고 체중이 조금 늘어난 상태로 시작하여 오전 중으로 활동과 더불어 점차 줄어든다. 그러나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점점 체중이 늘고 다리에 부종이 심하게 나타는 양상을 보인다. 점점 부으면서 낮에는 소변을 잘 보지 않다가 밤이나 수면 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특발성 부종을 앓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소 비만한 사람들이 많고, 체중에 민감하며, 소화장애, 복부팽만감, 불안, 정신적 긴장 등을 함께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앉아서 활동하는 사람,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사람, 이뇨제나 하제를 남용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떻게 특발성 부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첫째, 염분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물을 먹지 않고, 맵게 먹지 않도록 한다. 매운 맛은 짠맛을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둘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 밥과 면 등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음식을 줄여 하루에 90그램 이하로 낮춘다. 탄수화물은 붓거나 살을 찌우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한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고정된 자세는 혈관의 투과도를 높여서 수분을 조직 사이로 흘러들게 하여 부종을 유발한다.

△넷째, 고탄력 스타킹을 착용하여 하지 부종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늦은 밤이나 수면 중에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는 일이 줄도록 한다. 이것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특발성 부종이 더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하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걷기 운동 등을 빠르게 한다. 그러나 30분 이내로 짧게 자주 하도록 한다. 다리의 근육이 강화되면 하지 부종을 예방할 수 있지만 너무 장시간 걷게 되면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짧고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더운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외출할 때에는 양산을 써서 복사열을 막는 것이 좋다. 고온 환경에서는 혈관 투과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검은 색 양산은 신체 표면 온도를 4~5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

부기를 빼는 이뇨제는 역설적으로 특발성 부종을 더 심하게 하므로 복용을 중단한다. 한의학에서는 이상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기(氣)가 순환되면 수분도 잘 배설된다는 이론에 따라 기의 정체를 풀어주는 약물로 처방을 구성하고, 복부와 허리 및 다리에 분포하는 경혈에 침을 놓아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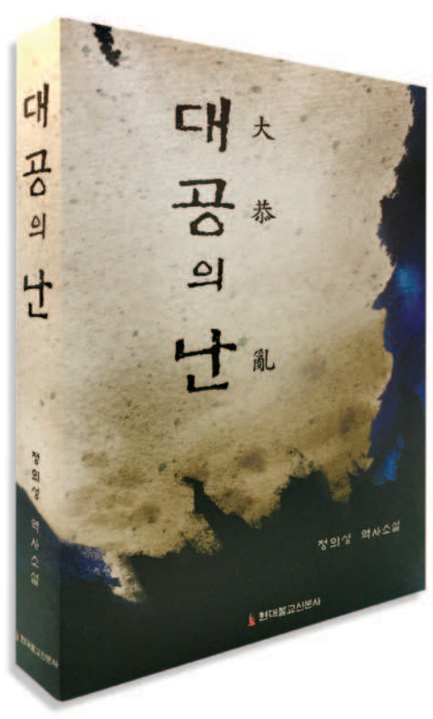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